

제4편 양평의 지명유래



제1장
지명유래

여 백

제1장 지명유래*

제1절 개 관

양평군은 경기도 동쪽 끝에 위치하여 산악과 남·북한강유역 하단에 연결한 농경문화권 지역으로 총면적 872.44km²이며 군청 소재지는 양평읍 양근리이다.

북쪽은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홍천군과 붙어 있고, 서쪽은 북한강을 사이에 둔 채 남양주시·광주시에 닿아 있으며, 남쪽 역시 여주군과 인접해 있고, 동쪽 또한 강원도 횡성군과 원주시가 연결해 있는 고장이다.

군 중앙의 용문산 가섭봉(1,157m)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뻗은 봉미산(856m)의 험준한 산세는 여러 갈래를 형성하여 계곡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동서로는 남한강이, 남북으로는 북한강이 양수두(兩水頭)에서 합류하여 서해(西海)로 유입하는 지역으로 계곡과 남·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주거와 농경지역이 널리 펼쳐지면서 다양한 속지명이 구전되며 오늘에 이르렀다.

양평군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형이면서 동·서·북쪽의 세 방향은 거의 고봉산악에 둘러싸인 지역이어서 대부분의 고을명칭이 산천(山川)에서 유래하고 있어 일부 지역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속칭(俗稱)이 중복되어 있다.

아울러 동부에서 북서로 흐르는 남한강은 서부에서의 남양주시와 경계를 이루어 하천의 여러 지류가 산재되어 있어 한강유역의 평지 및 취락지의 명칭 또한 비슷한 것이 많다.

양평군내의 지명은 산악지대, 하천지대, 평원지대 등 세 가지 유형의 명칭으로 분류되는

* 제1장은 양해석 집필임.

데, 고대에는 순수한 우리말로 불리다가 한자(漢字) 문화가 들어오면서 지명이 한자화가 되어, 지금은 다시 우리말 지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속칭과 개칭의 지명 유래가 많다.

‘양평(楊平)’이란 지명은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의 두 지역을 합친 통합호칭이다.

제2절 군명

1. 양근군

양근군(楊根郡)은 본래 양근군 또는 항양군(恒楊郡)이라 불렸으며(고구려시대), 다시 빈양현(濱陽縣)으로 고쳤고(신라시대), 그 후에 옛 지명인 양근현으로 고쳐서(고려) 조선시대까지 계속 불렀는데, 고려시대에 잠시 영화(永化) 또는 익화(益和)라고도 했다.

다음으로 지평군(砥平郡)은 지현군(砥峴郡)이라 불렸으며(고구려시대), 다시 지평군으로 고쳤다(신라시대). 지역의 수준급수가 감무(監務)에서 현(縣)으로 승격된 적도 있는 곳이다.

위의 두 연접지역을 1908년 9월 서로 합쳐 양평군이 되었다. 그후 일제시대에는 1914년 3월 전국의 317군(郡) 4,351면(面)을 12부(府) 218군(郡) 2,517면(面)으로 통폐합한 강제령에 따라 양평군과 지평군이 합병되었다. 양평군뿐 아니라 그 당시의 순수성을 담고 이어온 우리 민족의 고유한 지명들은 거의 말살된 채, 두세 개 이상의 지명을 임의로 조작 합성하여 개명(改名)됨으로써 전 국토의 고유지명은 구전(口傳) 또는 변음(變音) 속음화(俗音化)로 바뀌어 전해지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양평군은 산악·하천·평원의 세 유형이 어우러져 있다. 이 가운데 산악지대의 경사지 대부분을 주거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명(地名)의 분포 역시 산촌 경관을 모방하였다. 또한 산악지형이 75.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대에는 원시 무속적(巫俗的)인 문화의 양상이 삶을 지배하여 샤머니즘적 사상을 내포한 지명이 적잖이 나타난다.

현대에 와서 중앙선 전철이 군의 동서를 가로질러 있으며, 서울과 강릉 사이의 국도(國道)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혀 대부분 직선으로 개설되었으며, 사방으로 연결된 지방도로 또한 포장에 잘 되어 있다.

이러한 도로망의 구축으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근거리지역이라는 잇점과 산수가 수려한 잇점으로 전원주택마을이 점점 증가하여 산과 들의 형태를 바꾸면서 새롭게 남·북한강변을 중심으로 주거지와 근린시설지역이 형성되어 형태가 완전히 변해 옛 지명의 속칭(俗稱)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각 면(面)마다 지명(地名)을 고친 경우도 적지 않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강제적인 통폐합으로 상중하, 동서남북, 시중종 등으로 편리하게 분류한 지명이 많다. 또한 양평군 관할이었던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에 이속되었으며, 1942년 4월에는 설악면(雪嶽面) 또한 가평군에 이속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부분적이긴 하나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몇 차례 변화가 있었다. 즉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이던 개군면(介軍面)이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 7월에 서종면 삼회리(三會里)와 노문리(蘆門里) 일부가 가평군에 이속되었다.

1979년 5월에는 대통령령 제9409호에 따라 양평면이 양평읍(楊平邑)으로 승격 조정되었으며, 1988년 8월중에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의 발효로 군내의 총체적인 개황은 양평읍 1개 읍(邑)을 위시하여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옥천, 용문, 지제, 청운 등 11개 면(面)과 110개 법정리(法政里), 248개 행정리, 760개 반(班)으로 형성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55개 행정리와 75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양근군(陽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이 합쳐지기까지 그동안 불린 양평군의 지명(地名)에 대한 호칭의 의미를 양근·지평읍지를 기준으로 하여 추측해보고자 한다.

① 양근군의 지명은 고구려시대에 근거를 둔 지명이다. 양근(楊根)은 버드나무 뿌리란 어원(語原)으로 짐작컨대 남·북한강을 옆으로 끼고 둘러 있으면서 아득한 상고시대부터 강변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또한 홍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제방(堤防)을 쌓고 버드나무(楊)를 심고 가꾸어 경관을 살리고 토사(土砂) 유실을 방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 지명은 현재의 갈산이나 양평교 부근의 양근리만을 두고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넷가 어디에나 버드나무(楊)가 자라 그 뿌리(根) 밑동이 얹혀진 채로 뻗어나 기초가 튼튼한 고장'이란 뜻에서 유래된 지명, 즉 양제근기(楊堤根基)의 근원을 암시하고 있다.

② 항양(恒陽)은 양근(楊根)과 같은 시대에 부른 지명이다. 화창한 태양빛이 변함없이 항상 비취한다는 의미로 양지쪽의 만물은 계속 번창하므로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보려 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음성에 비해 양성(陽性)은 그 근원이 진취적이며, 변화 없는 영원성(永遠性)이라는 데에서 지명이 고정된 것 같다.

③ 빈양(濱陽)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지명으로 물가에 인접한 양지(陽地)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주거지(집터)의 위치를 그다지 가리지는 않으나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풍수지리설의 조건을 따르려는 습속(習俗)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양지(陽地)쪽이고 식수(食水)와 농업용수에 유리한 곳을 반드시 갖추지 않으면 사

람이 살아갈 수 없었으므로 양평군내의 선사(先史)유적지 출토지역은 대체적으로 강가에 인접한 곳이다.

④ 영화(永化)는 고려시대의 양근군 지명으로 장구한 시간을 두고 덕(德)을 닦아가며 번창한 생활을 지속한다는 속뜻이 있다. 영생화육(永生化育)을 함축하는 뜻으로 불교적인 면도 담겨져 있으므로 순박한 인심, 먼 장래까지의 영구함이 내포되어 있다.

⑤ 익화(益和)라는 지명도 양근군을 고려시대에 일컬었던 명칭이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화목하기를 더욱 유익하게 하는 고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평화와 번영, 일익화창(日益和昌)을 바라는 선대인(先代人)의 속마음이 내포되었다. 당대에 의화군(宜和君)이란 시호를 받은 김인찬이란 분이 양근 김씨의 시조(始祖)라고 전해진다.

이상 오늘의 양평군 전대(前代)의 지명을 살펴본 결과, 지정학적인 상징성이 아니라 군민(郡民) 전체에 대한 애향심과 미래지향적인 영원성으로 행복한 지역(福地)을 나타내고자 한 점이 확인하며, 편안하고 평화롭게 항구적으로 살아가는 고장이 되기를 희구한 명칭들로 되어 있다.

2. 지평군

양근군(楊根郡)과 합병한 지평군(砥平郡)의 지명은 지정학적인 연관에 의하면 상징성은 내포되지 않은 듯하다. 고구려시대의 지현(砥峴)이나 신라시대의 지평(砥平), 고려시대의 지제(砥堤)라는 지명은 이 고장 지산(砥山)에서 숫돌이 채석되므로 생산지를 본따서 불린 것이며, 후대로 오면서 평지에 논농사를 짓기 위해 저수지를 만들고 제방(둑)을 쌓아 들판의 지형을 기궤운 선대(先代)의 생활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지역 명칭이라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양근(楊根)과 지평(砥平) 두 지역이 통폐합되어 오늘의 양평군(楊平郡)이 된 경위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 년 전에 지평과 양근이 한 고장으로 합해진 이후, 줄곧 두 지역은 격동기를 겪어야 했던 우리 조상들의 희비애락이 산악 토양과 냇가 고을고을마다 서려 있음을 느끼게 되며, 순박한 인심 속에서도 국가를 위한 애국충심(愛國忠心)이 솟구친 지역이었다.

한편 낙토(樂土)가 되기 어려운 가장 추운 산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향해 달리는 지역민의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하여 예전의 '최미포구'가 오늘날엔 어엿한 경관수려(景觀秀麗)한 남한강 물빛의 대교(大橋) 제1, 제2가 뻗쳐 그 위로 남한강종합수련원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양평군 전체를 굽어살피는 미지산(彌智山), 가섭봉(伽葉峯)과 백운봉(白雲峰) 등이 태백의 여세와 광주산맥의 큰 뒤편리 그 정기(精氣)로 하여 872km²의 가장 큰 군세(郡勢)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오로지 수도권 전체 국민들의 식수원(食水源)이 되고 있다. 양평군민은 맑고 포근한 인심으로 모든 것을 감싸안아 참고 화합하면서 쌀, 보리, 콩 등을 위시하여 감자, 옥수수, 배추, 무, 심지어는 잣, 꿀, 산나물, 밤, 은행, 약초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을 향해 후덕한 배달민족(倍達民族)의 속성을 이 시대까지도 버리지 않고 조용히 땀흘리며 살아 가고 있는, 실로 양평군만의 자부심이다.

옛 어느 문인(文人)의 찬시 중에 전해오는 '양평팔경(楊平八景)'을 잠시 기억해 본다.

백운융상(白雲隆象)	갈산승경(葛山勝景)
남한추무(南漢秋霧)	삼현풍월(三賢風月)
오동진모(梧桐津暮)	봉원유도(鳳元遺陶)
신백산렵(新白山獵)	과창곡대(過倉穀垓)

위의 시 외에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양평군의 찬시(讚詩)는 많다. 이곳을 다녀간 시인 묵객들의 붓끝 놀림에서도 양평 예찬은 자주 드러나며, 양평군에 사는 문인과 화가들의 활동 또한 으뜸이다. 이러한 여러 문인들의 작품에서는 우리 고장 예찬의 문귀가 더욱 돋보인다.

제3절 읍·면

1. 양평읍

군내 중앙에 위치한 양평읍(楊平邑)은 면적 41.4km²이며, 양근리(楊根里)를 비롯하여 12개 리로 형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읍내면 양근리, 오빈리(梧濱里) 등 4개 리와 동종면(東終面) 도곡리(道谷里) 등 4개 리를 관할하였다.

1914년 부(府)·군(郡)·면(面) 폐합에 따라 위의 2개 면을 합병하여 갈산면(葛山面)이라 하고, 1938년에는 양평면으로 개칭했다가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에 의해 양평읍으로 승격되었다. 양평읍은 북쪽으로 옥천면, 서쪽으로 양서면, 남쪽으로 개군면·강상면, 동쪽으로 용문면과 접해 있다.

북쪽 용문산 가섭봉(1,157m)의 영향으로 그 여맥이 북동 경계를 이루며 남동으로 뻗어 있

고, 북쪽에 백운봉(白雲峰, 940m)이 솟아 남서방향으로 경사를 이룬다. 남한강은 서쪽경계에서 남서로 흘러 이 유역에 평야지대가 발달해 있다.

읍에 대한 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래 양근군(楊根郡) 지역으로서 양근읍내가 되므로 읍내면(邑內面)이라 하여 오빈(梧濱), 상평(上坪), 하평(下坪), 석교(石橋), 신만(新晩), 서부(西部), 궁문(宮門), 동부(東部), 아야(我也), 흥청(興淸), 공산(公山), 백동(白洞), 장안(長安)의 13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하여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동종면(東終面)의 기산(岐山), 신대(新垔), 능산(陵山), 성산(城山), 신흥(新興), 천변(川邊), 용산(龍山), 대곡(大谷), 봉곡(奉谷), 송곡(松谷), 덕암(德岩), 원당(元堂), 간마(艮馬), 축동(築洞), 창대(倉垔)의 15개 리와 회암(會岩), 가락(可樂), 백곡(柏谷), 진변(津邊), 고읍면(古邑面)의 덕곡(德谷), 용암(龍岩), 웅암(甕岩), 사탄(沙灘) 일부를 합병시켜 갈산(葛山)의 이름을 따서 갈산면(葛山面)이라 하여 오빈, 덕평, 양근, 신애, 공흥, 백안, 창대, 도곡, 대흥, 봉성, 원덕, 회현의 12개 리로 개편하여 37개 행정리에 120반이 구성되도록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가 마련되었는데(1988년 8월 1일자), 2002년 12월 31일 현재 39개 행정리에 12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양근리(楊根里, 칠미, 갈산, 양근, 읍내, 양평읍내)

원래 양근군 읍내면 중심지역으로 칠미 또는 갈산이라 하였다. 1747년에 양근군(楊根郡) 관아(官衙)가 옮겨와 양근읍내가 되어 양근읍내, 읍내, 양근이라 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이 됨으로써 양평읍내라고 했다. 그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서부리, 관문리, 동부리, 하평리 일부를 합쳐 양근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1988년 8월 1일 기준으로 8개 행정리에 50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1992년 11월 1일자로 10개 행정리에 54개 반으로 개편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0개 행정리에 4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현재 읍사무소(邑事務所) 소재리이며 군청을 비롯하여 단위기관이 있는 곳이다.

양근1리(4반), 2리(5반), 3리(6반), 4리(6반), 5리(6반), 6리(3반), 7리(5반), 8리(3반), 9리(5반), 10리(5반)가 있다. 그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산(갈산) 관문거리 동남쪽에 있는 산. 칠미 많아 양근리 남쪽 강변의 뚝 역할을 하고 있음. 지금은 갈산공원이 조성되었음.

객사터(客舍-) 양근리에 있는 양근군의 객사터로 양근대교 위 옛나루터 윗쪽.

관문거리(官門-) 현 양일종합고등학교 아랫마을에 옛 관아가 있었음.

골안 양근장터 북쪽 북덕산 아래의 골짜기마을이어서 골안이라 불림.

나루터 양평대교(楊平大橋)가 있는 터로 서울과 강원·충청지방 간의 수송물자를 나르는 배가 쉬던 곳이며 예전에는 객줏집도 있고 양평읍과 강상면 나룻배가 오가던 자리.



양평읍 양근리 장사바위가 있던 곳(현재는 팔당댐으로 인해 물 속에 잠겨있다)

도장굴 덕평리로 넘어가는 골짜기.
 독바위 진여울 동쪽에 있는 바위.
 동부(東部) 관문거리 동북쪽 마을.
 북덕산 양근리에서 골안을 둘러싸고 있는 산으로 공동묘지가 있음.
 사거리 양평역 남쪽 마을.
 삼거리 관문거리 남쪽의 마을로 시내 중앙에 있는 여주, 홍천, 서울로 갈라지는 곳.
 새말 관문거리인 장터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현재의 양근8리임.
 서부(西部) 관문거리 서쪽 마을.
 쇠전거리 장터 서쪽의 소를 파는 곳으로 지금은 창대2리로 이전함. 다시 창대1리로 이전.
 아홉사리 새말 동쪽에 있는 굴다리 부근 마을.
 양평역전(楊平驛前) 중앙선에 위치한 역 앞 마을.
 양평교(楊平橋) 양근리와 강상면 교평리 진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 그 아래쪽 600m에
 양평대교가 새로 세워졌음.
 여물고개 오빈리로 넘어가는 고개.
 자작고개 칠포에서 창대리로 넘어가는 고개. 고개 아랫마을의 별칭이기도 함.
 장사바위 갈산 너머 강변에 있는 큰 바위.
 장터 오일장이 개설되었던 사거리 동쪽의 마을로 오늘날에는 항상 시장의 점포가 있음.
 진여울 새말 서쪽의 긴 여울.
 참샘물 물맛이 좋은 샘물이 나오는 골안마을.
 충훈탑 갈산에 있는 탑으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전몰애국청년 영혼을 기리고자 1968
 년 6월 6일 건립하였음. 1990년 12월 10일 다시 세움.

아파트촌 그린·현대 아파트 마을이 새로 생긴.

오일장터 양근2리 지역으로 오일장이 서는 장터. 휴장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함.

2) 공흥리(公興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공산리(公山里)와 흥천리(興天里)를 합병시켜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한 마을 이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흥1리(6반), 2리(4반), 3리(6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공산이(公山-) 북바위 북쪽의 마을로 지형이 한자 '공(公)' 자처럼 생겨 지어진 이름

공흥교(公興橋) 공흥리에 있는 다리, 지금은 새로 생긴 이가로에 있음.

돼지고개 공산이에서 백안리 새수골로 넘어가는 고개.

보름골 옥동미 고개 밑에 골짜기.

북바위 이 마을 북쪽에 큰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인데, 지금은 국도개설로 바위는 없어졌음.

수청거리(水淸-) 공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주막이 있던 거리. 앞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음.

아랫말 공산이 아랫쪽 마을. 이와 반대의 웃말도 있음.

양짓말 공산이 '양지쪽 마을'을 줄인 명칭. 이와 반대의 응달말도 있음.

옥동미고개 공산이에서 보름골로 넘어가는 고개.

흥천골(興天-) 흥천사가 있는 마을.

흥천사(興天寺) 수청거리 북쪽에 있는 절로 현재는 없음.

꽃동네 북바위 남쪽으로 새로 생긴 마을. 터미널개 버스정류장 부근에 새로 생긴 마을.

이외에도 웃말, 응달말 등이 더 있다.

3) 대흥리(大興里)

원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신흥리, 천변리, 용산리, 대곡리를 합쳐 네 지역 중 대곡리와 신흥리 두 곳의 의미가 깊은 두 글자를 합성한 마을 이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흥1리(1반), 2리(2반), 3리(1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울개 황골의 서쪽 개울 마을.

난간터 일명 '남간터' 라고도 하며, 남씨가 많이 살았다는 유래가 있음.

너박디위 난간터 서북쪽 산 위에 넓은 바위가 있다 하여 유래함.



양평읍 대흥리 사모바위

너박다위 고개 너박다위에서 백안리 장골로 넘어가는 고개.
 도장골 황골 동쪽에 있는 마을.
 마산(馬山) 대흥리 소재의 산으로 말 모양으로 보이는 데서 연유함.
 막은데미고개 황골에서 남간터로 넘어가는 고개.
 백고개 황골에서 용문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벼랑고개 황골에서 봉성리 벼랑 쪽으로 넘는 고개.
 불당골(佛堂-) 새골 북쪽의 마을로 암자가 있었다고 함.
 사모바위(沙帽-) 대흥리에 있는 모자 모양의 바위.
 새골(川邊) 백안리 장골과 대흥리 황골 사이의 마을이라 하여 붙은 이름.
 새골고개 새골에서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
 성미다리 황골 남쪽에서 봉성리 성미로 넘어가는 다리.
 약정나무골 대흥리 소재의 골짜기로 자작나무가 있다 함.
 영산재(靈山-) 대흥리 소재의 작은 산으로 산신당이 있었음.
 음터구니 개울 동쪽 응달진 곳의 마을.
 잔동 도장골 남쪽 마을.
 절터골 골짜기에 절이 있던 골짜기.
 주산(主山) 작은 산.
 지골고개 지골에서 황골로 넘는 고개.
 지네바위 지네가 많았다는 바위.
 큰골고개 큰골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넘어가는 고개.
 태봉 새골 뒤의 봉우리로 왕자의 태를 묻어 영릉이라고도 함.

황골(안말, 大谷) 마을 뒤쪽 용문산 방향으로 난 2km가 넘는 넓고 깊고 긴 골짜기로 일명 '괴란골'이라고 부른다.
이외에도 모통이, 안말, 주막거리 등이 더 있다.

4) 덕평리(德坪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언덕말, 잼말, 평리, 돌다리, 요골'을 합쳐 그 중에 언덕말의 '덕'자와 평리에 '평'자를 따서 지은 지명이다.

혹자는 덕망 있는 이가 모여 살아 생긴 명칭이라 하나 근거가 희박한 말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덕평1리(1반), 2리(1반), 3리(1반)로 이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단지목고개 잼말에서 공흥리 홍천골로 넘어가는 고개.

덕평저수지 돌다리 북쪽에 위치함.

도장골 돌다리 남쪽의 골짜기.

돌다리(石橋·中坪) 잼말 서쪽이며 상평과 하평 중간마을로 돌다리가 놓여 있음.

빈양산 벼말 남쪽의 가파른 산.

벼말(下坪) 돌다리 서남쪽 넓은 마을.

안산(案山) 잼말 앞에 있는 산.

웃골 벼말 동남쪽의 마을.

잼말(上坪) 덕평리에서 제일 큰 마을로 위쪽에 위치함. 일명 '잼말'로도 불림.

한들 벼말 앞의 넓은 들.

이외에도 상평, 석교, 언덕밭, 중평, 하평 등의 마을들이 더 있다.

5) 도곡리(道谷里, 도지울·도주울)

원래 양근군 동종면에 속하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죽사리, 탑곡리, 간마리, 능산리, 신대리, 성산리의 각 일부를 합쳐 도곡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곡1리(3반), 2리(2반), 3리(2반)로서 이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울 밤나무골 북쪽 마을로 일설에 말을 먹이던 곳이라고도 전해짐.

가자울 도주울 북쪽 골짜기.

까치골 도곡리에 있는 골짜기로 까치가 많아 이런 이름이 유래함.

갈미 칩이 많아 그 향기가 아름답다는 유래가 있음.

남간터고개 도지울에서 대흥리 남간터로 넘어가는 고개.



양평읍 도곡리 까치골 전경

능말 죽저울 밑의 앞산에 한양 조씨(조공근) 사당이 있으므로 생긴 마을. 능이 있다는 설도 있음.

능산굴 능산에 있는 중앙선 기차의 굴로 일명 '능산터널', '능말굴' 이라고도 함.

던주울(둔지울) 밤나무골 서쪽 마을로 옛날 병마(兵馬)가 머물렀던 데서 연유한 이름.

도둑골(도장골) 도둑이 숨어 있었다는 골짜기.

도지울 글을 알고 도리(道理)가 밝은 이가 살아서 생긴 이름.

돌막재 돌이 많은 언덕.

뚝바위 동리안의 바위.

매봉재 도곡리의 높은 산에 매가 있다 하여 유래함.

맹골 도지울 아래의 골짜기.

방죽둔지 가마울 서북쪽의 연못이 있는 곳.

묘골 도주울 서쪽의 골짜기.

묘골고개 묘골에서 가자울로 넘어가는 고개.

밤나무골 도주울 서쪽 마을로 밤이 많았다 함. 한자로 울목동(栗木洞)이라 씀.

방아다리 도곡리의 들판 이름으로 전염병이 나돌 때 이곳에 디딜방아를 거꾸로 세워 도액을 하던 민간 속신설(俗信說)에서 유래하였음.

별말 들판 마을.

병막골 병마가 머물렀다고 함.

죽사(竹寺) 도주울 동남쪽 마을로 옛날 이 마을 앞에 대나무로 지은 큰 절이 있어 생긴 이름.

일명 '죽절', '죽지울' 로도 불림.

진골 탑골 서북쪽의 골짜기 마을로 긴 골짜기에서 '긴' 이 '진' 으로 방음(方音) 구개음화



양평읍 도곡리 탐골 마을 전경

된 것임.

진골고개 진골에서 죽저울로 넘어가는 고개.

진골방죽 진골에 있는 연못으로 1920년경에 만들었다.

집가터 도곡리에 있는 버덩, 일명 벌말.

침통 도곡리에 있는 소(沼).

탐골 죽저울 동남쪽 마을. 1500년경 큰 절이 있었고 탐이 여러 개 있어 불린 이름.

이외에도 공병대앞, 아랫말, 후보앞 등의 지명이 더 있다.

6) 백안리(白安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동리, 장안리, 공산리 일부와 동종면 간마리, 신대리의 각 일부를 합병하여 백동과 장안의 두 지역 글자에서 한 자씩 합쳐 만든 이름으로 갈산면(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락 뒤의 백운봉 명산계곡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백안1리(3반), 2리(2반), 3리(1반)로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울고개 장안에서 도곡리 가마울로 넘어가는 고개.

거래 분말 동남쪽 마을.

도주울고개 장안에서 도주울로 넘어가는 고개.

된내미 산 높이가 가파른 산.

몽둥바위산 몽둥바위가 있는 산.

붉은언덕고개 장안 뒤의 붉은 흙이 있는 고개.

비호고개 신골에서 용문면 연수리 학골로 넘어가는 고개.
 살구재 살구나무가 많이 있던 언덕.
 삼바골 신골 북쪽의 골짜기.
 새수골 양짓말 북쪽 마을로 백운봉 밑에 제일 높은 곳. 옛날 동래 정씨가 이곳에 처음 정착하여 새로운 곳에서 살 만하다[新宿] 하여 지은 이름.
 서낭당고개 장안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넘어가는 서낭당이 있었다는 고개.
 신골 백안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맑은 물이 마을 북편에 흐름. 흰골[白洞]에서 속음화로 변한 이름.
 양지말 신골 서북쪽의 양지 바른 마을.
 연산댁 말림 연산댁의 산으로 전해오는 산.
 장안 신골 동쪽 마을로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 함.
 진벌들 신골 남쪽의 긴 들판.
 풀무간 신골 남쪽의 대장간이 있던 마을.
 학교말림 양평초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산.
 이외에도 개자울, 구장터, 다래미동산, 달바굴, 마당재, 매봉재, 몽둥바위, 백안방죽, 본말, 뽕죽바위, 선바위, 세마골, 설바위, 승지우물, 실바위, 아랫모통이, 양지말림, 여우바위, 웃모통이, 응달말, 방죽등지 등의 지명이 있다.

7) 봉성리(鳳城里)

원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봉곡리, 송곡리, 성산리를 합쳐 봉곡과 성산의 두 지역 이름을 합성시켜 봉성리라 하였고, 산림이 울창하므로 각종 새들이 깃들여 살며, 임진왜란 당시엔 마을 앞뒷산에 성까지 쌓았다고 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봉성1리(2반), 2리(2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느골 비좁은 마을의 골짜기.
 고래울고개 뵈이랑에서 용문면 삼성리로 넘어가는 고개.
 공장골 쇠리골 남쪽의 마을.
 능앞 애기능 앞의 들판.
 두렁뎡이고개 뵈이랑에서 원덕리 두렁뎡이로 넘어가는 고개.
 말무덤잔등 등성이에 커다란 무덤이 있는데 원덕리 용이부리소에서 나온 용마가 주인을 찾다가 죽어 묻혔다는 곳.
 뵈이랑 봉성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일명 '봉곡(鳳谷)' 이라고도 불림. 풍수지리설에 명당자리가 있다는 고장.



양평읍 신애리 신애저수지 전경

성미 쇠리골 서북쪽 마을로 성을 쌓아 주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함.
 쇠리골 뵈이랑 서쪽의 마을로 일명 '송곡(松谷)' 이라 함은 소나무가 많은 골짜기였기 때문
 에 붙은 지명 같다. 절의 불경소리가 들렸다는 데서 연유했다는 지명 유래는 억설 같음.
 애기능 큰산수말림에 있는 어느 왕자의 무덤.
 이보들 능 앞 동북쪽의 들판.
 큰산수말림 원주 이씨의 묘소가 있는 산.
 황골고개 뵈이랑에서 대흥리 황골로 넘어가는 고개.
 이외에도 바탕골, 새말, 송장산, 아랫말, 웃말, 칠성개울, 큰골 등의 지명이 있다.

8) 신애리(新愛里)

원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곡리, 신만리, 석교리 일부를 합쳐 신만과 애곡의 두 지명 첫 글자를 합성시켜 만든 지명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애1리(2반), 2리(2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지명에 관한 또 다른 일설로 새마니(新磨尼, 새로이 불교를 전파시킴)라는 말에
 아야사란 절 이름이 애골로 변이(變移)되어 합쳐진 것이라고도 하나 신빙성은 희박한 듯하다.

가운뎃말 웅달말과 아랫말 가운데의 마을.

단지매기고개 새만이에서 덕평리 돌다리로 넘어가는 고개.

삼태골 새만이 북동쪽의 정자가 있는 마을로 일명 정자골이라고도 함.

새만이 신애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이 지명은 신애리의 옛말이며, 마을 뒤 두리봉에 새
 만니[新晩尼] 스님이 수월암을 지어 이에서 유래된다는 설도 있음.

쉬지고개 애골에서 옥천면 용천리 사내골로 넘어가는 쉽터가 있는 고개.

신애저수지 새만이 남쪽의 저수지로 1939년에 만들었다.

아래 한들방죽 한들벌의 아랫쪽 연못.

애골 새만이 서북쪽 마을. 일명 '애곡(愛谷)'이라 함. 아야사(我也寺) 절에서 아야골>애골로 변이된 듯하다.

웃나무담불 정자 갯채개울 동쪽 지역.

자드락고개 애골에서 옥천면 용천리 승지골로 넘어가는 고개.

잔돌배기 새만이 동남쪽에 있는 네 갈래 돌길.

이외에도 가남골, 갯채개울, 군수들, 동박골, 두리봉, 뒷말, 붓머루, 불당골, 삼풍저수지, 선바위, 아랫말, 안말, 앞고래, 유바위, 응달말, 절골, 지드락고개, 진경두, 진흙골, 칼바위, 한들벌 등의 지명이 있다.

9) 오빈리(梧濱里)

본래 양근군 읍내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오빈역(梧濱驛)이 설치되어 오빈, 또는 역말이라 하였고,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고읍면 덕곡리, 용암리, 웅암리, 사탄리 일부를 합쳐 오빈리라 하여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다.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오빈1리(5반), 2리(3반), 3리(3반)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포전 오빈 남쪽 냇가의 들.

덕구실 덕바위 서쪽의 마을.

덕구실나루터 덕구실에서 강상면 병산리 작개로 건너는 남한강의 나루터(옛 오빈진).

덕바위 오빈 서남쪽 바위.

떠드랑산 오빈리에 있는 산. 예전의 장마로 떠내려온 산이라 전해짐. 일명 '부래산(浮來山)'으로 쓰기도 함.

새말 1975년 웅기점터에 새로 형성된 마을.

안골 용배의 안쪽마을.

영무고개 오빈에서 양근리로 넘어가는 고개.

용배미 덕바위 북쪽 마을로 동네 북판에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하여 붙은 이름.

웅의 머리 덕구실나루터 동남쪽에 있는 산자락.

이외에도 다리께, 미라산, 서사리산, 쇠슬다리, 아랫말, 웃말, 이팔 아버지 묘 등의 지명이 있다.



양평읍 원덕리 삼형제바위

10) 원덕리(元德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암리, 원당리, 성산리 일부를 합쳐 원당과 덕암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킨 마을 명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원덕1리(2반), 2리(1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구장 원덕리에 있는 물도랑.

구진터 옛날 진을 쳤던 들판.

덕암 원덕리의 서쪽에 있는 으뜸 마을로 속칭(俗稱) '바위' 또는 '덕바위'. 이 마을 뒷산에 마을을 보호한다는 바위(바위)가 있어 생긴 명칭 같음.

마루들 지대가 높은 들. 원덕리에 있는 넓은 들. 지금 여기서 특수농작물을 재배함.

삼형제바위 세 개의 바위가 나란히 있는 곳.

용이부리 덩바위 서쪽의 용처럼 생긴 산자락.

용이부리소 용이부리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깊은 소. 옛날에 용마(龍馬)가 나와 주인을 찾다가 본성리 말무덤 잔등에 떨어져 죽었다고 함.

원당 논두렁이 많아 '두렁탱이'라는 속칭이 있고, 일년 내내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 좋은 마을이란 뜻이 있음.

원덕역 덩바위 북쪽에 있는 1939년 설치된 중앙선의 간이 기차정거장.

이외에도 공장골, 굴치들, 둔세전, 소반바위, 아랫말, 용이부리버덩, 옷말, 원덕들, 원덕숲, 원덕천, 전나무도랑, 중치배루 등의 지명이 여기저기 묻혀 전한다.

11) 창대리(倉垓里)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인데 조선시대 전창(前倉)이 있었으므로 '창터'라고도 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기산리, 신대리, 능산리, 간마리의 일부 지역을 합쳐 창대리라 하고 갈산면(양평읍)에 편입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와 1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창대1리(4반), 2리(5반), 3리(3반)이며 이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를 양짓말 동쪽의 마을로 일명 '갈월(葛月)'의 속음화임. 이곳에 갈월암이 지금도 있다. 기산(岐山) 창터 서북쪽 기산 밑의 마을로 조선시대 동종면(東終面) 사무소가 있었고 또 다른 지명으로 '동종' 또는 '동중(洞中)'이라고도 함.

꽃동산 마을 뒷산으로 진달래가 많이 피는 창대리 소재의 산. 이곳에서 1924년 갈산면장이 시해되었다.

능안고개 시저골에서 도곡리 능말로 넘어가는 고개.

뒤나무덤이 기산 뒷마을.

새말 새터골 동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터말 창대리보다 뒤늦게 새로 형성된 마을로 기산의 북쪽이고 양평동초등학교가 세워졌음. 일명 '신대(新垓)'라고도 함.

시저골 청해 이씨가 뒷산 조상묘에 시제(時祭)를 지내므로 변음(變音)되어 생긴 마을 이름. 일명 '시적골'이라 하기도 함.

우시장계 양근리 우시장이 이전되어 생긴 마을.

원수골 창대리에 있는 더운 물이 나왔던 골짜기로 온수(溫水)골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마을 동초등학교 부근에 새로 생긴 마을.

돌고개 온수골에서 회현리 샘들로 넘어가는 국도가 있는 고개.

이외에도 마은데미, 매봉재, 무데미, 배개미, 새농, 새창터, 신대방죽, 양짓물, 연주물, 응달말, 풀무소 방아다리, 잠자물, 공동산, 등의 지명이 산발적으로 전해오고, 결전·군인아파트 등이 새로 지어진다.

12) 회현리(會賢里, 삼현바위, 삼현암, 삼현석, 삼현편, 희암, 희현)

본래 양근군 동종면 지역으로서 여말(麗末) 삼은이라 일컫는 목은(牧隱)·야은(冶隱)·포은(圃隱) 세 사람이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모였던 고을이란 데서 지명유래가 전한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가소리, 백곡리, 진변리, 축동리, 창대리 일부를 합쳐 회현리라 하며 갈산면에 편성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회현1리(2반), 2리(3반)이며 이 마을의 몇 가지 지명은 다음과 같다.



양평읍 회현리 축동 전경

가소(可巢) 축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문화 류씨 조상이 살기 시작하면서 가히 살 만하다 하여 지어진 명칭.

돌고개 마을을 넘는 고개에 돌이 많으므로 붙은 이름. 샘들에서 창대리 온수골로 넘어가는 국도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북진통일의 비'가 있음.

벌말 벌판에 있는 마을. 일명 '벗말'이라고도 함.

안말 샘들의 안쪽 마을로, 넓은 들을 바라보며 평안히 사는 고장이란 뜻.

샘들 샘이 많이 나는 모퉁이 앞들. 지금 이곳에 4차선 도로가 신설됨.

축동(築洞) 삼현바위 서쪽 마을로 아직도 저수지 흔적이 있으며, 일명 '방축골'로도 일컬어짐. 조선시대에 저수지를 만든 곳.

허병바위 벗말 북쪽 마을로 낮은 지대에 바위가 많다는 데서 유래함. 군인아파트가 세워졌다.

삼현암 세 현인이 풍류를 즐기던 넓은 바위.

해나무소 삼현암 아래로 흐르는 흙천의 소. 해마다 익사자가 발생하므로 지금은 삼현암과 함께 육군 20사에서 매물하였음.

새보·돌보 회현리 석장리의 농업용수로 이용하려고 만든 보. 신내에 있음.

2. 강상면

강상면(江上面)은 군내의 서남부 즉, 남한강 좌안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42.8km², 7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남시면으로 불렸으나,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

호에 의한 폐합으로 현재의 명칭이 되었다.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을 건너 양평과 접한다. 서쪽과 남쪽은 험준한 산지이며 그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양자산(楊子山, 709m)이다. 간혹 반려암(班欄岩)이 분포되었고, 대부분 지역은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이 기반암을 이룬다. 경작지는 총면적의 19%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약 55%가 논이다. 산업체는 없고, 다만 백병봉(白屏峰) 산록에 채석장이 있을 뿐이다. 명승지로는 교평리(交坪里) 봉의정(鳳儀亭), 송학리(松鶴里) 구곡사(九谷寺)가 있다.

면(面)의 내력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1747년(영조 23) 남시면(南始面)이라 하여 황곡(黃谷), 작개(作介), 지례(智禮), 진변(津邊), 평리(坪里), 교암(交岩), 송산(松山), 내생화(內生花), 신흥(新興), 학곡(鶴谷), 신당(新堂), 구당(舊堂), 양곡(陽谷), 외생화(外生花), 연양(延陽), 월리(月里), 세심(洗心), 대감(大甘), 백석(白石)의 19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용담리의 일부를 합쳐 남한강의 위쪽이 되므로 강상면이라 하여 병산, 교평, 송학, 신화, 화양, 세월, 대석의 7개 리로 개편되어 17개 행정리와 41개 반이 구성되도록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가 마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2002년 12월 31일 현재).

1) 교평리(交坪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변리, 평리, 교암리, 송산리, 내생화리, 지례리의 각 일부를 합쳐서 교암과 평리의 첫 글자를 합성시켜 교평리라 하고 양평군 강상면에 편입시켜 오던 중,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의 행정리와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면소재지가 있다.

교평1리(3반), 2리(1반), 3리(1반)인 이 마을의 각 지명은 다음과 같다.

예전 강을 건너 양평읍 장을 보고 다닐 때에는 병산리, 송학리, 신화리, 화양리 마을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곤 하는 곳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는 속설(俗說)도 있다.

관둔들(官屯-) 뒤앵이 고래 동쪽에 있는 들판으로 둔전이 있었다고 함.

나루개(나루계) 양근 나룻가의 마을로 강상면에서 나룻배를 운영하던 곳. 일명 '진변(津邊)'으로 속음화되었거나 간이현상된 명칭임. 지금은 탐재와 함께 다리개로 불림.

댕이 논물 준비로 웅덩이가 많은 마을이라 붙은 이름.

뒤앵이 아랫말 뒤쪽의 마을로 '고래실'이라고도 함.

들말 봉의정 북쪽 들판에 있는 가장 넓은 마을임. 일명 '평리(坪里)'라 함.

등추나무 모퉁이 영중개 동쪽의 오등나무가 있는 모퉁이.

마금가리 산세가 마을을 둘러싸고 나무장사에 힘써 마른 나뭇가지가 많았던 연유로 생겨난 명칭.

막장거리 돌말 서쪽의 마을로 지대가 높아 논갈이가 맨 나중에 끝나는 데서 붙은 이름.

방아다리 디딜방아, 물레방아가 있었던 마을.

봉의정(鳳儀亭) 서라위 북쪽의 마을로 봉의정이 예전에 있었음. 윤승훈 재상이 세웠다고 함.

서라위 교평리에서 으뜸인 바위가 많은 마을로 남한강변에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붙어 있

으므로 서로 짝지어 서 있는 바위란 말에서 축약된 지명. 한자어로 '교암(交岩)'이라 함.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윤승훈이 한때 지냈던 곳.

소재말 황가틀 고개 아랫 마을.

옹바위 용 모양의 바위.

읍내나루 탐재에서 양근읍으로 통하는 나루터로 일명 '양근나루'라 함.

재너머고개 들말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진재말림 송장산 동쪽에 있는 산등성이가 길고 말림갯이 있었음.

척미마루 교평리에 있는 들판.

탐재 들말 북쪽의 마을로 탐이 있었음.

효자말 예전에 효자가 많았던 마을.

황가틀 고개 들말에서 서라위로 넘어가는 고개.

이외에 교평교, 벼락바위, 새말, 아랫나무개, 아랫말, 영중개, 웅덩이, 웃마을, 웃나루개, 재너머, 줄우물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2) 대석리(大石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감리, 백석리와 여주군 금사면 용담리 일부를 합쳐 대감과 백석의 두 마을 글자를 합성시켜 붙은 이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석1리(2반), 2리(3반)인 이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대감골 백석골 북동쪽 마을로 옛날 익화군(益和郡, 양평군의 옛 이름임) 양근 김씨 시조

(始祖)가 은거하므로 붙은 지명. 한자로 '大監'을 '大甘'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誤記)임.

방실 백석골 북동쪽의 마을.

배사골 본래 '백석(白石)골'이 동음(同音)의 묵음현상에 의해 변이된 마을 이름으로 흰돌

이 많은 곳이며 대석리에서 으뜸 마을. 또 다른 속설은 이 마을 뒤편에 큰 절이 있었는데

불자(佛子)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쌀 백석(百石)을 씻어낸 물이 하천으로 흘렀다고 하여 붙은 마을 이름이라고도 함.

상촌(上村) 배사골 위쪽 마을.

이가랭이 상촌 서북쪽 마을.

중말 상촌과 백석의 중간 마을.



강상면 대석리 배사골 전경

항강개 대감 북동쪽 마을이며, 마을이 남한강가와 인접되어 '한강가에' 어휘가 속음화된 말. 그밖에도 화담골, 새삼거리, 고인돌계 등이 있음.

3) 병산리(屏山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으로 백병산에 병풍 같은 바위가 있어 '병산'이란 명칭이 생겼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황곡리, 작개리, 지례리, 진변리 일부를 합쳐 붙인 이름이며 강상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병산1리(2반), 2리(2반), 3리(2반), 4리(1반)인 이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갑바고개 지월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가는 급경지의 고개로 고개위 바위가 마치 삿갓을 쓴 모양이라는 데서 연유함. 일명 '갓바위 고개'라 함.

개오개 굽두리 서쪽의 들.

굽두리 한배미 서북쪽의 구석진 곳에 있는 들.

느리울 병산 남쪽의 마을로 누런 곡식을 거둬들인 들이라 하여 '누리'가 속음화(俗音化)됨. 한자로는 황곡(黃谷)이라 씀.

느립들 느리울 북동쪽에 있는 들.

능골 큰골 동쪽의 들.

덕구실나루 변말 동쪽의 강나루로 옥천면 덕구실로 건너감.

말무데미 한배미 동쪽의 들로 강하면 성덕리 장수고을의 장수가 무술을 익히며 타고 다닌 말이 죽어 묻었다는 연유로 붙은 이름이라는 일설이 전함.

밤벌 느리울 서북쪽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다 함.

번말 지월 북쪽 마을.
 번미 독배 서쪽의 들.
 벌말 지월 동쪽의 벌판에 있는 마을.
 병산(屏山) 병산리의 준말로 일명 '버래'라 하기도 하는 마을.
 살구쟁이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
 수살매기 느림들 동북쪽 들.
 안장바위 말바위 옆에 있는 바위.
 양짓말 지월 동쪽 양지쪽 마을.
 옷초개고개 느리울에서 송학리 옷초개로 넘을 수 있는 고개.
 웅주능 지월 서쪽 산으로 조선시대 선조(宣祖) 막내딸 정근(貞謹)웅주능에서 유래함.
 웅달말 번말 서쪽, 웅달쪽 마을.
 작개(作介) '번말' 또는 '밭지울'로도 속칭(俗稱)되며, 마을 앞들에서 제각기 농사를 지으며 산다고 하여 '작개(作介)'라 하나 역설임.
 절터골 예전의 절터 흔적이 있어 붙인 이름인데, 여주군의 세종(世宗) 능의 석물(石物)을 이곳에서 채석하였다고 전함.
 지례(智禮) 번말의 남쪽 마을로 일명 '지월' 또는 '안지울'이라 하며 어떤 이는 '터골(基谷)'로도 부름. 이 마을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지혜롭다고 한 데서 생긴 이름이라 함도 무리가 있음.
 큰골 능골 서쪽 골짜기.
 한배미 굽두리 동쪽 큰 논으로 약 1정보나 되는 면적이었다 함.
 남시촌 작개부락 옆으로 새로 생긴 마을.
 이외에도 거북바위, 독배, 뒷골, 말바위, 수살매기 저수지, 아랫말, 웃말, 외북터, 지월고개 등이 더 전해진다.

4) 세월리(洗月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리, 세심리와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일부를 합쳐서 세심리·월리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킨 이후 강상면 소속 마을이 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에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재울 금사면 상북지역과 강상면 대석리 안골짜기에 있으며 물자수급의 요지(要地)로 무엇이든 다 있다는 의미로 가재(可在)에서 유래함.

고래들 장터거리 동쪽 들.

골안 피자골 서북쪽 골짜기.



강상면 세월리 꽃봉 전경

꽃봉 세심 서쪽 산으로 진달래가 많음.
 다리골(月里) 샛말 북쪽 마을로 월리를 가리킴.
 뒤토래 세심 뒤의 들.
 발뒤들 세월리에 있는 들.
 배람뱅이 세월리의 들로 곡식이 잘 되지 않음.
 벼루산 세심 북쪽 산으로 높이가 167.8m임.
 사실 다리골 동쪽 마을.
 샛말 세심과 다리골 사이의 마을.
 세심(洗心) 일명 '심벼루' 라고 하며 세월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앞에는 파내탄(波乃灘) 여
 울이 있음.
 응달말 다리골 응달쪽 마을.
 장터거리 세심 동쪽 마을로 예전 강벼루에 배를 대고 숙식을 하며 주막에서 물물교환이 있
 던 곳.
 중터말 세심과 아랫말中间的 마을.
 칼산 칼 같은 바위가 있는 세월리의 산.
 피자골 골안 동쪽 골짜기.
 할고개 다리골에서 오리목으로 가는 고개.
 감을빌리지 새로 생긴 전원주택형 마을.
 이외에도 소주봉, 아랫말, 앞들, 오리목, 청양들 등이 이 고을에 산재해 있다.

5) 송학리(松鶴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송산리, 신흥리, 학곡리를 합쳐 송산·학곡의 두 마을 첫 글자를 합성시킨 명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송산1리(4반), 2리(2반), 3리(3반)인 이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래복골 하일 서남쪽의 마을로 일명 '가래밭골'로도 일컬음.

갯바위 송산 서북쪽 바위가 있는 고개.

구절골 옛 절터 또는 절 아홉이 있었다는 데서 연유하였고 지금도 약수가 나오고 있음.

길마재 신흥에서 강하면 성덕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로 남중(南中)장을 보려고 소 등에 짐을 싣고 가다가 쉬어 가던 고개였다 함.

느리울고개 옷초개에서 병산리 느리울로 넘는 고개.

능너머 방축골 서쪽 마을.

뒷골 하일 뒤의 골짜기.

땡땡바위 송학리의 바위로 소리가 땡땡난다 함.

매봉재 길마재 서쪽 산으로 '응봉'이라고도 함.

미묘골 하일 옆의 마을.

밭하일 하일 바깥쪽 마을.

방축골 송산 서북쪽 마을로 예전에 방죽이 있었다 함.

분터골 웅기 흙이 나오던 골짜기. 이곳에서 설화로 영산 신씨 선조묘소를 장사할 때 내광에서 백조가 날아왔다 하여 명당을 잃어 분통해 했다는 데서 유래함.

불도대고개 방축골서 병산리 지월로 넘어가는 고개.

성설미 신흥 남쪽 마을.

송산(松山) 하일 동북쪽 마을로 뒷산에 소나무가 많았다 함.

신설미 오추계마을 설미에 새로 형성된 마을.

신흥(新興) 방축골 서쪽에 새로 된 마을.

오미 송산 동쪽 마을.

오추계 신흥 옆의 마을.

요골 신흥 북쪽 마을.

진때배기 신방죽 서쪽 들.

탑골 신흥 옆의 마을로 탑이 있었다 함.

하일(鶴谷) 송학리에서 으뜸의 마을로 어느날 학의 무리가 많이 날아와 서식했다 함.

이외에도 더덕재, 선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6) 신화리(新花里)

본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당곡리, 구당곡리, 내생화리, 평리, 교암리의 각 일부를 합쳐서 신당곡·내생화의 두 곳 지명 글자를 합쳐 신화로 불리고 강상면에 편입,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화1리(2반), 2리(2반)인 이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침외 산중 동쪽 산.

건너말(음달말) 학교 앞 건너 쪽 웅달진 마을.

꽃밭재고개 당골에서 새터로 넘어가는 고개. 진달래꽃이 많은 곳.

내생화(內生花) 이곳은 복만터, 뒷능, 당골, 분터골이 있으며 일명 '안생화'라고도 함.

능고개 학교말에서 송학리 송산으로 넘어가는 고개.

당골 생화 서쪽 지성을 올렸던 당집이 있었다 함.

뒷능 생화의 동북쪽 마을로 영산 신씨의 선조 묘가 있어 붙은 지명임.

분터골 원래 부퇴(覺退)골이 와전된 명칭. 영산 신씨 묘를 자리잡을 때 유택(幽宅)을 파니

낮게 바위가 깔려져 그 밑을 더 파고 보니 오리 한 쌍이 날아갔다는 민담이 전해짐.

산중(山中) 생화 남쪽 골짜기로 양자산 밑의 산 가운데라서 붙은 지명임.

새터(신당곡, 외생화) 생화 바깥쪽의 새로 된 마을, 즉 당골 어귀이며 일명 '신대(新垓)'라고도 함.

서석산 생화 서쪽 산.

안생화(내생화) 생화 안쪽 마을.

여우바위 신화리에 있는 여우 모양의 바위.

웃나무골 당골 서쪽 웃나무가 많았던 마을.

징말 뒷능 서쪽 마을.

학교말 뒷능 북쪽 마을로 강상초등학교가 있음.

홍복골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살았다는 곳으로 예전 집터만 있음.

이외에 느티나무들, 대봉, 매봉재, 분투골 연못, 서청외, 소주봉, 아랫말, 징말앞고개 등의 여러 지명이 더 있다.

7) 화양리(花陽里)

원래 양근군 남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된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곡리, 외생화리, 연양리를 합쳐 외생화·양곡의 두 지명에서 채자(採字)하여 붙은 지명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양1리(3반), 2리(3반) 마을의 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말 연양의 건넌 마을.

구터 사람이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흔적조차 없음.

담안 담을 마을 전체에 쌓은 곳이라 하며 담 쌓은 흔적이 남아 있음.

도러소 남한강물이 돌아 흘러 소가 있었다 하나 현재는 한국방송공사 남한강종합연수원이 세워짐. 이곳을 반와용추라 하여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함.

동배재 동(董)씨와 배(裵)씨가 살던 곳.

미라우 주변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붙은 지명.

뱅골(양곡) 연양 북서쪽 마을.

별말 넓은 들이 있는 마을.

셋골 마을과 마을 사이의 지명으로 일명 '작은 셋골'이라고도 함.

세집골 세 집만 모여 살고 있어 불리는 지명.

양지말 양지 쪽 위치가 되어 있는 마을.

연양(延陽) 화양리에서 으뜸인 마을.

오가촌 다섯집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 유래함.

절터골 절이 있던 곳으로 자취는 남아있음.

이외에 아랫뱅골, 윗뱅골, 음달말 등이 더 있다.

3. 강하면

강하면(江下面)은 군내의 남서단, 남한강 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44.51km², 6개 리로 형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 양근군 남중면이라 하여 상심리·운포리 등 13개 리를 관할하다가 1914년 3월 1일 강하면이라 하고 13개 리를 운심리 등 6개 리로 개편 관할하게 되었다.

강하면은 양평군 남측 3개 면, 즉 남시면·남중면 중간에 위치하여 남중면이라 하였으나 후에 군소재지에서 남한강을 건너 강상면과 대면 아래쪽이라는 데서 면 이름이 붙었다. 기반암은 대부분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이며, 남한강변을 따라 북부에만 소규모의 충적지가 나타난 뿐이고 남·동·서 3면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주요 산봉은 양자산(楊子山, 709m), 영자봉(榮子峰, 667m), 백병봉(白併峰, 424m)이다.

남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2개의 작은 지류가 좁고 긴 곡저평야(谷底平野)를 이루며, 여기에 대부분의 주민이 살고 있다.

면(面)의 내력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1747년(영조 23) 남중면(南中面)이라 하여 전의(全義), 사기막(沙器幕), 수대(壽岱), 상심(上心), 부로(扶老), 오리(梧里), 간촌(間村), 동문

(東門), 항금(恒今), 성덕(聖德), 운포(雲浦), 창촌(倉村), 왕충(旺忠)의 13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를 합쳐 남한강 아래쪽이 되므로 강하면이라 하여, 전수, 동오, 항금, 성덕, 운심, 왕창의 6개 리로 개편 관할하였다. 1988년 8월 1일 양평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따라 6개 법정리에 15개 행정리, 39개 반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동쪽은 강상면, 남쪽은 여주군 산북면과 광주시 실촌면, 퇴촌면, 서쪽은 같은 군인 퇴촌면과 남중면, 북쪽은 양서면과 옥천면에 인접해 있다.

1) 동오리(東梧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리, 간촌리, 동문리와 광주군 퇴촌면 영동리 일부를 합쳐 동문과 오리의 두 고장 이름을 글자를 따서 동오리로 하여 강하면에 편입,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강남중학교가 있다.

동오1리(4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간촌(間村) 일명 '셋말'로도 불리고 오리골 북쪽에 위치하여 동문과 왕창리 사이 마을임.

구석담 동문 서쪽 구석진 마을. 여기에 강남학생예절교육원이 있음.

도장굴고개 동문에서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도장굴로 넘어가는 고개.

동문(東門) 마을 서쪽 두 개 바위가 문설주처럼 서 있어 이렇게 불리며, 동오리에서 으뜸 마을임.

류정승묘 동오리 157번지에 있는 세종시대 좌의정 하정(夏亭) 유관(柳寬)의 묘로 지방문화유적 제62호로 지정됨.

서미고개 동문에서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소미로 넘어가는 고개.

세지골(西芝谷) 셋말 동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권세 있는 사람이 살아 생겨난 이름으로 와전되며 일명 '소주골'로 속음화(俗音化)됨.

오리곡(梧里谷) 동문 동쪽 마을로 두 가지 유래가 있으니, 오동나무가 있던 데서 생긴 지명과 또 한 가지는 마을 뒷산 영암 송씨 묘소 자리가 오리형국이란 이설(異說)이 전함.

이외에 가는골, 등잔밭, 말굽바위, 배나무골, 불당골, 아랫담, 웃담, 유화장골, 재파골, 치마바위,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성덕리(聖德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덕촌, 성촌, 이주를 합쳐 성촌·덕촌의 두 마을 글자를 합성시켜 성덕리라 하면서 강하면에 편입시킨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에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강하면 성덕리 성덕저수지

성덕1리(2반), 2리(2반), 3리(2반), 4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는정자골 정자골 동쪽 비좁은 골짜기.

공기돌바위 바위이름으로 마귀할멈이 치마에 싸가지고 다니다 흘렀다 함.

공동미고개 양달말에서 동오리 세지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강하면 공동묘지가 있는 곳.

길만재고개 아주에서 강상면 송학리 느리울로 넘어가는 고개.

놋대접우물 원지울의 샘.

대곡(太谷) 일명 '큰골' 이라 하며 화담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한 데서 이름한 곳. 응달말 남쪽 큰 마을.

덕촌(德村) 일명 '응달말' 로, 남쪽에 있는 마을로 화담선생이 다녀가신 이후 그의 자(字)인 경덕(敬德)에서 '덕' 자를 본떠 지은 지명이라 함. 여기서 격년제로 고창제를 지냄.

북덕고개 큰골에서 양달말로 넘어가는 고개.

성덕저수지 성촌과 덕촌 앞의 저수지.

성촌(聖村) 일명 '양달말' 로, 성인(화담 선생)이 지나간 고을이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음. 여기서서는 양자산에 산신제를 지내고 있음.

이주(峨珠) 성덕리에서 으뜸인 마을.

아차지고개 큰골에서 항금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외에 가래비골, 그리미, 나무내기, 원정자골, 원지울, 유희장골, 작은양지골, 정자골, 큰양지골 등이 산재하여 전해진다.

3) 왕창리(旺倉里)

원래 양근군 남종면 지역이었으나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창촌리, 왕충리, 부로리, 운포리의 각 일부와 광주시 퇴촌면의 영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왕충·창촌의 두 지역 첫 글자를 합성시켜 왕창리로 개칭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왕창1리(2반), 2리(3반), 3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까치독골 부르게 동남쪽 마을.

능굴 왕충 북쪽 마을.

대자불 능굴 북쪽 마을.

돌박재 부르게 남쪽 돌이 많은 곳.

막은데미 왕충 서쪽 골짜기.

부르게(扶老) 왕충 북동쪽 마을로 함·박·지씨 세 성이 살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부로라 하여 붙은 지명으로 와전인 듯한 지명임.

새말 창데미 북쪽 새로 된 마을.

왕충(旺忠) 왕창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조선초의 류관(柳寬) 선생 묘소와 신도비가 있으며, 그 옆엔 연안 김씨 세 명신(名臣) 묘소가 있으므로 충성이 빛나는 곳이란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 곳임.

창데미 왕충 서쪽 마을로, 예전에 양곡과 물품저장 사창(社倉)이 있으므로 유래된 곳임. 현재 노인정이 세워져 있음.

4) 운심리(雲沁里)

원래는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운포리와 상심리의 두 지역 글자를 본떠 운심리라고 만들어 강하면에 편입시킨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운심1리(2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름개(雲浦) 상심 서쪽의 강가마을로 홍수가 나면 마을 앞들이 온통 구름모양의 개(진흙)가 낀다는 데서 유래함.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바탕골예술관이 있음.

병바위 안말 서북쪽 마을로, 한때 부영이가 서식했다 함.

사래갈 나루터 위에 침수가 잘 되는 지역.

상심(上沁, 남상심) 운심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상심이 있음.

섬말 구름개 북쪽, 남한강 섬 안에 있는 마을.

여깨금치 구름개 앞의 들.

상심나루 나룻배로 양서면 상심리로 건너다니던 곳.

이외에 소경바위, 아랫섬, 안말, 앞강변, 용바위, 옷벌, 할미소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강하면 전수리 다루레기나루 전경

5) 전수리(全壽里)

본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전의리, 사기막리, 수대리, 상십리, 부로리의 각 일부를 병합시켜 전의·수대 두 곳의 첫 자를 골라 합성시킨 이름이며, 강하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에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전수1리(4반), 2리(2반), 3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재 길마재 고개 밑의 들.

다루레기나루(전일나루) 옥천면 아신리 기곡월루로 건너는 전일 북쪽 남한강나루터.

도장골 안골 동쪽 골짜기.

망두석산(望頭石山) 전수리 안의 산으로 망두석이 있음.

발서피 봉재 서쪽 들.

바람님이고개 높은 백병산을 일컫는 명칭으로 서풍이 불 때는 쉽게 넘는 고개란 지명.

벌말 사기막 서쪽, 벌판의 마을. 아랫벌에 눈썰매장이 있음.

베틀바위굴 베틀바위 뒤의 광산이 있던 곳.

사기막 베틀바위 북쪽 마을로 일명 '사호(沙湖)'라 하고, 예전에 도자기를 만든 흔적과 절터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임.

사라갈 살구나무들 서쪽 들.

세우자리 '전의(全義)'의 옛 이름. 배를 세워두고 잠을 자며 왕래하던 곳.

새터 수대 서남쪽 새로 된 마을. 온천과 오락 유흥장이 즐비함.

수대(壽垆) 전수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장수(長壽) 마을이었으며, 1950년 한국전쟁시에 마을 뒷산의 삼형제 바위가 파손된 후로는 장수하는 이가 없다 함.

숫돌매기고개 수대에서 운심리 부르개로 넘는 고개.

쉬골논 전수리의 들로 쉬(수령)가 많음.

안골 수대 안쪽 마을.

웃말 사기막 위쪽 마을.

작은 쇠메기 쇠메기의 작은 골짜기.

전의(全義) 사기막 북동쪽 마을로 예전에 송씨가 살며 온후한 성품과 바른 행동이 남들에게 모범이었고 그가 죽은 후에 마을 명칭을 붙인 곳.

찬샘골 수대 동쪽 마을로 찬 샘물이 나오고 있음.

치마바위(절바위) 치마모양의 바위.

이외에도 갈목, 뒷골, 말림골, 매봉산, 배틀바위, 봉바위, 봉재, 쇠메기, 수리봉, 숲안 논, 아랫말, 안산나무골, 재피골, 창안밭, 큰영골, 한선유 등의 지명이 전해온다.

6) 항금리(恒金里, 황금골, 황금동, 항금)

원래 양근군 남중면 지역으로 고려시대부터 금(金)이 많이 채금되어 황금(黃金)이라 사용하던 한자를 일부러 '항금(恒金)'으로 고쳐 불러 금 매장을 감추고자 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금광업이 계속되었고 오늘날에도 냇가에서 사금(沙金)을 채취한다는 지역이다.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문리 일부를 합쳐 항금리로, 강하면 편입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에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격년제로 동화제를 지내는 마을이며,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막티골 더 이상 가지 못할 막바지 골짜기의 지명.

뒤편더구니 음터골 서쪽 마을.

송구별 항금 북서쪽 마을로 예전에 오래된 엄나무가 있어 붙은 지명, 또는 송씨가 이 벌판을 전부 소유하므로 지어진 지명이라고 전함.

쏘다지기 항금 남쪽 골짜기. 앵자봉 밑으로 여기서 황금이 마구 채취되어 나왔다고 전함.

음타골 항금 북서쪽 응달의 마을.

주여고개 항금 남동쪽의 고개로 광주시 퇴촌면 주여리로 넘어감.

미산마을 송구별 위에 새로 생긴 마을.

4. 개군면

개군면(介軍面)은 군 동남부, 남한강의 우안(右岸)에 위치하며 면적이 45.39km², 13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1760년(영조 36) 여주군 개군산면이라 개칭하였으며,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여주군에서 양평군으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른다. 하자포리 외 12개 리를 관할하는 이 면은 임진왜란 1592년(선조 25) 당시에 지역 주민과 관군이 협동하여 구미포에서 왜적과 격전을 벌여 개군산이란 이름이 생긴 데서 유래한다.

1914년 ‘개군산면’이 ‘개군면’으로 개칭되었다.

기반암은 대부분 선캄브리아대에 속하는 편암(片岩)·화강편마암(花崗片麻岩)·화강암이다. 북동부는 주읍산(注邑山, 583m)이 있어서 높고 험하나, 남부는 경사가 완만한 구릉들로 되어 있다.

신내천을 비롯한 여러 개의 지류가 남한강으로 흘러들어 그에 따른 충적지(沖積地)로 너른 땅에 경작지를 만들어 농사를 짓는다. 총면적의 26% 정도가 경작지며, 59%가 논이다.

문화재는 양덕리 지석묘군(仰德里 支石墓群), 파사성지(婆娑城址), 상자포리 선사유적(上紫浦里 先史遺蹟) 등이 있다.

면의 내력을 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상자포(上紫浦), 하자포(下紫浦), 구미(九尾), 양덕(仰德), 조삼(鳥三), 석장(石牆), 신은(新恩), 공세(貢稅), 불곡(佛谷), 부동(釜洞), 신향(新香), 내동(內洞), 주읍(注邑), 상향(上香), 하향(下香), 자연(自烟), 계전(癸田)의 17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상자포, 하자포, 구미, 양덕, 석장, 공세, 불곡, 부리, 내리, 주읍, 향리, 자연, 계전의 13개 리로 개편되었는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하여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동쪽은 지제면, 남쪽은 여주군 대신면과 금사면, 서쪽은 강상면과 여주군 금사면, 북쪽은 양평읍과 용문면에 닿아 있다.

개군면이란 명칭은 이곳에 있는 개군산에서 연유했으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당시 민(民)·관(官)·군(軍)의 합심으로 왜적을 격퇴시킨 데 도움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를 영원히 기리고자 붙인 명칭으로 전해온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13개 법정리와 19개 행정리, 51개 반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1) 계전리(癸田里)

원래 여주군 개군면에 속해 있던 마을로 계발 또는 계전이라 하기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오룡동을 합쳐 계전리로 하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계전1리(3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계전(癸田) 계발, 계전리. 여주군 북쪽 밭이 많은 마을에서 유래한 지명.
마루타 언덕 위쪽에 있는 마을.

상골고개 계발에서 향리 상골로 넘는 고개.

새터말 계발 서쪽 새로 된 마을로 '새터마을'의 속음 내지 축약된 지명.

소감타(소감터) 오룡가리의 서쪽 마을로 예전부터 전설에 따르면,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비가 가랑이에 숨겨둔 감투를 얻은 데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함. 또 다른 일설에 따르면, 옛날 젊은이가 마을의 말단 일을 보아 관직(官職)이 작은 것이란 말에서 '소감투'가 변이(變異)된 것이라는 설도 있음.

오룡동(五龍洞) 오징계, 오룡가리. 계발 남쪽 지명으로 다섯 용의 모습을 이곳 능선에서 볼 수 있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장고개 계발 동쪽 고개로 지체면 곡수장을 오가는 곳.

잼배고개 계발에서 자연리 안잼배로 넘는 고개.

해룡골(해랭이) 상골고개 밑의 골짜기.

이외에도 감상골, 너라우개울, 뱀산, 엄나무골, 오얏골, 장수골, 절터골, 황새바위 등의 지명이 있다.

2) 공세리(貢稅里, 공세울, 공세동)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조선시대 세금을 바치는 창고가 있던 마을이라는 데서 연유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은리, 불곡리 일부가 합쳐 공세리로 명명되어 오다가 1963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세1리(3반), 2리(1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공세동(공세울, 공서울) 세금 바치던 창고가 있던 마을.

독골 공세울 남쪽마을로 웅기그릇 만들던 터가 있음. 일명 '돌독부리'.

무수동(舞袖洞, 무시울) 신내 남쪽 마을로 신선 또는 무속신앙에 근거를 둔 지명. 지형이 춤추는 소매자락 같다고도 함. 무수가 있는 곳.

신내(新川) 공세울 아래의 개울 옆 마을로 신은내가 변한 것임.

원덕객역 무수동에서 양평읍 원덕리로 넘어가는 고개.

부처울고개 불곡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골이 있다고 함.

신내들 신내에 있는 넓은 들.

물래울 예전에 물래방아가 있던 곳. 지금은 콘도와 온천 호텔이 있는 곳.

그밖에도 민상수 장군묘, 병깨, 용이부리, 다리개, 운전터 등의 지명이 있다.



개군면 구미리 구미포 전경

3) 구미리(九尾里, 후미개, 구미개, 구미포, 구미)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남한강 줄기가 후미져 지나고 있어 붙은 마을 이름이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구미리로 하였고, 1963년 양평군 소속으로 옮겨졌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에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곳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분여울 후미개 여울 서쪽 굽어진 지형이 되어 있는 곳.

구미개(구미포, 후미개, 후미개, 구미리) 구미리를 또 달리 부르는 속칭의 지명으로 구미의 '구'자를 거북 구(龜)로 생각하여 다르게 해석하는 말도 전하나 억지풀이임.

구미포 남한강을 건너 여주군 금사면 용담으로 가는 나무가 있었음. 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과 격전을 벌이던 곳.

개군산 구미포 뒷산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과 교전한 민·관군이 숨어있어 온 산에 군인이 산재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산명임.

서낭당이(서낭덩이, 서낭데이) 후미개에서 하자포리 방축골로 넘는 서낭당이 있던 곳.

아랫말 후미개의 아랫마을.

양덕고개(仰德-) 후미개에서 방축골로 넘는 서낭당이 있던 곳.

웃말 후미개의 윗마을. 이곳에 양수장이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함.

4) 내리(內里, 안말, 내동)

원래는 여주군 개군산면의 지역군으로 추읍산 안쪽 마을이므로 붙인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향리와 주읍리 일부를 합쳤으며 1963년 1월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군면 내리 신제당터

가시벌 이곳에 정착하여 살던 양성 이씨가 묘를 쓰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려 하였으나 가시덤불이 많아 못 올라갔다 하여 그 후부터 이곳을 가시벌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함.

개나리고개 내리에서 향리로 넘어가는 곳인데 개나리가 많은 데서 연유함.

검정터 옛날 이곳에 피부색이 검은 사람(혹은 중)이 정착하여 살던 곳이라 하여 불리는 지명.

독고개 원덕리로 넘어갈 수 있는 길(통로)이 한 곳밖에는 없다 하여 붙은 지명.

모루모통이 내동에서 새상골로 넘어가는 모통이에 있다 하여 불리는 지명.

무쇠말백이 추읍산 중턱에 있으며 한일합방 이후 산에 혈을 꿰고자 무쇠를 박았다 하여 붙은 이름.

무제봉(무대봉) 임진왜란 때 왜병이 주둔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부역으로 밥을 짓게 하여 밥을 지고 산에 올랐는데 의병에 쫓겨 아무도 없다 하여 무대라 유래하였으나 변음되어 무제봉으로 불리고 있음.

배너미고개 내리에서 원덕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에 수해가 났을 때 이곳으로 배가 넘어 들었다 하여 연유한 지명.

병기들 임진왜란 때 군대가 주둔하여 병기를 만들던 곳이라 하여 유래된 지명.

불당골 추읍산 중턱에 있는 골짜기로 불당이 있던 곳이라 하여 불리는 지명.

신제당터(神祭堂-) 추읍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래 전 맹수의 피해를 막고 마을주민의 안녕을 위해 산신제를 지내는 곳으로 오늘날에도 격년제로 산신제를 지냄.

새상골 본래 향리(상골)에 속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내리에 편입되고 새상골이라 불림.

선바위 내동 무제봉에 있는 바위로 모양이 서 있는 형상이라 하여 선바위라 함.

수리재(수비재) 본래 군대가 주둔하여 수비를 하던 곳이라 하여 수비재라 불렸으나 최근 저수지를 만들려다 수원 부족으로 중지한 후부터 수리재라 불리는 곳.

신당이 내동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신당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하고 있으나 지금은 변음되어 신뎡이로 불리고 있음.

오얏골 내동 서쪽에 외파로 떨어져 있다 하여 외얏골이었으나 변음되어 오얏골로 불림.

용머리 내동 남쪽 마을로 뒷산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데서 연유한 지명.

장고개 내동에서 양근장(양평읍)으로 통하는 긴 고개.

절골 본래 주읍리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시 내리에 편입되고 절이 있었다 함.

조산 내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뒤로 뻗은 산의 맥이 끊겼다고 해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산에 흙을 쌓아 맥을 이어주었다 하여 조산이라 함.

5) 부리(釜里, 부동, 가마골)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회를 구워내는 가마터가 현존하여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청두말, 분투골을 합쳐서 부리라 했고, 1963년 1월 1일에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리1리(3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부리 저수지 분투골 동남쪽 마을에 있는 저수지.

분투골(분토골) 가마골 북동쪽 마을로 이 뒷산에서 분토(粉土)가 구워진 곳으로 전해 내려옴.

새터(새마을) 청두말 북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1972년 대홍수가 나자 재해민을 위해 새로 만든 마을.

쇠배미 청두말 남쪽 마을.

수만터 수만 채 가구가 모여 살아갈 수 있다 하여 이루어진 지명으로 전해옴.

신담 가마골 남쪽 새 마을.

원두물 가마골 남쪽 우물이 있는 마을.

절골 분투골 북쪽 절이 있었던 곳.

청두말(靑頭-, 청두정) 가마골 동쪽 마을로 우물이 있음.

6) 불곡리(佛谷里, 부처울, 불곡)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지명유래는 미륵부처가 있는 마을에서 연유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병개를 합쳐 불곡리로 부르게 되고,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을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군면 불곡리 부처울 전경

뒷말 부처울 뒤쪽 마을.

미륵사(彌勒寺) 부처울 북쪽 절로 미륵부처가 있으며 일명 '용화사'로도 불림.

병개(병계) 부처울 남쪽 마을로 길가란 어휘가 속음화됨. 또다른 별칭으로는 '병해'가 있음. 옛날 주점이 있던 곳.

부처울(佛谷里) 미륵불이 있으며 신라 때 금강산으로 걸어가던 한 스님이 옆드려 샘물을 마시려는 중에 물 속에 불상이 비쳐 그 자리에 터를 닦고 절을 지었다는 말이 구전해 오는 마을임.

그밖에도 앞들 덕고개, 아랫들 다지불, 마을앞들 등이 있다.

7) 상자포리(上紫浦里, 윗자진개, 상자포)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자진개 위쪽 마을로 자포에서 유래하며 윗자진개라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벌말을 합쳐 고유지명화하였으며, 1963년 양평군 편입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노루봉 새터말 동남쪽 산.

매바위 장고개에 있는 바위.

벌말 윗자진개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사창터(창말, 창동) 상자포리에서 가장 큰 마을. 사창(社倉)이 있던 곳.

새터말(새터) 안말 남쪽에 새로 된 마을.

아랫말 새터 아래쪽 마을.

아랫벌말 벌말의 아랫 마을.

안말 새터 안쪽 마을.



개군면 상자포리 사창터 전경

웃말 세터 위쪽 마을.

웃벌말 벌말의 위쪽 마을.

위자진개나루 위자진개 앞에 있는 남한강의 나루.

장수바위 장고개의 바위로 굴이 있고, 장수바위에는 마애여래상이 음각되어 있음. 본래 차포(紫浦)는 붉게 물든 저녁노을이란 뜻이다. 남한강변의 저녁노을빛 또는 봄날의 진달래 꽃빛이 강물에 비침을 뜻한다고 보아야 옳다. 웃다리 풍물패가 있으며 파사성이 있는 곳임.

상자포나루 남한강 상자포구에 있었던 나루.

자진개 이의 원음은 좌진게로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구미포전투 때 우군진영의 좌진이 있던 곳에서 유래함.

8) 석장리(石牆里, 돌담, 돌다미, 석장)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인데 이 마을은 돌담이 많아 붙인 지명이다. 전설같은 일설(一說)에 의하면, 신라시대 남녀 두 장군이 승부걸기 내기를 하여 진 쪽이 돌을 날라 마을 경계에 돌담쌓기를 약속하였다. 결국 여자 장군이 패하여 부녀자 수백 명을 동원하여 강변 돌을 치마폭에 날라다 쌓은 것이라는 말도 전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삼리를 합쳐 석장리로 사용해 오던 중에, 1963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와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석장1리(3반), 2리(3반) 내에 있는 몇몇 단조로운 마을 명칭은 다음과 같다.

돌담(돌다미, 석장, 돌데미) 돌이 마을에 많아 그 돌로 쌓은 담이 여러 곳 있는 곳.

새샘(鳥三) 속칭 '새세미'로 불리며 새 우물을 파니 물이 잘 나온다는 연유로 지명유래가



개군면 양덕리 지석묘군

구전(口傳)되고 있으나 신빙성이 희박함, 한편 사람이 살지 않았던 수백 년 전 세 마리의 새소리만 들렸으므로 붙은 지명이라고도 함. 석장초등학교에 한울림공방이 마련되어 사물놀이 연수를 함.

그밖에도 앞들, 돌보들, 개울가, 셋길 앞, 앞산, 물막이개 등의 지명이 전한다.

9) 양덕리(仰德里)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동명(洞名) 유래가 한 가지 전해 오고 있다. 먼 예전에 안동 김씨 효문공(孝文公)이 낙향(落鄕) 은둔하여 지역 백성들에게 선정(善政)을 베풀어 주민 모두가 그의 인격에 추앙심을 지녔다는 데서 양덕이라는 지명이 전한다는 설이 구전된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양덕리라 하여 오늘까지 전하는 지명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나루개 남한강변나루가 있던 곳. 풍광이 아름다워 상춘객이 많이 모이는 곳. 낚시터로 유명함.

양덕벌 양덕 서북쪽의 들.

양덕나루 남한강 양덕포구에서 여주군 산북면 용담리로 건너다니던 나루.

지석묘군 고인들이 산재하는 곳.

그밖에도 뒷골 개군산 안벌 뒷골고개 등이 있다.

10) 자연리(自烟里, 자암, 자암배, 잠배, 잼배, 자암바위, 자연)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붉은 바위가 있었다 하여 자암(紫岩)이라 불렀는데 자연으로 변이화된 듯 보인다. 구전에 의하면 마을 앞들판에 황새가 많고 곡물이 풍성하여 집집마다 굴뚝연기가 스스로 피어오른다는 데서 자연리로 지칭한다는 이야기는 억측같다.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새바위를 합쳐 오늘에 이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잼배 잠바위)자바위의 변이어로 자연리를 가리킴.

안잼배 자연리에서 으뜸인 마을.

잼배들 잼배 안쪽 들.

황새바위① 황새 바위가 있는 마을. 예전에는 황새가 서식했던 마을.

황새바위② 잼배 동쪽 황새처럼 생긴 바위.

그밖에도 군량들, 만더위, 범구들, 뒷들, 자연계, 주막거리 등의 지명이 전함.

11) 주읍리(注邑里, 추읍, 주읍)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주읍산 밑이 되어 붙인 지명이다. 이 산 정상에서 보면 일곱 고을이 보인다고 하여 유래된 듯하고, 속설에 따르면, 유명한 지관(地官)이 마을 뒷산에 올라보니 이 산이 용문산을 뒤쫓는 형상이므로 추읍(趣揖)산이라 명명했다고도 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주읍리가 오늘에 이르며,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전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4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마을의 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사터 곳집이 있는 들로 일명 '동막골'로도 지칭됨.

서낭데이 주읍에서 용문면 화전리로 넘을 수 있는 서낭당이 있는 고개.

섬바위 주읍 동남쪽 바위.

솔무재이 아랫말 남쪽의 소나무가 많았던 들.

신데이고개(절골고개) 가자골에서 내리의 절골로 넘는 고개. 여기에 신당(神堂)이 있었음.

언덕말(영덕말) 언덕이 있는 마을.

오야골 곳집거리 서쪽 골짜기.

지경고개 아랫말에서 지제면 수곡리로 넘는 고개. 조선시대에 지평과 양근의 경계가 되었음.

집너머고개 아랫말에서 둔투말로 넘는 고개.

하랑골(화랑골) 화랑(花郎)이 태어난 고장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구전됨.

이외에도 가자골, 너러석거리, 둔투말, 뒷말, 보그미재, 섬바우재, 소주골, 큰골, 하답, 후평, 사곡, 창대 등이 산재하여 전한다.

12) 하자포리(下紫浦里, 아래자진개, 하자포)

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농협 등의 기관이 있다. 원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속칭 '자진개' 아래쪽이므로 한자어휘로 하자포리라 불리는 곳이다. 예전 이 부락을 지나던 한 선비가 비 맞은 뒤의 풍경을 살피니 찬연한 노을빛이 포구(浦口)에 어려 비치므로 자포(紫浦)라 지었다는 이야기가 수궁된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방축골을 합쳐 하자포리로 1963년 1월 1일부터 양평군에 편

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자포1리(3반), 2리(2반), 3리(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렁테이 움푹 패인 지형(地形)의 마을.

방추골 중간말 북쪽 마을로 동쪽에 방축(防築)이 있음.

아랫말 아래 자진개의 아래쪽 마을. 여기에 체육공원이 설치됨.

자진개나루 아래자진개 앞 남한강의 나루, 자진개란 원래 좌진개임. 임진왜란 때 구미포에
본진, 동쪽으로 좌진을 포진한 데서 유래함.

중간담 방추골과 안말中间的 마을.

이외에도 거래, 방축골 고래설, 버텨논, 아랫말, 옷말, 하자포구, 후미고개, 부처울고개, 다리개, 자포천 등의 지명이 더 산재해 있다.

13) 향리(香里, 상골, 향동)

본래 여주군 개군면 지역으로 안동 김씨 문정공과 김달행(金達行) 묘비명에 향곡리(香谷里)라 쓰인 것으로 보아 중간에 고을 곡(谷)자가 생략된 지명이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의하여 향리로 고정된 지명이고, 1963년 양평군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개군저수지(상골저수지, 향리저수지) 향리 소재의 저수지로 구한말에 만들어졌다.

아랫상골 상골의 아래쪽 마을.

웃상골 상골의 위쪽 마을. 옛날 만포정 주막이 있던 곳.

향동(香洞) '향곡'으로도 불리며 이 향곡은 조선시대 정조(正祖)의 유언으로 영안부원군
김조순의 조부인 김달행과 백부인 김이기의 묘자리를 찾고 있던 중 이곳 어디에선가 향
기가 풍겨 지어진 지명(地名)으로 전해온다.

그밖에도 뒷들, 독골고개, 불향주막거리, 저마리고개, 지경고개, 상골개울 등의 지명이 전
한다.

5. 단월면

단월면(丹月面)은 군내의 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85.4km², 17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는 보룡리에 있다.

1688년(숙종 14)에 지평군 하북면이라 칭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한 부·군·면 합병에 따라 9개 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구한국시대부터 지평군의 북쪽에 있고 북면(北面)으로 불려오다가 1914년 단월면으로 불

려 오늘에 이른다.

북쪽으로 홍천군 서면, 서쪽에는 가평군 설악면, 남쪽은 옥천면·용문면·지제면, 동쪽이 양동면·청운면·홍천군 남면에 인접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의 지질을 보이며, 부분적인 편암도 분포되어 있다. 북쪽 도계(道界)엔 소리산(小理山, 479m), 서쪽은 봉미산(鳳尾山, 855m)·도일봉(道一峰, 864m), 남쪽에 괘일산(卦日山, 468m), 동쪽에 509고봉험지(高峰險地)가 둘러 있고, 남쪽으로 전곡천(田谷川)·산대천(山垞川)이 흐른다.

농작물은 쌀·잡곡·두류·산야채·취·반디나물·더덕·취정·토종꿀·멧돼지·천마 등이며, 산간지역의 약초 생산·한우·칠면조·양잠·닭·양봉 등이 성하다.

지방문화유적으로는 보룡리(寶龍里)의 보산정(寶山亭)이 있다. 이 보산정 밑에는 시퍼런 물이 고여 있었는데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 요승(妖僧)의 꾀에 속아 소금 300석을 부었더니 그 연못 속의 보배스런 용(龍)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청운면 용두리(龍頭里) 쪽으로 비틀대고 넘어가며 피를 흘린 자국이 달빛에 붉게 물들었다 하여 단월면(丹月面)이 되었다고 하나 억측일 뿐이고, 면 대부분이 수풀에 둘러싸인, 신선이 사는 밝은 달이 비춰진 정자의 마을, 즉 단구월사(丹丘月榭)의 준말로 봄이 타당하다.

좀더 자세히 면 내력을 살핀다면 지평군 최북단이 청운면 아래 지역이어서 하북면(下北面)이라 칭한 이곳은 상가(上加), 하가(下加), 입암(立岩), 보평(洑坪), 진대(眞垞), 수미(收米), 진목(眞木), 장대(長垞), 소정(小亭), 비줄(非卒), 백동(白冬), 덕수(德水), 점동(店洞), 양안(良安), 분지(分池), 단월(丹月), 당의(唐儀), 석현(石峴), 문례(問禮), 삼산(三山), 수청(水淸), 고가(高可), 산대(山垞), 고북(高北), 성재(聖才), 여물(余物)의 30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성재, 여물의 두 마을을 청운면에 이관시킨 후 단월면 내의 동리(洞里)는 삼가, 봉상, 보룡, 행소, 덕소, 부안, 명성, 석산, 산음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9개 법정리, 17개 행정리, 52개 반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1) 덕수리(德水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덕수라 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덕수, 점동, 백동리, 진목리 일부를 합쳐 덕수리가 된, 단월면 소속 지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덕수1리(2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교회터(덕수터) 덕수 동쪽 교회터가 있는 곳.

개밭골 절골 서쪽 골짜기.

덕수(德水) 농사 짓는 데 물의 덕을 많이 입는다 하여 지어진 지명으로 덕수리, 덕수터, 교회터 지역임.

덕수터고개 덕수터에서 아랫백동으로 넘는 고개.

백동(栢洞) 점골 동쪽 마을로 300년 넘는 잣나무가 지금도 몇 그루 있는 곳으로 한자로 백동(白冬) 또는 백동(伯洞)으로 쓰는 변이된 말임.

백동절 백동 뒤의 절이 있던 곳. 이 절은 남원 양씨 문중에 병사를 지낸 분의 재궁이었다고 전함.

양짓말 백동의 양지쪽 마을.

요무리고개(여무리고개) 웃백동에서 청운면 여물리로 넘는 고개.

여우고개 양짓말에서 점골로 넘는 고개.

웃말 덕수터 위쪽의 마을.

위터골 백동 위쪽의 골짜기.

응달말 덕수터 북쪽의 응달진 마을.

장골 구백동 동쪽의 골짜기.

백동안산 백동절골 뒷산에 양현수 장군묘와 비가 있음.

백동저수지 백동절골 아래 새로 생긴 저수지.

장터골 옛날 백동역이 있을 때 장이 서던 곳.

점동(店洞, 점골) 덕수 북쪽 웅기점이 있던 마을.

진흙고개 안점골에서 아랫백동으로 넘는 진흙으로 된 고개.

큰장골 장골의 큰 골짜기.

이외에도 구배동, 바깥점골, 아랫백동, 안점골, 우리실, 우무골, 작은장골, 덕수들 등의 지명이 산재(散在)하여 전해지고 있다.

2) 명성리(明星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분지·단월·당의리를 합쳐 명성리로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명성1리(3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강개울 분지울 동북쪽 갯마을.

단울(다우리) 당의 남동쪽 마을로 이곳 명칭에서 단월면 지명이 유래한 듯함.

단월리(丹月里) 분지울 서쪽 마을로, 단구월사(丹丘月榭)의 약어(略語)로 보아, 소리산 쪽 밝은 달이 비추는 신선이 사는 정자마을이란 뜻이 있는 곳으로 단월(丹月)이란 지명이 유래함.

당의(唐儀, 당알) 명성리에서 으뜸 마을.



단월면 명성리 뺑치고개

명성골 소리산 위쪽 골짜기로 별빛을 제일 먼저 볼 수 있다 하여 붙은 지명.

뺑치고개 가파른 지형이어서 뺑소니치듯 내리막길이 된다는 고개.

분지(盆地, 분지울) 학교말 남쪽 지명으로 힘차게 샘이 솟는다는 뜻임. 명성분교에 택견수련원이 있음.

시개터골 통골고개 밑의 골짜기.

통골(通谷) 분지울 남동쪽 마을로 당알(당의)과 뺑치고개로 통하는 마을. 이곳에 단월터널이 2001년에 새로 개통됨.

통골고개 통골에서 청운면 여물리로 넘어가는 고개.

학교말 단울 동쪽 마을로 명성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으나, 지금은 폐교되어 택견수련원이 있음.

3) 보룡리(寶龍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한터, 도룡골, 진목, 재인동을 합쳐 보산과 도룡 두 마을의 글자를 합성시킨 것이 보룡이란 지명이 되었으며, 단월면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근세 중기부터 무안 박씨가 은거하기 시작하여 보산정(寶山亭) 아래 연못에 얹힌 전설같은 유래담이 구전(口傳)되고 있다. 무안 박씨의 집 종이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갚고자 도사(道師) 요승이 되어 보산정 깊은 연못에 소금 300석을 뿌려 두 마리의 청룡(靑龍)·황룡(黃龍)을 괴롭혀 끝내 보배스런 황룡(黃龍)이 이기게 되니 청룡은 술 취한 사람처럼 청운면 비룡리(飛龍里)로 피를 흘리며 날아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으며 지서, 농협, 초·중학교, 우체국 등의 기관도 있다.

보룡1리(5개 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괭이산 도티울 서쪽의 산.

도룡골(道龍谷) 보룡리에서 용씨가 많이 살았던 곳으로 도로와 가깝지 않게 산에 가려진 마을.

도티울(眞木) 한터 서쪽의 도토리 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마을 입구에 단월중학교가 있음.

동막골 재인동 동쪽의 산골짜기.

뭇떨(무절) 벌미 동쪽의 산골짜기.

벌미 무절 서쪽의 넓은 들.

보산정(寶山亭) 도룡골 북쪽에 있는 무안 박씨 정자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수리너머고개 옷재인동에서 청운면 비룡리 다리골로 넘어가는 국도(國道)와 연결되는 고개.

시장터 한터 남쪽의 상가 마을로 단월초등학교가 있고 면사무소와 중학교가 있음.

아랫말 도티울 아래쪽의 마을.

아랫재인동 재인동의 아랫 마을.

재인동(在人洞, 才人洞) 도룡골 남쪽 국도(國道) 옆 마을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산다는 속설(俗說)이 있는 곳. 단월지서와 우체국이 있음.

한터(大垆) 보산정 서북쪽 마을로 무안 박씨 선조가 은둔하던 으뜸 마을.

흑둔지고개 재인동에서 삼가리 선바위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개.

이외에도 보룡교, 옷말, 친구실, 옷재인동 등의 지명이 더 있다.

4) 봉상리(鳳上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진대리, 수미리, 북평리, 상광리, 하곡리, 도룡리의 각 일부를 합쳐 봉상리로 부르면서 단월면에 속한 곳이다.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鳳凰亭) 위쪽에 있다 하여 이런 지명이 붙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봉상1리(2반), 2리(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곱단이 수밋들 서쪽의 들.

노적바위 봉상리에 있는 큰 바위.

능골 재발골 북쪽의 골짜기.

능골고개 능골에서 보룡리 도룡골로 넘는 고개.

대남골(大南谷) 수밋들 서쪽의 마을.

된톨 능골 동북쪽의 골짜기.

뫼들(湫平) 수밋들 북동쪽의 보(湫)가 있는 지역.

수밋들(收米-) 봉상리에서 으뜸인 마을로 쌀 수확이 많다 하여 붙은 이름.

이흠사리 안터골 서쪽의 골짜기로 아홉 고개가 연거푸 있는 깊은 계곡.
 안터골 터골의 안쪽 마을.
 재밭골 붓들 북동쪽 마을.
 터골(眞堡) 붓들 서쪽 마을로 예전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함.
 이외에 바깥터골, 삼형제바위, 수리바위 등의 지명이 더 있다.

5) 부안리(富安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부록, 새말, 양안, 대왕터, 돌미기를 합쳐 부록·양안의 두 지명에서 합성시킨 지명이며, 단월면에 편입시켜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에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부안1리(4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는골 잣나무골 동쪽의 골짜기.
 강개울 양안 북쪽의 골짜기.
 강개울고개 강개울에서 명성리로 넘는 고개.
 광골 광바위가 있는 골짜기.
 단월리고개(丹月-) 바른골에서 명성리 단월리로 넘는 고개.
 대왕터(太旺-) 부록의 남서쪽 마을로 크게 성공한다는 설이 있음.
 돌미기 바른골 북쪽의 돌이 많은 곳.
 때골 바른골 북쪽의 마을.
 묘앞골 요골의 북쪽 마을로 뒤에 묘가 여럿 있음.
 바른골 양안 북쪽 골짜기의 마을.
 밭배고개(田拜峴) 부록에서 명성리 통골로 넘는 고개.
 부록(富祿) 부안리에서 으뜸 마을.
 새말(新村) 작은 부록 동북쪽 새로 된 마을.
 송골 양안 서북쪽의 골짜기.
 송골고개 송골에서 향소리 비빠로 넘는 고개.
 양안(良安, 양골) 대왕터 서쪽의 마을로 조선시대 세조 때 함평 이씨 증시조인 이형진(李亨珍)이 낙향 은둔하며 편히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붙은 곳.
 여수박골 여수바위가 있는 골짜기.
 옷물골 샘물이 있는데 옷이 오른 데 마시고 목욕하면 완치된다는 속설이 있는 골짜기.
 요골 바른골 서쪽 마을.
 작은부록(小富祿) 부록의 남쪽 마을, 여기에 저수지와 낚시터가 있음.
 잣나무골 가는 골 서북쪽의 잣나무가 있는 골짜기.



단월면 부안리 단월터널

큰부록(大富祿) 부록 마을 중의 큰 마을.

단월터널 발배골에서 명성리 통골로 연결되는 새로 생긴 터널.

이외에도 광바위, 노적봉, 마당바위, 물가래골, 비득지봉, 승지골, 여수바위 등이 더 산재해 있다.

6) 산음리(山陰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청리, 고가리, 산대리, 고북리를 병합하여 요문산 북동쪽의 응달이 되므로 산음리라 하였고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을 가보면 산세가 험준한 가운데 협곡이어서 화전민(火田民)의 생활모습을 찾을 수 있고, 교통이 발전된 근래에는 피서지로도 소문이 나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산음1리(4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가소(高可巢) 산대의 북쪽마을로 고지대이나 살기 좋은 마을이라 함. 이곳 광산터에 광산공원이 설치되어 있다.

고북(高北) 산대의 남서쪽 마을로 산높이가 마을을 그늘지게 하는 곳. 이곳에 산음휴양림이 있음.

높산 고북 남쪽, 즉 용문산 아래임.

무푸레골(水淸) 산대 동북쪽 마을로 고목(古木)수풀 속에 특히 물푸레나무가 많았고, 물이 맑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별치고개(星峴) 고북에서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로 넘는 고개.



단월면 삼가리 보익광산

산대(山垓) 산음리에서 으뜸인 마을. 이곳 산음분교에 문화학교를 마련하여 수공업(가제 장승)을 연마시킴.

삼천골(三川谷, 삼천, 삼천리) 아랫고북 서쪽의 마을.

아랫고북 고북의 아랫 마을.

웃고북 고북의 윗 마을.

안골 1리 4반이 있는 곳.

이외에도 생골, 수청 등이 있다.

7) 삼가리(三加里, 가루니, 세거리, 삼거리)

원래는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세 갈래의 길이 있어 붙은 지명이다. 흐르는 냇물 줄기도 청운, 고송, 단월의 향·소·부안 세 곳이고, 지형 또한 선바위, 삼가리, 미륵댕이 세 곳을 합친 지역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삼가리로 명명되어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4개 반이 편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안 가마솥처럼 움푹한 골짜기.

고솔고개 웃감거리에서 양동면 고송리 고솔로 넘는 고개.

평골 목너머 고개 밑의 골짜기.

꽃바위 바위 주위에 진달래가 많은 곳.

목너머고개 삼거리에서 지제면 송현리로 넘는 고개.

방천거리(防川-) 삼거리 앞들의 방천이 있는 곳.

보익광산(寶益鑛山) 옷삼거리 남쪽에 있는 광산으로 일제강점기에 개광되었으나 현재는 폐광임.

선바위(立岩) 삼거리 동북쪽 계곡 쪽의 마을.

옷나무배기 옷나무가 있었던 들.

이외에도 감투봉, 범바위, 아랫말, 새말, 옷말, 아랫삼거리, 옷삼거리, 작은범바골 다리골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8) 석산리(石山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의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현리, 문례리, 삼산리를 합쳐 석현·삼산의 두 곳 지명을 본떠 합성시킨 지명이 석산리이다. 이후로 단월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석산리는 명성리나 산음리와 더불어 면(面)의 경계이자 군이나 도(道) 경계의 경기 최북극단 지역으로, 사방에 수풀과 험곡 계류로 대단한 원시림에 싸인 절경이다.

석산1리(3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돌고래 소리산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이곳에는 진흙과 맥반석 사이에서 지장수가 나옴.

문례(問禮, 물례) 새마을 동북쪽 마을로 예전에 물례방아가 있던 데서 유래하였으며 변이 어로 만들어진 이름임.

삼산(三山, 서미) 비봉산 봉우리가 셋 있다는 뜻이며,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유문동으로 넘는 고개가 있음. 서미는 '서뢰' (세 개의 산봉우리), 고어에서 속음으로 된 음.

새말 서미 동쪽의 새로 된 마을.

소리산(小理山) 높이 419.2m의 산에 둘러 싸인 곳.

이니대(이늪이) 새마을 동쪽 마을로 이곳 소(沼)에 이무기가 있었다는 데서 연유된 속음화(俗音化) 지명임.

이문안(理門-) 문례울 북쪽의 마을.

9) 향소리(杏蘇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80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소정이, 동마골, 살구나무골, 비술을 합쳐 살구나무골과 소정이 두 곳을 본떠서 향소리라 부르고 단월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향소1리(4반), 2리(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노루터 비술 서북쪽 마을로 산에 노루가 많은 데서 유래한 지명으로 일명 '장대리(獐臺

里)'라고도 함.

동막골(東幕-) 소재이 서쪽의 마을.

말치고개(末峴) 동막골에서 용문면 망릉리 말치로 넘는 고개.

방축말(防築-) 동막골 북쪽의 마을로 방축이 있음.

백백교촌(白白敎村) 향소리 산1012번지의 빈터로 1923년 백백교 교주(敎主)인 전용해(全龍海)가 농장을 거짓으로 세우고 전국의 감부를 초대하여 수백 명의 여인을 농락, 90여 명을 살해한 후 암매장 하였다. 1930년에 발각된 일명 '백백교 사건'의 현장임.

비빠 비솔 서북쪽의 마을.

비소골 비솔 남쪽의 마을.

비솔(非率) 살구나무골 북서쪽 마을.

비솔고개 비솔에서 산음리 무푸레골로 넘어가는 고개.

살구나무골 향소리에서 으뜸인 살구나무가 많았던 곳.

소정(小亭, 소재이, 소정이) 살구나무골 남쪽 마을로 소나무 정자가 있었음.

웃나무밭골 비솔 서북쪽 마을로 웃나무가 있음. 이 마을 위아래에 양병사 묘와 신도비가 있음.

이외에도 아랫동막, 아랫소정, 웃동막, 웃소정이 더 있다.

6. 서종면

서종면(西宗面)은 군내 북서쪽 끝에 위치하는 면으로 면적 92.845km², 13개 리로 형성되어 있고 면소재지는 문호리(汶湖里)다.

1747년(영조 23) 양근군 서종면으로 호칭하다가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하여 이 면 중의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에, 노문리 일부 지역인 영천·이치 마을을 설악면으로 이속시켜 현재는 8개 리 관할이다.

서종면은 군의 서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붙은 명칭이며, 1836년 경기감사 유치선(兪致善)이 이곳에 낙향, 서종면 글자 속의 '종(終)'이 끝나친다는 뜻이어서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 '마루 종(宗)'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북부에 화야산(禾也山, 756m), 동부에 통방산(通方山, 649m)·삼태봉(659m)·중미산(仲美山, 833m), 서부에 청계산(淸溪山, 658m), 중부에 매곡산(梅谷山, 500m)·기봉(旗峰, 462m)이 우뚝 솟아 있으며, 수입천(水入川)·문호천(汶湖川)이 서류하여 북한강에 합류된다.

북한강을 따라서 펼쳐진 지방도로가 경춘국도(京春國道)와 서울·강릉간의 국도와 연결

되고, 문호나루·수입나루·내미연나루가 열려 수운도 편리하다.

문화재는 문호리(汶湖里) 선사유적(先史遺跡), 이항로(李恒老) 선생 생가, 노산사(蘆山祠)가 있다.

서종면 관할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차남(西次南), 후곡(厚谷), 동점(洞店), 수회(水回), 능곡(陵谷), 낙촌(落村), 내수입(內水入), 외수입(外水入), 공곡(貢谷), 야미(也味), 사기막(沙器幕), 화야(禾也), 삼회(三會), 영천(永川), 노문(蘆門), 이치(梨峙), 외수여(外水餘), 정배(鼎排), 반곡(盤谷), 명달(明達), 도장(道壯)의 22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고,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조치에 따라 양서면 석장리 일부와 설악면 음방리 일부와 고읍면의 양현리 일부를 합쳐 서종면으로 불리면서 서후, 수릉, 수입, 삼회, 노문, 문호, 정배, 명달, 도장의 9개 리로 개편 관할하고 있다.

그후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거, 삼회리를 가평군 외서면으로 이전시켜 현재 8개 리로 조정되며,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 조례에 따라 8개 법정리에 18개 행정리와 44개 반으로 조직되어 현재에 이른다.

1) 노문리(蘆門里, 갈문, 노문)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에 따라 영천리, 이치리 일부를 합하여 노문리라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곳에는 구한말 대성리학자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선생의 생가와 노산사가 있으며, 경치가 아름다워 「노산팔경(蘆山八景)」과 「벽계구곡(蘆溪九曲)」 있다.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문 해주 정씨 정한고가 노경(老境)에 은거하며 마을 주변이 갈대로 우거졌다 하여 붙인 지명.

다락재 벽계 동북쪽의 높은 산아래 마을.

동면 벽계 남쪽의 마을.

배치고개(梨峙) 갈문에서 가평군 설악면 배치로 넘는 고개.

벽계(蘆溪) 노문 남서쪽의 마을로 화서 이항로(李恒老)의 출생지로 화서의 부친 이회장(李晦章)이 개척한 곳.

쇳돌이 벽계 서남쪽의 마을로 쇳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한 곳.

속샛, 속세, 속사(續斜) 벽계 동쪽의 마을로 안동 김씨 삼연(三淵) 김창흠 선생이 은거하였던 곳.

영천(靈泉) 다락재 동북쪽의 샘물이 있었던 곳.

전말 다락재 북쪽의 마을.

진대(眞垚, 진댓) 벽계 남쪽의 마을로 풍양 조씨 조동극(趙東棘) 선생이 개척한 곳.
 진댓고개 진대에서 정배리 싸리골로 넘는 고개.
 화서선생 생가 노문리 535번지에 있는 화서 이항로의 출생가(出生家)로 지방문화유적 제 105호로 지정되어 있음.
 이외에 노산사(蘆山祠), 왕바위 등의 지명도 있다.

2) 도장리(道壯里, 도장골, 도장동, 국로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잠실, 국로소, 매곡, 헌터벌을 합쳐 도장리라 명명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장1리(1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국로소 아랫말, 도장동(道壯洞), 도장리, 학식과 덕망이 높은 백씨 노인이 당호(堂號)를 '국로당(國老堂)'이라 하여 연유한 곳 외에 여러 이설(異說)이 전한다. 도장의 지명도 한자로 '陶壯(도장)'이라 하기도 하며 벽진 이씨, 남양 홍씨 등의 터 잡은 이가 각기 다르게 전해온다. 일명 '만석골'로도 불린다.

매곡(梅谷, 맏골) 국로소 동북쪽의 마을로 마을 앞산이 매화낙지형인데서 유래.

아랫말 잠실 아랫쪽의 마을.

웃말 잠실 위쪽의 마을.

잠실(蠶室) 국로소 서쪽의 마을로 일명 '잠실'로도 변이음 되는 곳이며, 지형이 누에 모양인데서 연유한 곳.

헌터벌(웃말, 헌터, 한씨터) 맏골 동남쪽의 마을로 한씨 형제가 개척한 유래가 전함.

3) 명달리(明達里, 명덕, 명덜, 명달)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지형(地形)이 명덕같이 생긴 데서 연유되었다고도 하며, 일설에 의하면 마을이 높은 산간 지역으로 사방에 두루 통하며 아침 해가 제일 먼저 뜬다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불확실하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소유곡, 남하탁골, 삼각골, 상산제를 합쳐 명달리로 하여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나가터골(남하탁골) 소유골 동쪽 마을.

명덜(명덕, 명달, 명덜) 명달리로 산간에 묻힌 듯한 곳.

명덜고개(비행기고개, 명달현) 명덜에서 정배리 싸리골로 넘는 높은 고개.

삼각골(삼각곡, 삼각골) 나가터골 남쪽의 마을로 화전민이 살았던 곳.

상산재(상산치) 소유골 북쪽의 마을로 뒷산이 높고 고개도 있음. 통방산 아래임.

세수 소유골 남쪽 마을.

소유곡(巢由谷) 명달 동쪽의 마을로 중국의 전설상 인물인 소부(巢父)와 허유(許由)가 지나가다가 쉬었다는 구전(口傳)이 있으나 낭설임.

4) 문호리(汶湖里, 무너미, 무네이, 문호)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북한강물이 장마철에 넘어온다 하여 변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갈호, 수호, 영암, 갈멜, 질골, 꽃대울을 합쳐 문호리로 명명(命名)되어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5개 행정리 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초·중등학교·우체국·농협지서가 있다.

문호1리(2반), 2리(2반), 3리(3반), 4리(3반), 5리(1반) 마을 내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루개(갈호) 밤나무단지 남쪽 갯마을로 갈대·쑤이 많았다고도 하며, 대홍수가 지나가면서 마른 호수로 붙인 이름.

갈멜 무너미 북쪽 마을로 앞산의 지형이 말(馬)이 목이 마른 형상에서 연유하였다는 일설도 있음.

꽃대울(花谷) 길곡 북쪽의 마을로 주변에 진달래꽃이 많았다고 함.

길곡(질곡)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마을.

녹가골 갈멜 서남쪽 마을.

늪별 당미늪이 있는 들.

다리골 수대울 동쪽 마을.

당미늪 당미뿌리 앞의 늪.

당미뿌리(당묘뿌리) 바깥말 남쪽, 부리에 있는 마을.

덕고개 안무너미와 웃무너미 사이의 고개.

두름바위 가루개 서쪽의 바위.

마당재 문호리의 나무꾼이 쉬는 터.

맞은바위 밤나무단지 맞은편의 바위.

맞은배(迎峯) 맞은바위가 있는 마을로 동구(洞口)의 이 바위가 이 지역 주민을 맞이한다고 하여 붙은 지명 같다.

무너미나루 무너미 앞의 북한강나루터.

밤나무둔지(栗坪) 무너미 남쪽의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성주바위 북한강가의 낚시터임.

수대울(壽湖) 가루개 남동쪽 마을, 일명 '수대곡(水大谷)'이라 함. 물이 언제나 많았던 곳이라 함.

수호교(壽湖橋) 수호 서쪽의 다리.

숫돌고개 옷무너미 동북쪽의 고개로 수입리로 넘는 고개.

오리골 갈매 남쪽 갯마을.

왜수 안말 서북쪽의 골짜기.

잔갈말 갈매의 작은 마을.

장터거리 안말 남쪽의 장이 서는 곳.

조절 바깥말 북쪽의 골짜기.

하가동 중간말 동쪽의 마을.

활인소태 안말 북쪽의 공동묘지가 있던 들.

꽃피는 산골 새로 생긴 전원 주택 마을.

이외에도 님은골, 논골, 덩푸지개울, 두름바위소, 매바위, 문호교, 바깥말(골무케), 비둑재, 사당골, 상문호(옷무너미), 아랫가루개, 아랫무너미(하문호), 안무너미(안말, 내문호), 어신여울, 옷가루개, 자라바위, 중간말, 중방여울, 큰갈말, 화성돌 등의 여러 지명이 산재해 전해 오고 있다.

5) 서후리(西厚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차남리, 후곡리, 동점리 일부를 합쳐서 그 중의 서차남과 후곡의 첫 글자를 합성시킨 지명으로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서후1리(3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현(高峴, 뒀고개, 서차남고개) 서차남에서 양서면 청계리 반월형으로 넘는 큰 고개임. 속칭(俗稱) '제치레미(제칠암)'라 하기도 함. 이 마을은 통점의 남쪽 마을임.

두터골 두꺼비골, 후곡(厚谷). 통점 동쪽의 마을로 지명에 관한 설(說)이 두 가지 있음. 예전에 이씨(李氏), 김씨(金氏) 두 집의 인심이 후하여 '후곡'이라 했다 하고, 또 두꺼비골에서 변이(變異)된 지명이란 이야기도 있음.

말고개(큰고개) 서차남에서 옥천면 신북리 엄두레골로 넘는 큰 고개.

송골 서차남 서쪽의 골짜기 마을.

통점(銅店) 서후리에서 으뜸 마을로 동광(銅鑛)이 있으므로 붙은 지명.

6) 수릉리(水陵里)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서종면 수입리 무드리나루터 표석

따라 수회리, 능곡리, 낙촌리, 동점리 일부를 합쳤으며, 수회와 능곡의 두 지명 첫 글자를 합성한 수릉리로 명명(命名)한 후 오늘에 이르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되어 있다.

수릉1리(2반), 수릉2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래골 노루고개 서북쪽 마을로 가래나무가 많음.

낭말(樂村, 落村) 가래골 서북쪽 마을로 낭떠러지(벼랑)가 있음.

노루고개(獐覬) 능골 서북쪽 마을로 노루 모가지처럼 생겼음. 예전 경주 이씨 묘자리를 노루가 정해준 곳이라고도 전함.

능골(陵谷) 수릉에서 으뜸 마을로, 남원 양씨인 양현수 대장의 선조 묘가 있어 붙은 이름.

시인마을 · 벚꽃마을 새로 생긴 전원주택 마을.

호랑바위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

7) 수입리(水入里, 무드리, 수입)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물이 마을 앞으로 돌아흐르는 데서 연유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거하여 안무드리, 무드리, 야미실, 비선말, 석바탕, 능골을 합쳐 수입리로 한 이후 오늘에 이른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입1리(4반), 2리(3반), 3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시울(귀실) 석바탕 동북쪽 마을.

능골(陵谷) 구시울 동북쪽 마을로 마을 뒷산에 왕가 출신의 태를 묻었다 하여 붙은 이름.

그 산 이름이 일명 '태봉'이라고 함.

무드리나루터 무드리 서쪽 북한강의 나루터로 남양주시 화도면 금남리로 건너감.
 바치울(貢谷) 무드리 남쪽 강변의 높은 언덕 마을로 지형(地形)이 산에 받쳐진 모양에서
 유래함, 나라의 연료채취장.
 비선말 안무드리 동북쪽 마을로 이청강의 신도비가 서있다 하여 붙인 지명.
 빗고개 비선말에서 구시울로 넘는 고개.
 석바탕(석평촌, 돌바탈) 비선말 동쪽의 돌이 많은 마을.
 이외에도 공곡교, 바깥무드리, 소군교(小君橋), 소구니, 아미산, 안무드리(내수입), 외수
 입(바깥무드리, 주막거리, 박석고개, 이치고개, 새보, 말구리, 배치) 등의 지명이 더 있다.

8) 정배리(鼎排里, 솔바위, 쇠뺨, 솔배, 정배)

본래 양근군 서종면 지역으로 솔처럼 생긴 바위가 있으므로 유래한 고장이다. 1908년 양
 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통절골, 반곡, 명덕골, 진대를 합쳐
 정배리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 정배초등학교가 있다.

고령 박씨 정배(鼎排)라는 승정원 좌승지가 벼슬을 물리친 채 이곳에 은거하였으므로 그
 이의 명자(名子) 가운데 ‘정(鼎)’자를 따서 붙인 지명이라고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정배1리(2반), 2리(2반) 마을에 속한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말(응달말) 쇠뺨 건너쪽의 응달진 마을.

맹고개(兩峴) 웃말에서 옥천면 신북리로 넘는 큰 고개.

명덕골(明德谷) 사릿골 동쪽 마을로 옛날 어떤 학자가 이곳에 살며 『대학(大學)』에 나오는

“大學之道 在明明德” 중에서 명덕(明德)을 인용했다고도 함.

사릿골 쇠뺨 서쪽에 있는 마을.

쇠뺨고개(정배현) 웃말에서 서후리 통점으로 넘는 고개.

양짓말 쇠뺨 양지쪽의 마을.

진대 사릿골 북쪽의 마을.

통점골(통정골, 통정골, 통점, 동점) 사릿골 남쪽의 마을로 동점(銅店), 즉 놋쇠로 그릇을 만
 들어 파는 곳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

화서선생묘(華西先生墓) 통정골 뒤에 있는 이항로 선생의 묘소.

그밖에도 가마봉, 매골, 헌터벌, 깊은소, 가리들보, 장승배, 매야골 등이 있다.

7. 양동면

양동면(楊東面)은 군내 남동쪽 끝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119km², 쌍학리(雙鶴里) 외 7개 리로 형성되었고 면사무소는 쌍학리에 있다.

조선시대에 지평현의 동쪽에 위치했다 하여 지평현(砥平縣) 상동(上東)이라 부르고 소재지를 부연리(釜淵里)에 두었다가 석곡리(石谷里)로 옮겼다. 1908년 양근군과 지평현이 합병되면서 군에서 볼 때 동편 끝에 위치했다고 해서 양동면이라 칭하고, 1940년에 쌍학리(雙鶴里)로 면사무소를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곳에 중앙선 철도역인 양동역이 있다.

북쪽은 청운면, 서쪽은 단월면·지제면, 동쪽으로는 서원면·원성군 지정면, 남쪽은 여주군 강천면에 접해 있다.

지형은 대체로 산지이며, 북쪽에 비룡산(飛龍山, 626m), 남쪽은 일당산(日當山, 456m) 등에 둘러싸여 있다. 다만, 석곡천(石谷川)이 남으로 흐르는 유역에 약간의 경작지가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쌀·보리·콩·채소 등이다.

교통은 중앙선 철도가 남부로 가로지르며, 지방도로가 발달되어 있다.

문화유적으로 이춘영(李春永)·안승우(安承禹) 의병장의 묘가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은 원래 장대(場垓), 거단(巨丹), 송석(松石), 상소(上巢), 쌍리(雙里), 화곡(花谷), 창촌(倉村), 내곡(內谷), 학촌(鶴村), 목곡(牧谷), 삼산(三山), 금곡(金谷), 하소(下巢), 이천(梨川), 하곡(下谷), 조현(鳥峴), 상석(上石), 요곡(料谷), 송평(松坪), 월은(月隱), 설매(雪梅), 장재(長才), 황거(黃巨), 가내(加乃), 산수(山水), 구창(舊倉), 신창(新倉), 신촌(新村), 송정(松亭), 계량(桂良), 거슬(巨瑟), 월리(月里), 울목(栗木), 석우(石隅), 장만(長滿), 상고송(上高松), 화곡(花谷), 광암(廣岩)의 38개 리를 관할하여 왔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에 따라 상북면 하교송리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 일부를 합쳐 양동면이라 하여, 단석, 쌍학, 삼산, 석곡, 매월, 계정, 금왕, 고송의 8개리로 개편 관할케 되었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8개 법정리, 20개 행정리, 84개 반으로 개편 조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1) 계정리(桂亭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가내리, 산수리, 구창리, 신창리, 신촌리, 송정리, 계량리, 거슬리를 합쳐 이 지명 가운데 계량과 송정리 두 마을의 이름을 합성 축약시킨 계정리로 부르면서 양동면에 편입된 지역이다. 양돈, 표고, 느타리 재배를 많이 하는 마을이고 분교가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계정1리(7반), 2리(4반), 3리(4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래골(加乃-, 가랫골) 구창말 남쪽 마을 골짜기 약수터에 가래나무가 많은 데서 연유함.
구창말(구창리) 창말의 옛마을로 사창(社倉)이 있었다 함.

귀골 가래골 동북쪽 골짜기.

논골 송정 동북쪽 마을로 형성군 서원면 석화리 쪽을 가는 고개가 있다. 일명 '스무나리고개' 라고도 함.

대월 동이점 동남쪽 마을로 골짜기가 깊다. 광산 탄약고가 있었고, 도자기를 만들었던 자취가 있음.

동이점 가래골 서남쪽 마을로 웅기점이 있었음. 일명 '점말' 로도 불림.

둔말 창말 남쪽 마을로 예전에 군역청 선무군관이 주둔했었다 함.

뒷골 저수지가 있는 곳.

목재 계랑 동산의 마을로 목재를 벌채하던 곳. 이곳에 목재광산이 있음.

밀양골 새터 북쪽 마을로 옛 지명은 '미양골'로 염소 사육장소였으므로 밀양골로 변이된 곳이라 함.

산수말 구창말 동쪽 마을로 영의정을 지낸 덕수 이씨 이여(李翁) 선생의 묘소가 있으므로 붙은 이름.

새말(新村) 구한말경부터 구창말 북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새창말 창말 서쪽의 새로 형성된 마을.

새터 구창말 동쪽의 새로 형성된 곳.

송정(松亭) 구창말 북쪽 새로 형성된 마을.

스무나리고개 창말에서 강원도 형성군 서원면 스무나리로 넘는 고개. 스무날을 기다렸다가 사람을 모아서 같이 고개를 넘어 도적의 피해를 막았다 하여 유래함.

아랫지랑이(아래계랑, 하계랑) 지랑이의 아래쪽 마을 여기에 양돈단지가 있음.

여물이골 용마봉 밑의 골짜기.

작두터골(거슬리) 작두 받침을 만들었다 하여 붙은 이름으로, 송정 북쪽에 있다. 마을 뒷산에 '머슬치고개'가 있다.

창말(창리) 계정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사창(社倉)이 있었음.

지랑이(계랑) 새말 북쪽 마을로 진흙이 나오는 고을임.

이외에도 개삼말, 용마봉, 작은 귀골, 큰 귀골마을이 있다.

2) 고송리(高松里, 고솔, 고솔, 고송)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수백 년 된 높은 소나무가 있으므로 지어진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와 광암리, 상북면 하고송

리를 합쳐 고송리라 하면서 양동면에 편입된 곳이며, 초등학교 분교가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송1리(4반), 2리(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송천 북쪽으로 흘러서 전곡천으로 유입함.

너분바위 고솔 북쪽 넓은 바위가 있는 고솔로 일명 '너래바위'로도 불리고 있음.

노일고개 윗고솔 남쪽에서 지제면 일신리 노일로 넘는 고개.

늣골목 뒷골 동쪽의 골짜기.

뒷골 고솔 뒤의 골짜기.

매봉산 아랫고솔 북동쪽의 산.

모라치고개 고솔에서 지제면 지평리로 넘는 고개.

방골고개 너분바위에서 청운면 비룡리 방골로 넘는 고개.

비룡골 아랫고솔 북쪽의 골짜기로 불룡산 아래가 됨.

삼선당 윗고솔 서쪽의 마을로 뒤쪽 산에 치성 드리는 당(堂)집이 있어 붙은 곳. 약수가 있음.

쑥골 고솔 북동쪽의 마을로 쑥이 많이 났던 지명이라고도 하고 깊숙히 들어가 있는 고솔이라 붙은 것이라고도 하며, 광산이 있음.

장만터(長滿-) 아랫고솔 동쪽의 마을로 언제나 벌채한 재목(材木)이 널려 있다 하여 지어진 고장 이름.

토부안 윗고솔 북쪽의 마을.

한치고개 윗고솔에서 지제면 월산리 취암으로 넘는 큰 고개.

황하터(黃河(下)-) 너분바위 서북쪽 마을로 황건론산 아랫 마을임.

이외에도 느라골, 배나무골, 벽장골, 삼성광산, 상고송(윗고솔), 하고송(아랫고솔), 아흔골, 작은쑥골, 찬물내기, 큰골, 황계소(黃鷄沼) 등의 고을 명칭이 더 있다.

3) 금왕리(金旺里, 금왕골, 금왕동)

원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금왕산 아랫마을이므로 불리는 마을 이름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월리, 울목리, 석우리를 합쳐 마을이 형성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금왕1리(5반), 2리(5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금왕사 금왕골 동북쪽의 절.

돌모루(石隅) 집밭 북쪽 마을로 돌이 많은 모퉁이를 지나 있는 곳.

매덩골(멧덩골) 돌모루 북쪽 마을.

밤나무골 금왕골 북쪽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이곳에 저수지가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음.

지금은 폐교되어 LG전선 수련원이 있음.

벗고개 돌모루에서 청운면 갈운리로 넘어가는 고개.
 비양골(비안골) 금왕골 남쪽 양지바른 마을로 '양곡(陽谷)' 이라고도 함.
 아랫버덩 월리터 아래의 버덩.
 앞버덩 비양골 앞의 버덩.
 월리터(月里-) 금왕골 서쪽의 마을.
 점말(店-) 밤나무골 북쪽 마을로 웅기집이 있었다 함. 주막(酒幕)도 있었음.
 텃골 밤나무골 서쪽 마을.
 텃골고개 텃골에서 고송리 장만터로 넘는 고개.
 황거러니고개(한거러니고개) 월리터에서 매월리의 황거러니로 넘는 고개.
 가현고개 뱃덩골에서 가현리로 넘는 고개.
 임도 벗고개에서 서쪽으로는 가현고개, 동쪽으로는 금왕골까지 새로 생긴 산길.
 이외에도 두리봉, 밤나무골버덩, 비양골고개, 옷버덩, 작은고개, 작은금왕골, 큰금왕골, 사
 시락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4) 단석리(丹石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 거단리, 송석리, 상소리 일부를 합쳐 거단·송석 두 고을의 지명에서 글자를 따
 서 단석리라 하여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단석초등학교가 있다.

단석1리(6반), 2리(3반), 3리(5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단리(巨丹里, 거단이, 겹다니) 단석리에서 으뜸 마을로 큰 골짜기가 됨.

다락근이 솔석정이 동쪽 마을로 지대(地埜)가 높아 매달려 있는 듯한 곳. 여기에 단석 저
 수지가 있음.

두리봉 요골 동쪽 둥근 산.

뒷골 요골 뒷 마을.

뒷너머 뒷골 너머 쪽의 마을.

뒷대골 큰황골 남서쪽 마을.

병데미 단석리에 있는 바위더미로 부엉이가 서식했던 곳.

서화고개 요골에서 여주군 북내면 서원리 서화로 넘어가는 고개.

솔석정이(松石亭) 다락근이 서북쪽 마을로 마을 앞 암반 위에 소나무 그늘 정자로 만든 놀
 이터가 있음.

아랫말 요골 아랫쪽의 마을.

요골(凹谷, 옷골) 거단이 북동쪽 골짜기 안의 마을로 삼태봉 밑의 오목한 고을.

응달말 황골 응달쪽 마을.

장터(場垆) 술석정이 북쪽 마을로 가마뚝(부연) 시장터가 있어 연유한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지금 이곳에는 체육공원이 신설되고 을미의병 발상지로서 그 추모비가 세워져 있음.

종자리(종지알) 새말 동쪽의 마을.

황골 항골, 항곡(恒谷), 황곡, 대곡(大谷), 다락근이 동남쪽 큰골짜기의 마을로 골짜기가 깊은 데서 연유됨.

이외에도 가운데담, 너분바위산, 느릅실, 대항곡(大恒谷, 큰황골), 덩바위, 도터골(되퇴골), 담새골, 무당골, 망재, 범상골, 새골, 새말, 신대동, 완재이, 옷말, 작은 다락근이, 작은 황골(小恒谷), 큰골, 큰다락근이 등의 지명이 산재(散在)하여 있다.

5) 매월리(梅月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요곡리, 송평리, 월은리, 설매리, 장재리, 황거리, 상석리, 일부를 합쳐 설매·월은 두 마을 이름에서 각 한 자씩 본따 매월리로 지은 명칭으로 양동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매월1리(3반), 2리(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광암(廣岩, 너분바위) 매곡역 남쪽의 넓은 바위가 있는 마을.

구둔치(九屯峙) 달웅개에서 지제면 일신리 구둔으로 넘는 고개.

달웅개(달은개, 月隱) 매월리에서 으뜸 마을로 울창한 수풀에 달빛조차 가려진 고을이란 뜻.

서방골 장재터 북쪽 마을.

설매실(雪梅-) 달웅개 동쪽 마을로 승사랑 벼슬의 원주 이씨 이희흥(李希興)이 은거하며 붙인 지명이라 함.

장재터(長才-) 설매실 북서쪽 마을로 황거광산에서 큰 재산을 모은 이가 산 곳이라는 설도 있으며, 예전 장자가 머물던 곳이란 설도 있음.

텃골 달웅개 서쪽 마을.

황거(黃巨) 일명 '황거러니'라 일컫는 이곳은 서방골 북서쪽 마을로 일제 때 황거광산에서 금을 채광한 이후 생긴 지명.

매곡역(梅谷驛) 중앙선에 있는 역이며 구둔치에 매곡터널이 있다.

6) 삼산리(三山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원삼산 뒤의 산이 세 봉우리가 연달아 있는 모습에서 연유된 지명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곡리, 하소리,



양동면 삼산리 분터골 전경

이천리, 상소리 일부와 강원도 원주군 지정면 판대리의 일부를 합쳐 삼산리라 불린 후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삼산1리(3반), 2리(3반), 3리(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곰지기 술치 남서쪽 마을.

농막둔지 삼산 남쪽 마을로 농막(農幕)이 있던 자리임.

당고개 원삼산에서 도소리로 넘는 고개.

도소리(都率) 농막둔지 남쪽 마을로 일제때 의병 집결지였다 함.

뒷골 옷배미 뒤의 골짜기.

뒷들 삼산 뒤의 들.

배내 이천(梨川), 이내. 분터골 동남쪽 마을로 배나무가 있었다 함.

분터골(上巢) 도소리 남쪽의 마을로 분토가 출토되며 의병활동이 있었던 심산유곡으로 여름철 약수(藥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마을.

불가턱골(불개턱골) 예전 절이 있던 곳으로 세 집이 거쳐하고 있음.

속골(金谷) 금곡리, 쇠골. 삼산 동쪽 골짜기 마을로 마을 입구가 비좁음.

술치(송재, 松峙) 술치고개 밑의 마을.

물탕골 두리봉 맞은편에 있는 마을. 한학자 최선생의 제자로 문막 사는 윤길중이란 명인이 살았다 함.

술치고개(큰술치고개, 대송치) 도소리와 배내에서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수청동으로 넘는 높은 고개.

술치모랭이(松隅) 술치 남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쉬청거리 술치 동쪽 마을.

양짓말 농막둔지 서북쪽의 양지바른 마을.

응달말 양달말 동쪽의 응달진 마을.

설치버덩 이곳 묘자리에 호혈이 있는데 후손들이 묘지에 사초를 하고 가면 번사를 당하며 근래도 2회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지금은 묵고 있음. 성씨가 엄씨라고 전함.

작은 솔치고개(小松峙) 솔치고개 서쪽, 일당산 서쪽 고개로 여주군 강천면 도전리로 넘는 고개임.

지레너미버덩 솔치에서 강원도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로 넘는 버덩.

판대 옛 판대리에서 유래하며, 중앙선 철도에 있는 역.

이외에도 골안, 도덕골, 솔치고개, 아래울, 아랫배내, 아랫삼산, 양짓말, 오야주나무골, 운골, 옷배내, 옷삼산, 원삼산, 지계지골, 큰노루골, 큰솔치고개(大松峙), 큰우물, 흙다리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7) 석곡리(石谷里, 돌실, 석실, 섬실, 석곡, 섬실골, 석실곡)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으로 돌 많은 고장의 어원이 다양한 변이음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하곡리, 조현리, 목곡리, 상석리를 합쳐 이 가운데 상석과 하곡 두 마을 이름 글자 중 합친 지명이 석곡리다. 이로써 양동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곳에 양동초등학교가 있다.

석곡1리(5반), 2리(4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래말 섬실 동쪽 마을로 옛이름은 '고내말(古內-)'이었다 하나 오히려 고래논이 많아 붙은 이름이라는 설이 타당함.

누목골 섬실 동북쪽 골짜기.

목곡(牧谷, 목골) 섬실 동북쪽 마을로 덕수 이씨 이기진(李箕鎭) 판서가 은거하였으므로 그의 아호(雅號)를 본뜬 지명임. 이 마을에 의병장인 안승우, 이춘영 의사(義士)의 묘소가 있다.

사이실(沙以室) 새우개 북동쪽 골짜기의 마을로 섬실과 새우고개 사이 마을을 뜻하며, 일설에 따르면 의병장 안승우(安承宇)가 살았으므로 그 분의 아호인 사이(沙而)에서 '실'자를 첨가시킨 지명이라고도 함.

새우개 사이실 북서쪽 마을로 일명 '조현(鳥峴)'이라고도 함.

새우고개 마을 뒤 고개로 온갖 새가 많아 붙은 이름.

섬실(돌실, 석실, 석곡, 섬실골, 석실곡, 돌모루) 여러 개의 지명을 지닌 지명으로 건지산이 있고 예전엔 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함.

용죽골 새우개 북동쪽 마을로 용주사란 절이 있었다 함.

이외에 목골고개, 아랫목골 양짓말, 웃목골, 응달말, 방축골, 상록촌 등이 더 산재하여 있다.

8) 쌍학리(雙鶴里)

본래 지평군 상동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쌍리, 화곡리, 장촌리, 내곡리, 학촌리, 목곡리 일부를 합친 후 이 중에 쌍리와 학촌리 두 고을 첫 글자를 합쳐 쌍학리라 하고 양동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농협, 신협, 지서, 우체국이 있다.

쌍학1리(4반), 2리(5반), 3리(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소(釜沼) 활거리 동쪽 마을로 지형 중에 가마솥 같은 연못이 있었다 함.

고새기(쌍리) 창말 남쪽 마을.

꽃재 창말 서쪽 마을로 서당(書堂) 둘레에 꽃이 많음.

다리목 활거리 앞의 다리가 있는 들.

마골 안골 서북쪽 산마을로 말이 많아서 유래함. 이곳은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피란 한 곳이라는 기록이 정민공(안정옥) 묘갈에 기록되었으며 효열각이 있음.

망골 마골 위에 있는 지명으로 이곳이 망을 보던 곳이라 전함.

방축골 활거리 서쪽의 골짜기로 방축이 있음.

불당골 불당이 있는 골짜기.

삼성당(三姓堂) 창말 동북쪽 마을로 박·황·민 세 성씨가 살았던 곳.

서낭당고개 안골에서 창말로 넘는 고개로 서낭당이 있었음.

양동역 학둔지 북서쪽의 중앙선 정거장임.

업고개 활거리에서 고새기로 넘는 고개.

중대(中垓) 창말과 고새기 중간 마을.

직장들(곳들) 박직장(朴直長)의 은거지였으므로 이름이 붙은 들.

창말(창촌) 학둔지 남서쪽의 마을로 사창이 있었다 함. 창고 마을의 준말.

택풍당(澤風堂, 택당) 창말 서북쪽의 집으로 인조대의 문인이었던 택당 이식(李植)이 살았던 거처의 유물관.

학둔지(鶴村) 쌍학리에서 으뜸 마을로 학처럼 지형이 생겨 연유된 지명.

활거리 고새기 남쪽 마을로 길거리 생긴 모양이 활 같다 하여 붙은 지명.

꽃골(花谷) 창말 남쪽의 꽃이 많은 마을.

이외에도 구멍가래, 말미산, 매봉재, 범바위, 사뽕재, 산수골(삼지당골), 샷갓벌, 승당골,

쌍학천, 아래학둔지, 안골, 위학둔지, 잣나무골, 큰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8. 양서면

양서면(楊西面)은 군내의 남서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59.5km², 용담리(龍潭里) 외 10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서시면(도곡, 대심, 국수, 북포, 청계, 증동 등의 6개 리를 관할)과 서중면(양수, 용담, 부용, 목왕, 신원리 등 5개 리 관할)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시면(西始面)과 서중면(西中面)을 합병하여 지금의 양서면이라 불리고 있다. 양서면은 군의 서쪽이어서 이런 명칭이 생겼다.

북쪽은 서중면, 동쪽은 옥천면, 서쪽은 북한강을 건너 남양주시 와부면에 접하고, 남쪽은 남한강을 건너 대안(對岸)의 강하면과 광주시 남종면과 접해 있다.

남서부 경계지역인 한강유역에 충적층(沖積層)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부는 편암(片巖), 북서부는 호상편마암(縞狀片麻巖)으로 형성되었다. 북부에 청계산(淸溪山, 658m)·형제봉(兄弟峰), 남부에 부용산(芙蓉山, 366m)이 솟아 있으며, 또 남류하는 북한강과 서류하는 남한강이 남서부의 양수리(兩水里)에서 합류하는데, 그 유역은 비옥한 평야가 전개되어 주곡 농작물과 채소류를 생산한다.

교통은 중앙선 철도와 서울·강릉간 국도가 남한강을 따라 동서로 지나가며 지방도로도 발달되어 있다. 중앙선 철도에는 양수, 신원, 국수역이 있다.

또 서울 근교여서 젓소·한우·닭 사육이 활발하고 주말관광하는 여행객이 점차 늘고 있다.

문화재로 대심리(大心里) 선사유적(先史遺蹟), 신원리 부용산 성지(芙蓉山城址), 양수리 지석묘군(支石墓群) 등이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양근읍내(楊根邑內) 서쪽이 되므로 서시면(西始面)이라 하여 동편(東片), 고현(高峴), 식곡(息谷), 상서(上西), 하서(下西), 탑리(塔里), 내제탄(內蹄灘), 외제탄(外蹄灘), 북포(福浦), 도곡(陶谷), 우장(牛長), 대탄(大灘), 신촌(新村), 답다(畓多), 상심(上心), 야곡(冶谷), 분점(盆店), 신원(新院), 월계(月溪)의 19개 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서중면(西中面)의 용진(龍津), 양수두(兩水頭), 석장(石牆), 벌리(伐里), 가정(柯亭), 동막(東幕), 목왕(木旺)의 8개 리와 고읍면(古邑面)의 기곡리(基谷里) 일부를 합쳐 양서면이라 칭하게 되었으며, 징동, 청계, 북포, 도곡, 국수, 대심, 신원, 양수, 용담, 부용, 목왕의 11개 리로 개편되었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11개 법정리, 23개 행정리, 60개 반으로 개편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25개 행정리

와 6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국수리(菊秀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신촌리, 답다리, 비석거리를 합쳐 국수산 밑이 되므로 국수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어 오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수1리(2반), 2리(2반), 3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공동미산 공동묘지가 있는 산.

국수역 정자골 남쪽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정거장. 서쪽으로 국수터널이 있음.

바깥말 새말 바깥쪽의 마을.

북개천 국수리 앞에서 북포리로 뻗쳐 흐르는 냇물.

비석거리(비선거리, 碑立) 국수역 남쪽의 마을로, 이 고을의 집장(執綱)이었던 박후대의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가 서 있던 자리에서 유래함. 현재 대심리 마을회관 앞에 있음. 이 마을 위쪽으로 국수중·고등학교가 있음.

새말(新村) 국수역 서쪽 마을로 1957년에 형성된 곳.

안말 새말 안쪽의 마을로 중앙선 확장공사로 담이 만들어졌음. 정자골 동쪽의 마을.

임문이고개 새말에서 도곡리로 넘는 고개.

정자골 정자골에서 도곡리로 넘는 고개. 이 앞에 느티나무 정자가 있었다 함. 일명 '답다(畓多)'라고도 불림.

만남의 광장 새로 생긴 마을로 상점과 음식점이 있음.

이외에도 국수교, 매두봉, 병재들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대심리(大心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대탄리와 상심리를 합치며 두 지명을 합성하여 대심리로 칭한 후 양서면에 편입 조정시켜 왔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말 한여울 건너쪽 마을.

논여울 한여울 서쪽 마을.

상심(上心) 한여울 동쪽 남한강변의 벼루이며 농장과 별장이 있음. 상심정(賞心亭)에서 유래함. 이천 서씨의 선조가 지었던 정자.

윗구벼울 전원주택이 새로 생긴 마을.

상심이고개 상심에서 국수리 비석거리로 넘는 고개.



양서면 도곡리 월계나루 전경

상심이나루 상심에서 강하면 운심리로 건너는 나루터.
 예마당 전원주택이 아래위로 새로 생긴 마을임.
 한여울(大灘) 대심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또는 큰 여울을 일컬음.
 대하섬 잔디밭과 가옥이 한 채 있음. 남한강의 외딴 섬.
 거북섬 남한강 가운데 있는 섬. 농토가 있음. 개인소유임.

3) 도곡리(陶谷里, 도곡, 질울)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예전에 질그릇을 구웠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의해 반장리, 대탄리 일부를 합쳐 도곡리라 하면서 양서면에 소속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뒷골 질울 뒤의 골짜기.

바랑굴고개 질울에서 신원리 분점으로 넘는 고개.

반장(半長, 반장이) 질울 남쪽 마을로 예전엔 주막(酒幕)이 있어 성시(盛市)를 이루었다 하여 반은 장날 같다는 데서 연유된 곳. 여기에 양서초등학교가 있음.

분투골 분토가 나는 골짜기.

성주골 성주산 밑의 골짜기.

양짓말 질울 양지 바른 곳.

월계나루 양서면 반장리에서 남종면 천탄으로 건너가는 나루.

이외에도 도곡천, 맏돌바위, 반장교, 새능산, 안터골, 왕바위, 응달말, 임문이고개, 정자골 고개, 황소바위 등이 산재해 있다.

4) 목왕리(木旺里, 무왕골, 목왕동, 망골)

원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산이 깊고 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다. 그후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막리, 사촌리 일부와 서시면 신원리 일부를 합쳐 목왕리라 부르면서 양서면으로 편입된 곳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목왕1리(2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정벼랑(구정벼루, 구정벼루) 절말 서쪽의 벼랑으로 일명 '구정곡(九政谷)'이라고도 함.

아홉 정승의 유택이 있다는데 그 이름은 정창손(鄭昌孫), 노정승(盧政丞), 김사형(金士衡), 신효창(申孝昌), 이민성(李民聖), 이덕형(李德馨), 이준경(李浚慶), 민희(閔熙), 민음(閔豔) 등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음.

동막골 무왕골 남쪽 마을.

벚고개 무왕골에서 서중면 수릉리 능골로 넘는 고개.

샘고개 동막골에서 신원리 샘골로 넘는 고개.

망골 목왕골.

절말 말골 아랫동네.

양짓말 동막골 양지쪽 마을.

절말(寺村) 무왕골 남서쪽 마을로 옛날엔 절이 있었음.

한음산소(漢陰山所) 한음 이덕형(李德馨)의 묘소.

이외에 은행나무, 응달말이 더 있다.

5) 복포리(福浦里, 복포, 복개)

원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안곶여울, 바깥곶여울, 식곡리 일부와 고읍면 기곡리 일부를 합쳐 복포리로 명명(命名)하면서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복포1리(1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소 가마솔 모양의 늪(연못).

곶여울(귀벼울, 蹄灘) 복개 동남쪽 여울로 남한강이 흐르면서 구부러져 여울이 되는 지형에서 붙인 지명인데, 말발굽 같이 생겼다 하여 '제탄'이라고도 함.

능골(능골)① 능골 뒤의 골짜기로 여기엔 고구려의 능이 있다 함.

능골② 곶여울 마을 서북쪽의 고을임.

능골(陵谷) 마을 뒷산에 창녕 함씨(咸氏) 선산이 있다 하여 붙인 지명.

바깥곶여울 귀벼울의 바깥마을.



양서면 북포리 굽여울 전경

북개굴 북개에 있는 중앙선 터널임.

송구터 예전 송씨(宋氏)가 살았던 터여서 생긴 지명.

안굽여울 귀벼울의 안마을로 일명 '기벼울'로도 일컬음. 이곳 약수터 아래 이병모 선생 묘가 있음.

한티고개(한치고개) 굽여울에서 북개로 넘는 고개.

북포천 청계, 징동, 북포 국수리로 남한강에 유입되는 내.

이외에도 맹재굽치, 삿갓바위, 원북포, 치마바위, 평풍(병풍)바위 등의 지명이 있다.

6) 부용리(芙蓉里)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 더운우물계, 월계골, 상나무배기, 참나무정이, 교동을 합쳐 부용산의 이름을 따서 부용리라 하였다. 양서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동산, 동고 선생 묘소가 있음.

부용1리(2반), 2리(4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정(柯亭) 부용리에서 으뜸 마을로 참나무가 많았다 함. 일명 '참나무쟁이'로도 불림.

건지미고개 향목에서 양수리 건지미로 넘는 고개.

괴골(교골) 이 마을을 갈 때는 징검다리가 있다 하여 지어진 마을.

다리골(橋洞) 향목 동북쪽의 마을로 다리가 있음.

더운우물 가정 옆의 우물로 더운 물이 나오고 있음.

상나무배기 가정 동북쪽 마을로 향나무가 있었음.

소리개 향목에서 양수리 골용진으로 넘어가는 고개.

참나무재이(진목) 가정 동쪽 마을로 참나무 정자가 있었음.
 부용천 목왕 부용, 용담리에서 남한강으로 유입되는 내.
 이외에도 안개, 양짓말, 오두개, 오두개고개, 월계골, 음짓말, 정지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7) 신원리(新院里, 신원, 묘곡, 호리원, 안골, 월계)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아곡리, 분점리를 합쳐 신원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다. 이곳 중앙선에 터널이 4곳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원1리(4반), 2리(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동이점골(분점) 묘골 동쪽의 마을로 옹기점이 있었다 함. 이곳에 신원역이 있음.

뒷구럭 동이점골 뒤 골짜기.

묘골(妙谷) 월계 동쪽의 마을로 함양 여씨(呂氏) 선대 묘소가 있는 곳.

묘골고개 묘골에서 동이점으로 넘는 고개.

부용골 월계골 서쪽의 중앙선 기차 터널.

부인당(婦人堂) 샘골 서북쪽 부용산에 있는 당집.

샘고개 샘골에서 목왕리 동막으로 넘는 고개.

샘골(泉峴) 월계 북쪽의 마을로 샘물이 있음.

월계골 월계 서쪽의 중앙선 기차 터널.

정고개(점고개) 동이점골에서 풀무골로 넘는 고개.

풀무골(冶谷) 묘골 북쪽 마을로 대장간이 있었음.

이외에도 가족나무골, 두두릅산, 서통박골, 원수골, 부용사, 월계천, 터굴, 풀무골, 고개 등이 산재하여 있다.

8) 양수리(兩水里, 두물머리, 두물거리, 두머리, 두거리, 양수두, 양수)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으로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되므로 지어진 지명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용진리와 석장리, 벌리 일부를 합쳐 양수리라 하고 양서면에 편입시켜 왔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5개 행정리 2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양수1리(4반), 2리(3반), 3리(3반), 4리(6반), 5리(6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미기도랑 양수리의 냇가로 개를 막아 만들어진 내.



양서면 양수리 노적봉 전경

건지미 개미 북쪽의 마을.

곡룡진(谷龍津) 원수굴 남쪽, 나룻가 마을.

괘미 원수굴 북쪽 마을로 일명 '괴미(怪米)'라 하며, 적군에게 거짓으로 쌀을 쌓은 더미처럼 속였다는 일화(逸話)가 전함.

노적골(露積-) 노적봉 아랫 마을로 임진왜란 당시에 적들에게 위장술법으로 격퇴시킨 일화가 있음.

용소 북한강물을 남한강으로 유입하던 샛강으로, 옛날에 용이 있었다 하여 이런 지명이 유래함.

노적봉 건지미 동쪽 산으로 이 산 전체를 짚으로 가려 왜적에게 군량미로 위장한 데서 지명이 유래함.

돌담이(돌데미, 石牆) 양수머리 북쪽 마을로 돌담이 있음. 중앙선 철교가 시설된 곳이다.

두물머리 남북한강이 만나는 곳. 여기에서 매년 당산제를 지낸다.

두머리나루 두머리에서 와부읍 진중리로 건너는 나루가 있던 곳.

양수교(兩水橋) 양수리에서 와부읍 진중리로 왕래하는 북한강 다리로 1937년에 준공되었으며, 서울~강릉간 국도가 연이어짐.

용늪 골룡진 동북쪽에 있는 늪.

원수굴 골룡진 북쪽의 마을.

족자섬(簇子島) 양수머리 남쪽, 한강의 북편에 있는 섬.

신양수대교 용담대교와 연결된 4차선대교로 장관을 이룸.

이외에도 동돌담이(동석장), 상석장(위돌담이), 서돌담이(서석장), 양수철교 등의 지명이 있다.

9) 용담리(龍潭里)

본래 양근군 서중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정리, 양수두리, 석장리, 벌리의 각 일부와 서시면 월계리 각 일부를 합쳐 용담리라 하면서 양서면에 편입되고 있다. 용담리란 지명은 이 마을에 있는 용소(龍沼)는 큰 늪에 용이 있다 하여 붙었다는 유래가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었고,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양수역이 있다.

용담1리(5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갠골 상촌 동남쪽 마을.

기두원(起頭院) 파람소니 남동쪽 마을로 원집(院-)이 있었다 함.

길목이 상촌 서쪽 마을로 길목임.

상촌(上村) 파람소니 위쪽 마을. 이곳에 중고등학교가 있음.

새마을촌 1972년 대흥수시에 유실되었던 기두원 마을의 몇 가옥을 새로 옮겨 형성한 마을.

궁노소 용소 아랫목, 초등학교가 있음.

양수역 파람소니에 있는 중앙선 기차역이 있는 곳.

용담굴 파람소니 동쪽에 있는 중앙선의 터널.

파람소니(八岩) 용담리의 으뜸 마을로 '팔암소(八岩沼)'의 연철현상으로 변이된 지명인데, 일설엔 마을 앞 남한강의 파도를 바라볼 수 있어 '파람(波覽)'의 어원으로 해석하는 기록도 있음.

용담대교 6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 만든 대교로서 신양수대교와 연결되어 있음.

이외에 기두원 다리, 성재별, 용담교 등이 산재해 전하고 있다.

10) 증동리(澄東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폐합에 의거하여 된고개, 바우서리, 동편, 식곡, 징개울, 서시울을 합쳐 징개울과 동편 두 곳 이름에서 본뜬 증동리로 하여 양서면에 편입된 이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증동1리(3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동편(東便) 징개울 동쪽 마을.

된고개①(高峴) 동편 북쪽의 제치레미로 넘는 높은 고개임.

된고개② 된고개 아랫마을로 '된재'라고도 함.

모장너머 동편 남쪽의 마을.

바우서리 자오개 밑의 바위가 많은 마을.

세늘 세 집이 한울타리로 한 곳에 사는 마을.

성안 세늘에서 식곡 골짜기로 오르면 산이 성(城)처럼 싸여 있다 하여 일컫는 지명.

시시울(息谷) 징개울 동남쪽 마을.

징계울(징개울, 진개울) 징동리에서 으뜸 마을로, 마천산 계곡에서 마을 앞까지 긴 냇물이 흐른다는 의미의 '긴 개울'의 지방색 변이어, 즉 '긴'이 '진 또는 징'의 방언(方言) 현상으로 나타난 지명인데, 맑음(맑을 징)이 강조된 지명으로 복개울 위쪽임.

자오개(尺峴) 된고개 마을에서 동편으로 넘는 고개.

대골 대아초등학교가 있는 곳.

11) 청계리(淸溪里)

본래 양근군 서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반월형, 중말, 벌말, 탑골을 합쳐 청계산 아랫마을이므로 청계리라 하여 양서면에 편입되었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계1리(2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반월형(半月形) 청계리에서 으뜸 마을로 마치 반달 같은 지형(地形)에서 연유한 지명.

벌말(坪村) 중말 남쪽 벌판 마을.

중말(中村) 반월형 남쪽 마을로 반월형과 벌말의 중간이 됨.

탑골(塔谷) 반월형 서쪽 마을로 탑이 있었고, 느티나무 여섯 그루가 정자터를 형성하여 지개정(之介亭)이라 불림.

청계산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 동리에서 소유하고 있음.

9. 옥천면

옥천면(玉泉面)은 군내 중부에 위치하는 면으로 1747년(영조 23)에 양근군 관아가 있던 곳으로서 고읍내면으로 호칭되어 오다가 1914년 3월 1일을 기해 고읍면으로 개칭되었고, 1937년 8월부터 현재의 명칭으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곳곳 어디를 가나 산과 물이 어우러진 지역이므로 붙은 이름이다.

동쪽에 용문면(龍門面), 서쪽은 양서면(楊西面), 서종면(西宗面), 남쪽이 강하면(江下面)·강상면(江上面)·양평읍(楊平邑), 북쪽은 단월면(丹月面)·가평군 설악면과 경계를 이룬다.

면 동쪽 경계 부근의 용문산 가섭봉을 최고봉으로 백운봉(白雲峰, 940m)·중미산(仲美山, 833m) 등의 높은 산이 동·북·서 3방향으로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높고

낮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강에 접한 남부 충적층(沖積層)의 낮은 지대에서 논농사를 짓는다. 이외에 휴양림과 스포츠 레저, 수련원 등 관광지로서 자리한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콩·산야채 등이 산출되며 최근에는 양계·축산·숙성 채소까지 영농으로 늘리고 있다.

서울·강릉간의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면 남단부를 지나 교통은 편리하다.

문화재는 양근향교(楊根鄕校)·함왕성지(咸王城址)·사나사(舍那寺)·사나사 원증국사석종(圓證國師石鐘,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2호)·사나사 원증국사석종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3호)·사나사 3층석탑 등이 있다.

이 면(面)의 내력을 상세히 살펴보면 양근군이 건지산 밑이었다가 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갈산(일명 칼산)으로 바뀌면서 고읍면(古邑面)이라 하여 옥천(玉泉), 사천(斜川), 사탄(沙灘), 대월(大月), 교촌(校村), 백현(栢峴), 편전(片前), 갈현(葛峴), 동촌(東村), 서촌(西村), 복동(福童), 신촌(新村), 동막(東幕), 양현(兩峴), 상곡(上谷), 하곡(下谷), 신대(新岱), 빙곡(氷谷), 당곡(堂谷), 아오(我吾), 기곡(基谷), 덕곡(德谷), 용암(龍岩), 용암(甕岩)의 24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덕곡, 용암, 용암, 사탄 일부를 갈산면(양평읍)에 넘기고 옥천, 용천, 신북, 아신의 4개리로 개편 관할하다가, 1931년 4월 1일 옥천리의 이름을 본떠 옥천면으로 하였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4개 법정리에 13개 행정리와 45개 반으로 개편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13개 행정리와 4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신북리(新福里)

본래 양근군 고읍면(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동촌리, 서촌리, 복동리, 신촌리, 동막리, 양현리 일부를 합쳐 이 가운데 신촌과 복동 두 고을의 이름을 본떠 신북리라 하여,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1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북1리(5반), 2리(2반), 3리(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라진계 북우리 서쪽의 마을로 연수원 눈썰매장과 수영장이 있음.

고목골 동막 서북쪽 마을로 괴목이 있었다 함.

농다치(籠多峙) 새말에서 양현으로 넘는 고개. 옛날 뒷양근으로 시집가는 신부가 험한 고갯길이라서 농다치리한 데서 유래함.

동막(東幕) 새말 북동쪽 골짜기 마을.

동촌(東村) 뒷들 동쪽 마을.

뒷골 동막 뒤의 골짜기. 오봉 선생 묘와 신도비가 있음.

뒷들(後坪) 북우리 남쪽 마을로 건지산 뒤가 되며, 양근군의 관아가 옥천에 있을 때 뒤의 들이 되어 붙은 이름.

말고개(馬峴) 새말에서 서후리 서차남으로 넘는 고개.

말골 북우리 동쪽 마을로 연안 이씨 이순영(李純榮)이 은거하며 자기의 아호(雅號)인 두곡(斗谷)에서 연유한 지명.

북우리 북동, 북오리, 신북리에서 중간 마을로 관아에서 북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마을.

상촌(上村) 서촌 위쪽 마을.

새말(新村) 북우리 북쪽의 새로 된 마을.

생절 동막 동북쪽 골짜기로 절이 있었음.

서촌(西村) 뒷뜰 서쪽의 마을.

선어치(仙於峙) 양현에서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로 넘는 고개.

양짓말 북우리 양지권의 마을.

양현(兩峴) 농다치 북쪽 마을로 농다치고개를 넘어서 선어치고개 아랫 마을.

엄두레골(嚴盜來谷) 새말 동쪽의 험준한 산간 벽촌 마을로 무서운 도둑이 나타난다는 뜻이 있음.

고리고개 새말에서 새터말로 넘는 고개.

원통이 서촌 서쪽의 마을로 원통사가 있었으며, 광산 김씨 선조의 묘소가 있어 하인이 거 짓으로 이장(移葬)을 권유해 무덤을 파자 학 두 마리가 날아가니 명당자리를 땀에 속아 넘긴 것이 원통하다고 하여 생긴 지명.

жат고개 뒷들에서 옥천리 백현으로 넘는 고개.

장골 새말 서남쪽 마을.

절골 절이 있던 골짜기. 이곳에 있던 불상을 옥천수 우물개로 옮겼다고 함.

진서덜 돌서덜이 있는 긴 골짜기.

이외에도 동이점, 점뒤산, 농다사, 동막번덕, 쇠이바위, 아랫장골, 옷새말, 응달말, 이꾸지, 하촌 등의 지명이 더 있다.

2) 아신리(我新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상곡리, 하곡리, 신대리, 빙곡리, 당곡리, 아오리, 기곡리를 합쳐 이 고을 가운데 아오리와 신대리의 두 지명을 따서 아신리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옛날 양근군 관아가 있을 때는 교통(수로)의 중심지로서 사탄장이 섰고, 구창대가 있어 물자교류가 활발하던 곳이다.

아신1리(3반), 2리(2반), 3리(3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매봉재 장고개 북쪽의 산.

빙고골 아오실 남동쪽의 마을로 빙고(氷庫)가 있었음. 일명 '빙곡(氷谷)'이라 함. 현재 양평농업기술학교 위치의 지역임.

상곡(上谷) 곤일 위쪽 마을로 일명 '윗곤일'이라고 함.

새터말(新垸) 곤일 남동쪽의 새로 된 마을.

세우자리 장고개 남쪽의 마을.

아오실(俄吾谷) 곤일 남쪽 마을로 일명 '아우곡(와우실)' 등으로도 일컫는다. 청송 심씨(沈氏)가 은거하던 곳.

장고개① 빙고골 남동쪽 마을로 오일장이 섰던 곳.

장고개② 장고개에서 빙고골로 넘는 고개.

큰와검다리 장고개 동쪽의 큰 다리로 일명 '고읍교(古邑橋)'라고 함.

터골(基谷) 장고개 서쪽의 마을로 이팔의 조상이 터를 잡았던 곳.

터골터널 터골 뒤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터널.

하곡(아래곤일) 곤일 아래쪽 마을로 중앙선 아신역이 있음.

구참대 다루래기 위쪽에 옛날 9개의 창고가 있다 하여 붙인 이름.

다루래기(月樓) 강하면 전일로 왕래하는 나루터. 예전에 수로를 통하여 물자를 운수하던 곳으로 달다락이란 누각에서 유래함.

참말댁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

이외에도 아신역, 위곤일, 산막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3) 옥천리(玉泉里)

고읍내, 옥우물, 옥천수, 옥천.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으로 양근 관아가 있다가 1747년에 갈산(양평읍 양근리)으로 옮겼으므로 고읍내라 하였다.

옥처럼 맑은 우물이 여러 군데 있어 일컫는 지명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대월리, 교촌리, 사탄리 일부를 합쳐 옥천리로 부르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 1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가 있는 마을이다.

옥천1리(4반), 2리(3반), 3리(4반), 4리(2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굴바위 옥천리에 있는 바위로 밑에 굴이 있음.

대월리(동부) 옥천의 동쪽 마을로 이곳이 옛날 원종국사 보우가 태어난 곳임.

돌고개 동부에서 양평읍 오빈리로 넘는 고개.

쇳다리 향교마을 남쪽의 마을로 예전에 쇳다리가 있었음.

옥터(獄-) 고읍 내 서쪽 터로 양근 고을의 감옥터로 현재는 대장간터가 됨.

작은 외검다리 고읍 내 서남쪽 다리로 큰와검다리 북동쪽임.

жат고개(栢峴) 고읍 내 동북쪽 마을로 건지산 밑이며 정법사 절이 있었음. 일명 '정법이' 라고도 함.

창말(창촌, 모래여울, 사탄리) 고읍내 남쪽 마을로 모래여울이 있고 사창이 있었다 함.

탑산 허문 앞 동쪽의 들로 탑(塔)이 있었으나 옥우물 옆으로 옮겼음.

향교말(校村) 고읍내 북서쪽 마을. 양근향교가 있음.

허문앞(許門-) 고읍내 앞의 들. 이곳에 옥천초등학교, 면사무소, 농협지소, 지서 등이 있음.

이외에도 남부, 북부, 서부, 쉬들, 영화담, 옥우물, 잣나무골, 중부, 태봉산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4) 용천리(龍川里)

본래 양근군 고읍(옥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백현리, 편전리, 사천리, 갈현리를 합쳐 용문산 밑이 되므로 용문산과 사천의 두 지명 글자를 따서 용천리라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함왕성지와 사나사가 있고, 여기서 용문산 최고봉인 가섭봉과 백운봉에 오른다.

용천1리(2반), 2리(2반), 3리(4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섭재(가협치) 사나사 북동쪽 용문산에 있는 고개로 가섭봉 너머로 용문산 연수리로 통하는 고개.

갈고개(葛峴) 갈현 마을에서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국수로 넘는 고개.

구용골 원바위골 동쪽 골짜기.

글쓴바위 사나사 서쪽의 바위로 "자하동천"(紫霞洞天, 붉게 물든 무지개 마을)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음.

두명안(두명내) 배너머 북동쪽 마을.

문례재 가섭재 북동쪽 고개로 갈고개에서 용문면 신점리로 넘는 고개.

배너머고개(배내미고개, 주유현) 큰골에서 두명안으로 넘는 고개.

절골 사나사(舍那寺)가 위치하며, 신라 경명왕 7년(923)에 대경과 용천이 창건하고, 그 후 여러 차례 증건하여 오늘에 이르며, 원증국사 석종비명(圓證國師石鐘碑銘)이 있음.

사내(斜川) 용천리에서 으뜸 마을.

상사천(上斜川, 위사내) 사내 위쪽 마을.

설마재(雪馬峴) 편암 북동쪽 마을.

숫고개 두명안에서 갈고개로 넘는 고개.

승주골(승지골) 위사내 동쪽 마을로 백운봉 밑이며, 함왕성지(咸王城址)가 있음.

신촌말 아랫사내 북서쪽 마을.

원바위 숫고개 동쪽의 바위.

원증국사석종비명(圓證國師石鐘碑銘) 사나사에 있는 원증국사석종으로 유형문화재 제72호로 지정되어 있음.

입구지(入口止) 두명안 서쪽의 산.

절골 위사내 북동쪽의 사나사가 있는 곳.

편전(片前, 편앞) 신촌말 북동쪽 마을로 편전산 밑이 됨.

하사천(下斜川) 사내 아랫 마을로 일명 '아랫사내' 라고도 함.

함공혈(咸公穴) 절골 북동쪽 성 아랫굴로 양근 함씨의 시조(始祖)가 났다고 함.

이외에도 사나사 삼층석탑 고적지를 비롯하여 원박곡[元逆谷], 큰골 등의 지명이 있다.

10. 용문면

용문면(龍門面)은 군내의 중부권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101.7km², 13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면소재지는 다문리(多門里)다.

1688년(숙종 14) 지평군 상서면(上西面)으로 되었다가 1914년 3월 1일 상서면과 하서면(下西面)을 합병하여 양평군 용문면으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용문산과 용문사가 있으므로 면의 명칭을 개칭한 지역이다.

북동쪽으로 단월면, 서쪽에 옥천면과 양평읍, 남쪽에 개군면·지제면과 연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호상편마암(縞狀片麻巖) 지질이 나타나며 편암(片岩)과 층적층도 나타난다.

북부에 도일봉(道一峰, 864m), 서부에 용문산(龍門山), 가섭봉(伽葉峰, 1,157m)·백운봉(白雲峰, 928m), 남부는 주읍산(注邑山, 583m), 동북부에 중원산(中元山, 801m)·괘일산(卦日山, 468m)이 솟아 있으며 동남부의 흑천(黑川, 옛 전곡천) 유역에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을 위시하여 산야채·누에고치·한우·젓소·돼지·닭 등의 사육이 활발하다. 서울·강릉간 국도와 중앙선 철도가 남부를 동서로 지나가며 지방도로에 의해 이웃 지역과 연결된다.

문화재는 상원사(上院寺)·보리사지(菩提寺址)·미지산(彌智山, 용문산의 별칭)·용문사 정지국사(正智國師) 부도 및 비(보물 제531호), 봉황정(鳳凰亭)·택승정(澤升亭)·운계서원(雲溪書院) 등이 있으며, 이밖에 정3품 당상직첩을 받은 천연기념물 제30호인 미지산 용문사 경내의 은행나무 공손수(公孫樹)가 있어, 관광객이 줄을 잇기도 한다.

이 면에 관하여 그 내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서면(下西面)에서 용담(龍潭), 마천(馬川), 금곡(金谷), 광탄(廣灘), 상망(上望), 하망(下望), 두릉(斗陵), 상현(上玄), 하현(下玄), 적현(赤峴), 장평(壯坪), 막곡(幕谷), 조좌(曹左), 운계(雲溪), 오리(梧里), 봉대(峰岱), 퇴촌(退



용문면 광탄리 봉황정 전경

村), 덕동(德洞), 간촌(間村), 담곡(畓谷), 신촌(新村), 웅점(甕店)의 22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에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상서면(上西面)의 전곡(田谷), 신촌(新村), 궁촌(宮村), 금촌(金村), 상성(上星), 중성(中星), 월성(越星), 흑천(黑川), 장대(場垓), 하진(下陳), 상진(上陳), 연안(延安), 장수(長壽)의 13개 동리와 동종면(東終面)의 원당리(元堂里) 일부와 하북면 하광리(下廣里), 상광리(上廣里)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貢稅里) 일부를 합쳐 용문산 밑이 되므로 용문면이라 하여 화전, 삼성, 다문, 연수, 마룡, 금곡, 광탄, 망룡, 중원, 조현, 덕촌, 오촌, 신점의 13개 리로 개편되면서, 198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따라 13개 법정리에 27개 행정리와 102개 반으로 조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28개 행정리와 9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광탄리(廣灘里, 너븐여울, 광탄)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전곡천(田谷川)의 물이 넓게 여울져 있으므로 고어(古語)로 너븐여울이라 칭한 곳이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의하여 하북면 상광리, 하광리의 각 일부를 합쳐 광탄리라 한 후 용문면에 편입시킨 곳으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용문초등학교가 있다.

이 마을엔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양성지(梁誠之) 선생의 후손들이 건립한 봉황정(鳳凰亭)과 택승정(澤昇亭)이 있다.

광현교(廣峴橋) 너븐여울 동남쪽의 다리로 지제면 송현리로 건너감.

너븐여울 구만리로 가는 상광교 다리를 새로 설치함.

두더니고개 너븐여울에서 조현리 붉은 고개로 넘는 고개.

봉배산 봉황정이 있는 산.

봉황정(구성대) 위너븐여울 동쪽의 정자. 1624년(인조 2) 이곳 남원 양씨의 선조인 이조참의 양응청 병사 양응함 종형제가 창건함. 봉황청풍(鳳凰淸風)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부엉바위 두더니고개에 부엉이가 서식했던 바위.

안말 광현교 안쪽의 마을. 위너븐여울(건너말, 上廣) 건너의 마을.

은고개 너븐여울에서 중원리 강이대로 넘어가는 고개.

주막거리 하광 남쪽의 마을. 주막이 있었음.

중투말 봉황대말 동쪽의 마을.

택승정(澤升亭) 봉황정 옆에 있는 정자로 남원 양씨가 사정(射亭)으로 세워 무술을 연마하던 곳.

이외에도 구마니골, 너븐여울숲, 동매들, 봉황대말, 소재산, 아래너븐여울, 둔지, 큰골 등의 지명이 있다.

2) 금곡리(金谷里, 금질, 금지, 금곡)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으로 우리말로는 '쇠일'이라 칭하였다. 예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사금을 일던 곳에서 연유되었다 한다.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북면 하광리 일부를 합쳐 금곡리로 한자화한 후 용문면에 편입된 후,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지역 내의 세부적인 지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갈띠(葛芝) 칠정이 남쪽 마을로 갈지산 아래임. 앞 전곡천에서 사금을 채취함.

금남(金南) 쇠일 남쪽 마을.

금북(金北) 쇠일 북쪽 마을.

두견이고개 중간말에서 조현리 붉은개로 넘는 고개.

모름이말 갈지 서쪽 모퉁이에 있는 마을.

방아다리 모퉁이말에서 광탄리 안말로 가는 다리.

벌말 금질 남쪽 벌판에 있는 마을.

여우고개 칠정에서 덕촌리 운개로 넘는 여우가 자주 나타났다는 고개.

중간말 칠정말과 금질 중간에 있는 마을.

칠정말(七井-) 중간말 서쪽의 마을로 일곱 우물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칠정이(칠정) 금질 서쪽의 마을로 토기를 만들던 곳에서 연유함.

하서들 금곡리의 들로 예전 하서면(下西面) 행정구역일 때에 붙은 곳.

이외에도 가재물들, 금곡저수지, 봉수들, 봉우재, 쌍우물, 칠정이고개, 칠정산, 독바위 등이 있는 지역이다.

3) 다문리(多文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으로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장대리, 하진리, 상진리와 하서면 마천리 일부를 합쳐 다문리라 하여 용문면에 편입된 지역이다. 오늘에 이르도록 면사무소, 지서, 우체국, 다문초등학교, 용문면 시장 등의 면내 중심지로 꼽힌다.

이 지역의 명칭은 지덕원이란 객사가 있어 글을 읽는 선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라 전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8개 행정리 29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문1리(4반), 2리(5반), 3리(4반), 4리(6반), 5리(5반), 6리(1반), 7리(2반), 8리(2반) 등의 지역 내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월 중땀말 남쪽의 마을.

구 주막거리 주막거리 옛 장터에 주막이 있었음.

긴장등 벌땀 북쪽의 긴 산등성이.

느티나무거리 지더기 서쪽 마을로 느티나무가 있음.

두집땀 어수물 동쪽의 두 집이 살았던 마을.

물탕골 약수가 나오는 골짜기.

뱀골 두집땀 남쪽의 골짜기로 뱀이 많았다고 함.

뱀골고개 두집땀에서 삼성리 섬실로 넘는 고개.

버수고개 벌땀에서 갈월로 넘는 고개.

벌땀 중간땀 아래쪽, 벌에 있는 마을이면서 용문면사무소와 용문지서가 소재하는 곳. 여기가 용문임.

벼락바위 중땀말 서쪽 바위로 큰 바위가 벼락을 맞아 여럿으로 갈라졌다고 함.

비석거리 비석이 있는 곳. 지금도 옛 장터에 가면 비석이 3개 남아 있음.

사그네 개울 사그네 산 밑의 냇가.

상진(上陳, 안지더기) 지더기 안쪽 마을로 임진난(壬辰亂) 당시 왜군이 진을 쳤다고 전함.

새땀 장터 옆에 새로 된 마을.

어수물(御水-) 벌땀 서남쪽 마을로 물맛이 좋아 세종과 세조가 이 길을 행차하던 중에 이 물을 마셔서 생긴 이름이라고 구전됨.

여덟갈림 도랑이 여덟 갈래로 갈라지는 들의 샘물.

요골 갈월 남쪽 마을.

용문역 벌딤 앞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 정거장.

점말(店-) 안지더기 서쪽 마을로 용기점이 있었음.

주막거리 벌딤 서쪽 마을로 주막이 있었음.

중담말(中陳) 안지더기와 아랫지더기 중간 마을.

지더기(智德) 벌말 북쪽 마을로 세조가 그의 어머니인 소헌왕후를 위하여 용문사에 보전을 짓고 거동할 때 이곳에 있는 객사 지덕원에 유숙한 데서 유래하였다고 함.

황새바위 벼락재에 있는 바위로 황새가 떼를 지어 앉았다고 함.

이외에도 걸망지, 검은바위, 노루코시, 다문교, 말골, 먼벌, 벼락재, 뺑갈림, 사그네산, 삼마골, 새봇들, 수자터, 신바위, 씨애골, 아래지더기, 어미산(오미산), 옷물골, 원앞 소, 장좌터 버텨, 장터, 점동, 칠성사, 큰골, 후미안, 어미산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전한다.

4) 덕촌리(德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의거하여 봉대리, 퇴촌리, 덕동리, 운계리 일부를 합쳐 이 중의 덕동리와 퇴촌리 두 고장 지명을 합쳐 덕촌리라 이르고 용문면에 편입시켜 오다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덕촌1리(2반), 2리(1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끝말 토최미 끝에 있는 마을.

다락골 토최미 서북쪽의 마을.

다락골고개 다락골에서 오촌리 능골로 넘는 고개.

덕고개 서원말에서 마룡리 마천으로 넘는 큰 고개.

되치미 구리개 서쪽 마을. 원래는 토최미(土最美)이었음.

문앞다리 서원말 앞의 다리.

방아매기 서원말 남쪽 마을로 물방아가 있었음.

벌터 서원말 서남쪽 벌판 마을.

불당재(佛堂-) 불당이 있었던 산. 아래 절골과 절터가 있음.

서낭당고개 서원말에서 오촌리 오리골로 넘는 고개.

서원말(書院-) 덕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운계서원(雲溪書院)이 있어 연유된 곳.

세심정(洗心亭) 토최미 남쪽 마을에 있는 조용문 선생이 세운 정자.

속골 세심정 서쪽의 깊은 골짜기.

안산(安山) 서원말 앞에 있는 말.

오리골고개 토최미에서 오촌리 능골로 넘어가는 고개.

용머리 토최미 동남쪽의 마을.

용소 평양 조씨 세장동구 위에 있으며 조용문 선생 신도비가 있음.
 운계서원(雲溪書院) 서원말 소재의 서원으로 1594년(선조 27년)에 용문(龍門) 조욱(趙昱),
 조성(趙晟)의 학덕을 기리고 숭모하기 위하여 지역 유림들이 세웠으며 1655년(효종 5)
 에 용문서원이라 사액했음. 이후 현종이 이곳에 임어하시어 운계라 개칭함.
 윗장들고개 장들고개의 위쪽 고개.
 장승거리 서원말 남쪽 마을로 장승이 있었음.
 중등머리고개 서원말에서 토척미로 넘는 고개.
 진터(陳-) 진을 쳤던 곳이라 전함.
 큰엉덩이 서원말 동쪽의 마을.
 토척미[退村] 서원말 서쪽 마을.
 이외에도 가늉골, 구리개, 구마니, 덕둔, 매봉재, 문앞들, 바매기, 백곡골, 아랫장들고개,
 용머리다리, 이만투터, 이미터, 중등머리, 초둔터, 퇴치미다리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5) 마룡리(馬龍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
 역 통폐합으로 용담리, 마천리, 금곡리 일부와 상서면 전곡리, 상진리의 각 일부를 합쳐 마천
 과 용담의 두 지명 중에서 글자를 따서 마룡리라 하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0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마룡1리(5반), 2리(5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개와집거리 마내 서남쪽 마을로 예전 초가뿐이던 시대에 기와집이 있던 곳.

그릇고개(店村) 마내 동쪽 마을로 예전에 용기집이 있었다 함.

농바위 마내 동쪽의 바위.

다무내들 마내 남쪽 들로서 '다문리'를 다무내로 속칭(俗稱)함.

덕고개 용담에서 덕촌리 운계로 넘는 큰 고개.

두둑발 용담 남쪽 마을.

뒷별 용담 뒤 별판에 있는 마을.

마내(만왕, 馬川) 용담 남쪽 마을로 옛 지명은 마흔천, 마흔내로 '만왕(晩往)'이란 해평 윤
 씨 중의 조상 한 분이 구성부사(龜城府事)로 있을 때 선정에 대한 은공을 갚고자 어떤
 사람이 신위지지(神位之地)를 잡아 주며 뒤늦게 번창하리라 한 뜻에서 지명이 유래하였
 다고 전함. 만왕산을 일컬으며 마흔천(馬欣川)에서 유래함.

새보들 작은 용소가 있는 새로 만든 보에서 물을 대는 들.

새터안 느랭이 서쪽의 골짜기.

솔점말 마내 남쪽의 마을에서 솔 파는 점포가 있었음.

용담(龍潭) 마룻리에서 으뜸 마을로 일명 '용소골'이라 함.
 작은 용소(자작소) 용소 아래의 작은 소(沼).
 장승거리 다무내들 동쪽의 장승이 있던 들.
 쪽박골(富谷洞) 용담 동쪽 마을.
 활터거리 마내 서남쪽의 활터가 있었던 거리.
 공동산계 용문중고등학교가 있는 곳.
 이외에 감투바위, 곰산, 굴아위, 농바위소, 느랭이, 매봉재, 안뜰, 용소, 응구비소, 추읍들 등이 더 있다.

6) 망릉리(望陵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상망리, 하망리, 두릉리를 합쳐 상망과 두릉의 두 지명 중에 한 글자씩 따서 망릉리로 일컫고 용문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비교적 단조롭게 편성되어 있다.

능골 아랫버텡골 어귀의 마을.
 깊은목이 두릉리(斗陵里)를 이름.
 능골고개 능골에서 말치로 넘는 고개.
 말치(馬峙) 아랫버텡골 북쪽 마을.
 버텡골(望谷) 망릉리에서 으뜸 마을.
 붓들고개 웃버텡골에서 단월면 봉상리 붓들로 넘어가는 고개.
 밭골 망릉리의 삼밭이 있던 골짜기.
 아랫가말 고개 아랫말에서 중원리 아랫가말로 넘는 고개.
 아랫버텡골(아랫말, 下望) 버텡골 아랫쪽 마을.
 안산(案山) 중말 앞의 산.
 이외에 상망(上望, 웃버텡골) 서낭당고개, 중미(中山) 등의 지명이 있다.

7) 삼성리(三星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삼성리, 중성리, 월성리, 흑천리와 동종면의 원당리 일부와 여주군 개군면 공세리 일부를 각기 합쳐 삼성, 중성, 월성의 세 성자를 따서 삼성리라 하여 용문면으로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삼성1리(3반), 2리(1반), 3리(1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갈가터 건너비레 동쪽의 마을.

거무내(黑川) 웃비레 북쪽의 거무내 냇가 마을로, 이 냇물 바닥의 돌이 검은색이어서 물빛이 검게 보임.

흑천어적(黑川魚笛) 용문팔경 중 하나의 경관임.

건너비레 비레 북쪽 개울 건너 마을로 일명 '월성(越星)'이라 함.

고래울고개 건너비레에서 양평읍 봉성리 뵈이랑으로 넘는 고개.

당뫼개울 당재 아래쪽에 있는 냇물.

당재봉 섬실 남쪽 산재당이 있었던 산.

독골 웃비레 동쪽의 골짜기.

동산밀 웃비레 앞 들.

뽕고개 건너비레 뒤에 있는 고개.

말구리(馬轉) 비레 북쪽의 가파른 길로, 예전 말이 굴러 죽은 곳.

백고개 원골에서 양평읍 대흥리 황골로 넘는 고개로, 일명 잣고개라 하며 잣나무가 많은 데서 유래함.

추읍산(趨揖山) 일명 칠보산으로서 칠보청람(七寶淸嵐)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벼락바위 벼락을 맞은 적이 있는 바위.

비레(星里) 삼성리에서 으뜸 마을로 별내(성천)에서 유래함.

삼성굴 삼성리에 있는 중앙선 기차터널. 그 옆으로 6번 국도에 용문터널 두 개가 새로 개통됨.

섬실(石室) 웃비레 동남쪽 골짜기 마을로 일제시대 광산이 생겨 연유된 지명.

우묵골 우묵하게 생긴 골짜기.

이외에도 가운데비레, 가재골, 갈가터산, 당재밀, 막골소, 말구리소, 말부리보, 빈주골, 상성(웃비레), 선골, 아랫말, 안말, 요골, 원골, 웅달비레, 절골, 청동골, 큰골, 수진원터 등의 지명들이 산재해 있다.

8) 신점리(新店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웅점리, 신촌리, 조좌리 일부를 합쳐 신촌리와 웅점리 두 지명에서 본떠 신점리로 하고, 용문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점1리(3반), 2리(3반) 마을의 구체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도매기(도뵈기) 독점 서쪽 마을.

독점(獨店) 양수 동남쪽의 웅기점이 있었던 마을.

새말(新村) 신점리에서 으뜸 마을로 용문사 앞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셋골 새말과 양수 사이의 마을.

양사(兩寺) 아랫말 남쪽의 절이 둘 있던 마을.

옹골 조개골 동북쪽 마을.

웃말 새말의 위쪽이고 용문사 앞이 되는 마을.

용문사(龍門寺) 신점리 산99번지에 있는 절. 신라 신덕왕 2년(913) 대경대사가 창건하였으며 그후 몇 차례 중건(重建)하였다. 조선시대 때 수양대군이 소현왕후를 위해 보전(寶殿)을 중수(重修)하는 등 여러 차례 고친 바 있고, 일제 때는 의병(義兵)들의 근거지로 왜군이 불살라 많이 소진되었다가 1938년 태욱(泰旭)에 의해 현재 모습을 지니게 됨. 용문 효종(龍門曉鍾)은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이 사찰 내에 약 1,100년 된 은행나무[公孫樹]가 있음.(천연기념물 제30호)

용문산전투 전적비 한국전쟁의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고자 1979년 12월 10일 교통부에서 건립하였음.

정지국사부도비(正智國師浮屠碑) 용문사 경내에 있는 양촌 권근(權近)이 지은 부도비.

조개골 아랫말 북쪽 마을로 조씨(曹氏)가 사는 마을로, 일명 '조계곡(曹溪谷)'이라고도 함. 조계십이도탄(曹溪十二渡灘) 용문팔경 중의 하나임.

이외에 문례재[汶禮峴], 보현교, 신점교, 신점이교, 신점일교, 아랫말, 중앙기도원, 해탈교(解脫橋) 등의 지명이 있다.

9) 연수리(延壽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연안리와 장수리를 합쳐 이 지역 명칭을 따서 연수리로 일컫게 되었고, 이때에 용문면에 속하는 지역이 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연수1리(2반), 2리(5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말 연안 동쪽 건너의 마을.

귀골 연안 서북쪽 마을로 다시 되돌아가는 지형(地形)에서 유래함.

귀골고개 귀골에서 양평읍 백안리 신골로 넘는 고개.

덕가재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 대흥리로 넘는 고개.

돛내미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 장골리로 넘는 고개.

두릅재고개 장수골에서 덕촌리 되치미로 넘는 고개.

배남고개 배남에서 오촌리 논골로 넘는 고개.

백운봉 이곳에 형제 우물이 있으며 백운낙조(白雲落照) 용문팔경 중 하나이고 언제나 흰 구름이 감돈다 하여 유래함.

비고개 장수골에서 양평읍 백안리로 넘는 고개.



용문면 연수리 백운봉 전경



용문면 연수리 윤필암지 전경

상원(上院) 상원암이 있는 마을.
 서낭당 새터말 북쪽의 서낭당이 있던 마을.
 솔골 배남 남쪽의 소나무가 많던 곳.
 수득골 장수골 북쪽의 마을.
 안산(案山) 장수골 앞 산.
 연안막(延安幕) 중말 북쪽 마을.
 윤필암지(潤筆庵址) 상원암 북서쪽 암자로 고려 중엽에 비구니 묘덕(妙德)이 창건하였다
 고 전한다. 윤필귀운(潤筆歸雲) 용문팔경 중 하나로 지금은 터만 남았다.
 은수덕골 곰의 골 동쪽 골짜기.

장수골 연수리의 으뜸 마을로 오래 사는 이가 많다고 전해옴.

장승배기 장승이 서 있던 들.

탐선이들 탐이 서 있던 마을.

태을암(太乙岩, 태람골) 암자가 있던 곳.

학골(學谷) 장수골 서북쪽 마을.

흑고개 연안에서 오촌리 샘말로 넘는 붉은 흙이 나오는 고개.

흙덕골 험준한 골짜기.

이외에도 갈미봉, 개삼발자리, 고래들, 곰의 들, 구방터, 기와집바위, 당채들, 말잎들, 명박바위, 밤나무골, 배남, 뱀봉골, 비개골, 삼형제우물, 상루봉, 상원암, 새터말, 선바위, 소골, 순상골, 승잠골, 안귀골, 윈스내들, 잔사래기, 장수골숲, 중말, 찌진바위, 치마바위, 큰골, 호랑바위 등이 있다.

10) 오촌리(梧村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간촌리, 답곡리, 오리, 신촌리 일부를 합쳐 이 지역들 중에 오리와 신촌리 두 곳 지명을 딴 이름이 오촌리로, 용문면 편입이 된 지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간촌(間村) 오촌리에서 으뜸 마을로 일명 '셋말' 이라고도 함, 오리골과 괴사리 사이에 있음.

논골(沓谷) 셋말의 서남쪽 골짜기의 마을로 논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곳.

오리골 셋말 남동쪽 마을로 오리나무가 많았다고 함. 일설에 따르면 조현, 덕촌, 신점리가

이 마을에서 각각 5리가 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는 말도 있음.

그밖에도 양나발, 셋말, 논골, 용문골아래터, 오촌교 등이 전한다.

11) 조현리(曹峴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적현리, 장평리, 막곡리, 조좌리와 운계리, 오리의 각 일부를 합쳐 조좌리와 적현리의 두 지명 글자에서 따서 조현리로 하고 이에 용문면 소속이 된 마을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막동(幕洞) 붉은고개 서쪽의 마을.

붉은고개①(적현(赤峴), 부름개) 조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붉은고개 밑이 됨, 이곳에 초등학교가 있음.

붉은고개② 조지랑골에서 중원리 소파배기로 넘는 고개.

장들(長坪) 붉은고개 남서쪽 마을로 앞 들판이 길게 뻗어 있다는 뜻이 있음.



용문면 중원리 중원폭포 전경

조동(曹洞, 曹佐洞, 조지랑굴) 막동 북쪽 마을로 조선시대 때 좌랑(佐郎) 벼슬을 지낸 이가
은거한 데서 붙은 지명.
그밖에도 건너평, 봉화뚝, 약비소, 뱀춘보, 중원천, 조계, 조좌도 등의 지명이 전한다.

12) 중원리(中元里)

본래 지평군 하서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에 따라 상현리, 하현리와 하망리, 두릉리의 각 일부를 합쳐 중원산 아래가 되므로 중원리라
부르면서 용문면으로 편입된 고장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원1리(2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마울(玄谷) 중원리에서 으뜸의 마을.

갈골 부처개 동쪽 골짜기.

강이대(江伊垓, 깽이터) 중땀 동남쪽 마을로 개울 건너에 집터가 있었다고 연유된 어원(語
源)임.

깊은 매기 웃가마울 북쪽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

먹뱅이 깊은매기 북쪽 골짜기.

보름고개 중땀에서 망릉리 안말로 넘는 고개.

보소(洑沼) 오얏별 아랫쪽 소(沼).

부처개 돌부처가 있는 골짜기.

싸리재 중원폭포 북쪽 고개로 중원리와 신점리에서 단월면 향소리와 산음리로 넘는 고개.

소따배기 아랫가마울 남쪽 마을.

솔젓골 가마울 남쪽 마을.

안골고개 안골에서 단월면 봉상리 덕골로 넘는 고개.

여수고개 솔밭에서 망릉리 안말로 넘는 고개로 여우가 많이 나타났던 곳.

오얏벌 아랫가마울 남쪽의 오얏나무가 많은 마을.

중땀 가마울 중앙에 있는 마을.

중원폭포(中元瀑布) 옷가마울 북쪽의 폭포. 장군바위엔 손자국이 새겨져 있음. 용문팔경 중 하나임.

평장들 팽이터 서쪽의 들에 있는 마을.

한새나무골 철분이 든 약수(藥水)가 나는 골짜기.

이외에도 개울건너, 덕재, 매둥치봉, 보소개비, 상현(上玄, 옷가마울), 소따개비고개, 송골(松-), 수리봉, 하현(下峴, 아랫가마울), 안골, 안말, 안터, 재삼밭골(싸리재), 종골, 집너머 등의 고을 명칭이 더 있다.

13) 화전리(花田里)

본래 지평군 상서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꽃길, 궁말, 여촌리, 전곡리, 마장말, 동촌을 합쳐 꽃길과 전곡 두 곳의 지명을 본떠서 화전리로 부르게 되었고, 이에 용문면으로 편입된 마을이다.

2002년 12월 31일을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화전1리(2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궁말(宮村) 화전리에서 으뜸 마을로 뒷산에 효종의 셋째따님인 숙안공주의 무덤이 있음.

남양골(餘村) 궁말 북쪽 마을로 일명 '나망골'이라고도 함. 남양 홍씨와 관련이 있는 듯함.

대산이고개 남양골에서 삼성리 섬실로 넘는 고개.

동촌말(東村-) 궁말 동쪽 마을로 근년에 은여우 사육목장이 생겨 '여우고개'로도 불림.

지금은 전원주택 마을임.

마장말 말등바위가 있는 마을.

무등치고개 마장말에서 전곡으로 넘는 고개.

별고개 동촌말에서 지제면 옥현리 부일로 넘는 고개.

새터말 전곡 동쪽에 새로 형성된 마을.

셋말 동촌과 남양골 사이의 마을.

소따배기 남양골 서남쪽의 들.

숙안공주묘(淑安公主墓) 궁말 뒤에 있는 효종의 셋째따님과 그의 남편 익평군 홍득기(洪得箕) 무덤.

전곡(田谷) 마장말 북쪽의 마을. 여기에 나무가 있으며 장이 켜고, 전곡역을 왕래하던 곳.

이곳의 개울을 전곡천이라 함.
 전나무배기 남양골 남쪽 전나무가 있는 산.
 지직재 셋말 서쪽 고개.
 이외에도 가마바위, 돌다랭이, 뒷농산, 말등바위, 문앞들, 사그내골, 쉬갱이, 앞들, 운양골, 유광중산, 유녀굴, 은행나무, 절개,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11. 지제면

지제면(砥堤面)은 군내의 동남쪽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97.84km², 10개 리로 구성되어 있고, 면사무소는 지평리에 있다.

원래 고구려의 지현현(砥峴縣)인데 신라 경덕왕 때 지평현으로 개칭하여 삭주군 영현이 되었다가, 1018년(현종 9)에 또다시 광주에 속했다가, 1378년(우왕 4) 유모 장씨의 고향이라 하여 감무(監務)까지 둔 적도 있다.

1391년(공양왕 3)에는 철장을 변경에 설치하고 감무를 두어 이에 운영을 겸임케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현감을 두었고 1685년(숙종 11)에 양근군에 속하다, 다시 지평현(砥平縣)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다가 1908년 양근군과 합병되면서 남면, 하동면, 군내면 일부를 합해 지제면이란 명칭이 사용되면서 오늘에 이른다.

동쪽은 양동면, 서쪽은 개군면, 북쪽은 용문면과 인접하고 남쪽은 여주군 북내면·대신면과 경계를 이룬다.

기반암은 대보화강암(大寶花崗岩)과 호상편마암(縞狀片麻岩)으로 형성되었고 남부에 고래산(542m)이 솟아 있다. 금당천(金塘川) 유역에 비교적 넓은 경작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보리·채소로 특이한 것은 된장·간장의 생산이 활발하다.

중앙선 철도가 면 중앙을 지나며 지방도로도 발달해 있다. 서울·강릉간의 국도는 면 북쪽 끝을 지나치며 문화재로 수곡서원(水谷書院)·지평향교(砥平鄕校)·권경우 묘(權景祐墓) 등이 있다.

이 면(面)에 관한 지명 분포를 좀더 살펴보면, 군내면(郡內面) 중에 기론(其論), 석불(石佛), 신대(新岱), 거산(巨山), 평장(坪場), 상취암(上翠岩), 하취암(下翠岩), 월파(月坡), 산현(山峴), 궁상(宮上), 간현(間峴), 마산(馬山), 월상(月上), 장대(場臺), 월하(月下), 교촌(校村), 궁하(宮下), 러촌(犁村), 전곡(轉谷), 송정(松亭)의 20개 동리를 관할하여 오다가, 1908년 9월 14일 칙령 제69호에 의거하여 양평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郡面) 폐합조치로 남면(南面)에 어은(漁隱), 칠성(七星), 발리(發里), 동의(東儀), 당아(唐牙), 곡수(曲水),

대사(大寺), 평장(坪場), 배잔(盃盞), 삼상(三湘), 주회(朱會), 옥구(玉鉤), 송현(松峴), 광양(光陽), 조곡(鳥谷), 신대(新垓), 통로(通爐), 사창(社倉), 오포(梧浦), 오종(梧宗)의 20개 동리와 여주군 대신면 전후곡리 일부와 같은 군 대신면 곡수동, 산촌의 각 일부를 합쳐 지평군의 옛 지명을 따서 지제면이라 확정한 이후 수곡, 곡수, 대평, 옥현, 일신, 무왕, 망미, 월산, 지평, 송현의 10개 리로 개편 관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의거하여 10개 법정리와 24개 행정리, 73개 반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26개 행정리 7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1) 곡수리(曲水里, 당아실, 당아, 곡수)

본래 지평군 남면지역으로 개울물이 마을 전체를 휘돌아 흐르므로 곡수, 당아실로 전해졌다. 한자어로는 '곡수(曲水)'라 하였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발리, 당의리, 대사리 일부와 여주군 대신면 곡수동, 산촌의 각 일부를 합쳐 곡수리로 하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곡수1리(4반), 2리(4반) 마을의 세부적 지명은 다음과 같다.

귀골(歸谷) 장터 동남쪽의 마을.

남장터 장터 남쪽 마을.

당아실(唐牙-, 堂我, 堂虞谷) 곡수리를 가리키는 별칭(別稱)으로, 이 마을 위에는 망곡당(望哭堂)이 있어 관리인이 주재하였으므로 '당아(堂衙)'라 한 데서 연유한 듯 함. 이곳 당집이 위아래로 있는데 그곳에서 당제를 지냄.

동울(동의울) 곡수 북서쪽의 마을.

북장터 장터 북쪽 마을.

삼가촌(三家村) '세집터'로도 불리며 새터골 동쪽의 세 집이 살았다 함.

새터골 곡수 북쪽의 새로 된 마을.

장터(場垓) 곡수 장터가 있는 마을.

이외에 곡수개울, 곡수장터, 아랫당아실, 아랫장터, 웃당아실, 웃장터, 뒷말 등의 지역이 있다.

2) 대평리(大坪里)

본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평장리, 배잔리, 대사리의 일부를 합치면서, 특히 대사리와 평장리 두 지역의 지명을 합친 글자에서 대평리로 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지제면에 속한 마을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대평

1리(1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이곳엔 10ha 이상을 관수하는 저수지를 만들어 경지가 넓은 들이 있으며, 이곳에서 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있다.

건너말 닛절 건너쪽 마을.

고개밀 속고개 밑의 들.

고총재(古塚-) 닛절 북쪽의 옛 무덤이 많은 산.

닛절(大寺) 평론 서쪽 마을로 큰 절이 있었음.

동울고개 평론에서 여주군 북내면 산교리 고달로 넘는 높은 고개.

등월 동울고개 밑의 골짜기.

배잔(盃盞) 대평리에서 으뜸 마을로 중앙에 있는 산이 술잔 모양이라 하여 붙은 지명.

세번덩 세모 모양의 버덩.

속고개 배잔에서 옥현리 속고개로 넘는 고개.

신론(新論) 평론 남쪽의 새로 된 마을.

썰매길 산이 가팔라 땔나무나 목재를 썰매로 끌어내리던 산골짜기.

새길 대평 신론에서 망미리로 새로 개설된 도로.

앞낭 배잔 앞산의 낭떠러지.

웃넝골 닛절 위쪽 마을.

위러치고개 배잔에서 망미리 저론으로 넘는 고개, 이곳에 골프장이 있음.

조산들(造山-) 배잔 서남쪽 들.

평론(坪論) 배잔 서쪽 마을로 앞엔 대평 저수지가 있음.

하늘거리 닛절에서 배잔으로 돌아가는 길.

삼태봉 이곳 저수지 위쪽으로 태봉이 세 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두 곳에 남아있음.

이외에도 거마바위, 가봉, 갓바위, 구석바위골, 능넘들, 대평저수지, 둥그런산, 뒗동산, 마당채골, 명막골, 방하골, 범바위, 사시나무번던, 선바골, 소사봉, 소시랑산, 삼태능, 수평땀, 시나무등골, 아랫땀, 안말, 양지땀, 웃땀, 오지산, 왜골, 작은골, 절골, 진골, 진밭, 진장등(긴장등), 창골, 창기래, 창골, 화초봉 등의 지명이 많이 산재해 있다.

3) 망미리(望美里)

본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론리, 석불리, 신대리를 합쳐 망미산 밑의 마을로 망미리라 하면서 지제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망미1리(4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벌땀 섬부리 남쪽 벌판의 마을.

새터말 섬부리 서남쪽의 새로 된 마을.

섬부리(石佛) 망미리에서 으뜸 마을로 돌부처가 서 있음. 이곳에 중앙선 석북역이 있고 저수지가 있음.

저른(절운, 其論) 섬부리 남쪽 마을.

저른굴 저른 동북쪽에 있는 중앙선의 기차터널.

이외에 매바우골, 바깥 섬부리, 봉달골, 새막골, 속새봉, 안땀, 안섬부리, 장승백이, 절골, 전양고개 등의 지명이 있다.

4) 무왕리(茂王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으로 상초리, 하초리, 초왕리, 무촌리를 합쳐 이 중에 무촌·초왕의 두 고을 이름을 본떠 무왕리라 하여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무왕1리(1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래 초왕골 남쪽 거리에 있는 마을.

거치리(茂村) 초왕골 남서쪽 마을로, 해발 542m 높이로 잡초와 수목이 많아 일컬어온 지명.

건너말 초내 건너쪽 마을.

모라치고개 초내에서 지평리와 양동면 고송리로 넘는 고개.

모래섬 무왕리에 있는 마을로 모래섬으로 되어있음.

삼밭골 삼밭이 있었다는 골짜기로 일설에는 박식한 세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었다고 하는데 의심가는 억측임.

숫돌봉(수리봉) 숫돌이 채석되는 산.

우물너머 중땀 서남쪽의 마을.

응지땀 초왕골 응달 마을.

작은 창골 초왕골 옆의 작은 들.

전양고개 초왕골에서 망미리 섬부리로 넘는 고개.

중땀 거치리 중간 마을.

초내(草川) 초왕골 북쪽의 마을로 온갖 풀이 많음.

초왕골(草王-) 무왕리에서 으뜸 마을.

초왕골굴(구둔터널, 황새고개굴) 초왕골 동쪽의 중앙선 기차터널. 여기가 한국전쟁 당시 지평리전투중 쌍굴작전이 전개된 곳임.

큰고개 초내에서 일신리 묵방으로 넘는 큰 고개.

한치고개 초내에서 양동면 고송리 윗고솔로 넘는 큰 고개.

이외에도 독갑바위, 드른치바위, 마산다리, 물안골, 살구나무골, 소골, 앞매들, 양지땀, 여우바골, 영산바위, 작은고개, 윗말, 아랫말, 시독골, 질골, 전양골, 초천교(초내다리), 피죽봉, 황새고개 등이 있다.

5) 송현리(松峴里)

본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송정리, 전곡리, 산현리, 여촌리의 각 일부를 합쳐 송정과 산현의 두 고을 명칭을 따서 송현리로 하여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송현1리(1반), 2리(1반), 3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그루고개 역말에서 용문면 화전리 전골로 넘어가는 고개.

넘말고개(다리고개) 역말 남쪽의 마을로 다래고개 아래 지역. 송정에서 윗고개로 박의암으로 넘는 마을.

노래기산 역말 서북쪽 산.

미나리골 미나리가 많았던 들.

바가미(박암, 박의암, 松亭) 역말 북쪽의 마을로 소나무 정자와 넓은 바위가 있었음.

산우물 용수우물 동쪽의 샘.

새말 송현리에 새로 형성된 마을.

소현(小峴, 작은재) 바가미 북쪽 마을로 뒤에 작은 고개가 있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기지(軍基地)가 있는 지역.

송암사 바가미 서쪽의 절.

쌍구바우 역말 서북쪽 갈자산 바위로 거북이 엮힌 형상임.

역말(松谷, 田谷) 송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전곡역(田谷驛)'의 옛 지명.

자르무리 넘말고개 남쪽의 마을.

전곡역터(田谷驛-) 역말에 있었던 평구도찰방(平丘道察訪)에 딸려 있던 터로 1896년에 폐지되었다 함.

최효자정문(崔孝子旌門) 작은재에 있는 최씨 선대의 부자간에 정려된 효자 정문.

체육공원 바가미 아래에 새로 체육공원이 있음.

이외에도 가재울골, 감투봉, 고래능산, 관골, 독바위, 물건너들, 물방아들, 선다락, 송현천교, 용수매리, 절뒤, 큰들, 형제바위, 굽두리, 아랫고개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6) 수곡리(水谷里, 물골, 묵골, 수곡)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으로 물이 많아 이렇게 불리는 지역이라고 한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어은리, 칠성리, 신대리, 통로리, 사창리, 오폐리, 오종리와 여주군 대신면 전후곡리 일부를 합쳐 수곡리라 하면서 지제면 소속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곡1리(3반), 2리(5반) 마을의 구체적인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고길고개 칠성골에서 용문면 삼성리 섬실로 넘는 고개.

사창(社倉) 묵골 남서쪽 마을로, 예전 사창(社倉)이 있으므로 붙은 지명.

어은(漁隱) 칠성골의 동쪽 마을로 마을 앞 연못에 물고기가 숨어 산다는 의미가 담긴 지역이라 함. 지금은 저수지가 있음. 이곳에 수곡서원이 있고 천학자가 후세를 교육한 곳임.

오종개(梧宗蓋, 五宗家, 오징개) 사창의 동남쪽 마을로 경주 최씨가 산 곳이며, 은행나무가 있음.

칠성골(七星-, 七亭-) 통로 북쪽의 마을로 예전엔 우물이 일곱 있었다고도 하며, 일설에 따르면 7가구 각기 다른 성씨가 사는 마을이란 이야기도 구전함.

통로(通爐) 묵골의 북쪽 마을로 밤벌에서 안말로 지나는 곳이며, 예전엔 옹기점이 있었다고 함.

수곡서원 치현 권경우 형제분이 배향됨.

7) 옥현리(玉峴里)

원래 지평군 남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삼상리, 주회리, 옥구리, 송현리, 광양리, 조곡리를 합쳐 이 가운데 옥구리와 송현리의 두 지역을 합친 이름에서 합성시킨 지명으로, 옥현리로 정한 후 지제면에 편입시켜 온 곳이다. 고려시대 철장이 있었던 곳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12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지역은 옥현1리(4반), 2리(4반)이며,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루매(葛陰) 고양이 남서쪽 마을로 지형이 갈림길목이어서 생긴 지명이며, 칠보산 아래임. 갈골(葛谷) 삼상개 남쪽 마을로 지명유래가 일정치 않음. 갈무리 또는 메마른 곳 등으로 풀이하나 한자 어원(語源)은 마을 주변의 산에 칠녕쿨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음.

고양이(光陽) 옥현리에서 으뜸 마을로 높은 산에 해가 떠올라 비친다는 지명 유래가 있으며, 변이음으로 '괭이' 또는 '고양이'가 된 듯함.

구석담 고양이 남동쪽 구석진 마을.

부일(浮日) 사일 서북쪽 마을로 해가 일찍 뜬다 하여 일컫는 지명.

사일(사실) 고양어 서쪽 마을로 해가 일찍 진다 하여 붙은 지명.

삼상개(三相-) 옥구촌 남서쪽 마을로 세 갈래 물꼬랑이 함유된다는 뜻.

속고개(松峴) 웃솔고개 동남쪽 마을.

오리골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

옥구촌(玉鉤村, 玉丘村) 가루매 남쪽 마을로 옥돌 같은 석회석광산이 있는 곳.

장승배기 장승이 있었던 들.

주령골(柱令谷) 옥구촌 서쪽 마을로 골짜기를 따라가며 주렁주렁 마을을 이루었다는 뜻이 있음.

주령골고개 주령골에서 수곡리 어은으로 넘는 고개.

진실고개 진실에서 관실로 넘는 고개.

하우개고개 광양에서 지평리로 넘어가는 고개. 이곳에 지평관아가 있을 때 세운 하마비가 있음.

이외에도 관돌, 동막골, 아랫가루매, 아랫속고개, 양지땀, 웃가루매, 웃속고개, 음달말(음달말), 절골, 진실, 방아다리, 소고개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8) 월산리(月山里)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거산리, 평장리, 상취암리, 하취암리, 월파리, 산현리, 궁상리 일부를 합쳐 월파리와 거산리 두 지명에서 이름을 따서 월산리로 만든 후 지제면 소속 마을로 편입시킨 지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월산1리(2반), 2리(2반), 3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구례골(계산이, 巨山) 월파 서북쪽 마을로 앞산 지형이 게[蟹]와 같다고 해서 생긴 지명.

금의(錦衣, 거미) 평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 학자였던 이근원 선생이 금의환향하여 은거했으므로 일컫는 곳. 일설에 의하면 금위영(禁衛營)이 있던 곳이라고 함. 여기에 저수지가 있으며 그 위쪽으로 청소년수련원이 있음.

반다리 월파 남서쪽 마을.

아홉구비고개 취암에서 지평리 관교로 넘는 아홉 구비진 고개.

월파(月坡) 월산리서 으뜸 마을로 달 밝은 밤에 하천 물결이 아름답게 파도친다는 뜻이 구전됨.

중말 월파와 취암의 중간 마을.

취암(翠岩) 월파 동남쪽 마을로 산에 있는 바위가 푸른 색깔을 띠고 있으며, 옛 지명은 '너시락'이라고도 함.

평장(平章) 취암 남쪽 마을로 전주 이씨의 선조인 선교랑공이 은거하던 아늑하고 평화로운 의미의 지명이며, 일설로는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가 살았다는 곳.

9) 일신리(日新里)

본래 지평군 하동면 지역이었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금동리, 지산리, 구둔리, 신촌리, 노일리를 합쳐, 이 지역 중에서 노일리와 신촌리의 지명을 따서 일신리라 하고 지제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신1리(2반), 2리(3반), 3리(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문골(琴洞) 구둔 서쪽 마을로 거문고골이라고도 함.

구둔(九屯) 일신리에서 으뜸의 마을로 예전에 이 고개에는 군대가 주둔하며 전투가 계속되었다 함. 이곳에 중앙선 구둔역이 있으며 초등학교가 있음.

노일(老日) 구둔역 북쪽 마을로 노인을 편안히 모시는 마을로 구전되나 신빙성이 없음.

먹방이(墨方) 노일 북쪽의 마을로 예전에 먹을 만들던 깊은 산골짜기.

못저리(池山) 거문골 동쪽의 마을로 연못이 있었음. 여기에서 장승제를 지냄.

못저리굴(미봉터널) 못저리 북동쪽에 있는 중앙선 기차터널.

일신교 구둔 서쪽의 다리.

이외에 큰땀, 너머땀, 중말, 심대울, 까치바우, 신촌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10) 지평리(砥平里, 지평읍내, 읍내, 지평)

원래 지평군 군내면 지역으로 지평 읍내가 되므로 지평읍내로 칭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의거하여 간현리, 마산리, 월상리, 장대리, 월하리, 교촌리, 궁하리를 합쳐 지평리라 하면서 지제면에 편입된 지역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4개 행정리 1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곳은 면사무소 소재지로서 지평1리(4반), 2리(2반), 3리(5반), 4리(5반)로 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국전쟁 중의 지평리전투로 유명하며 전투전적비가 서 있다.

말미(말뫼, 馬山) 월하 남쪽 마을로 백로의 서식지이며, 약수터가 있음.

밀모퉁이 읍내 모퉁이의 들판.

배암산 9년 홍수 때 배를 맨 바위가 있다 함.

버습구지(여촌) 지평 서쪽의 마을로 보습처럼 생긴 곳.

송효자정문(宋孝子旌門) 말미 앞에 있는 송씨 가문의 정문.

옥터(獄-) 지평 옛 고을의 형무소(옥터)로 현재 지제초등학교가 됨.

월하(月下) 읍내 남쪽 건너 마을.



지제면 지평리 지평저수지 전경

장군바위 장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장터 월하 서쪽의 시장이 있는 곳. 면사무소, 농협, 지서, 우체국 등이 있음.

중말 옷말과 벼습구지中间的 마을. 여기에 중앙선 지평역이 있음.

지평저수지 지평 동쪽의 저수지.

관교 옛날 지평관아와 향교가 있던 곳.

하오고개① 말미에서 옥현리 고양리로 넘는 고개.

하오고개② 하오고개 밑의 마을로 일명 '간현' 이라고도 함.

향교말(校村, 官校) 지평 북쪽의 마을로 지평현의 향교가 있음.

비림(碑林) 역사적으로 이 고장 지평을 위하여 애민선정한 분의 공적비와 을미의병창의비를 한곳에 모아 세운 곳.

이외에도 뒷말, 탑사니골, 재백이, 서낭탱이, 회골, 목골 등의 지명이 있다.

12. 청운면

청운면(靑雲面)은 군내의 동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면적 97.6km², 9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1688년(숙종 14) 지평군 상북면(上北面)이었다가 장둔면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진다. 조선 말기에 역졸들이 많이 숨어 장기간 살았으므로 '장둔면'이라 하였다. 1914년 3월 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한 부군면 병합에 따라 상북면 일부와 하북면 일부가 합쳐지고 면 명칭도 청운면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청운면이라 붙은 것은 칠산유수 벼슬을 지냈던 신재정이 면 전체를 돌아본 후 「청운팔경(靑雲八景)」이란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전한다.

북쪽이 강원도 홍천군 남면과 인접되어 있고, 동쪽은 횡성군 서원면, 남쪽은 양동면, 서쪽이 단월면과 연결되었다. 동쪽 도계(道界)에 성지봉(聖地峰, 791m), 남쪽 면계(面界)에 비룡산(飛龍山, 527m), 북쪽에 갈기산(葛基山, 685m)이 솟아 그 산줄기가 면내로 뻗어, 대체로 산지가 많은 편이다.

남한강의 근원 지류인 전곡천(田谷川)이 면내의 산악 사이를 흐르며 그 유역에 좁고 긴 평지는 경작지나 취락으로 이용된다.

주요 농작물은 쌀·보리·감자·채소·약초·인삼·느타리버섯 등이며, 한때는 금·은을 채광한 적도 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다.

서울·강릉 간의 국도가 면의 중앙을 동서로 횡단하며, 홍천으로 통하는 또 다른 국도가 북동에서 남서향으로 통한다.

문화재로 청선공주묘(淸璿公主墓), 전주이씨효자정려(全州李氏孝子旌閭)가 있다.

이 면(面)에 관한 지역 명칭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자면, 상북면(上北面)이라 하여 노음(老音), 교동(橋洞), 도청(都廳), 울리(栗里), 평촌(坪村), 가현(加峴), 말가(末加), 용두(龍頭), 황정(黃亭), 아시(兒柴), 다대(多大), 유곡(楡谷), 신당(神堂), 고론(古論), 신대(新垔), 상갈(上葛), 하갈(下葛), 몰운(沒雲)의 18개 동리를 관할하였는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4월 1일 군면폐합에 따라 하북면 성재(聖才), 여물(余勿)의 2리를 합쳐 청운면(靑雲面)이라 하여 비룡, 가현, 여물, 용두, 다대, 삼성, 신론, 갈운, 도원의 9개리로 개편 관할하여 왔다.

1988년 8월 1일 양평군 행정구역 조정 및 리(里)·통(統)·반(班) 설치조례에 의하여 9개 법정리와 18개 행정리에 45개 반으로 개편되어 오늘에 이른다.

한때 장둔면(壯屯面)이라 한 것은 옛날 이곳에 수어청, 장용영이 주둔하던 곳으로 일컫던 지명이고, 현재의 청운면 지명 유래는 앞으로 발전해 나갈 고장이란 의미가 담겨진 명칭이라 할 수 있다.

1) 가현리(加峴里, 벗고개, 가현, 내현)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조치에 따라 말가리, 평촌리, 벗고개의 각 일부를 합쳐 이 지명 중에서 말가리와 벗고개의 고개 현(峴)자를 본떠 가현리로 칭하면서 청운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가현1리(2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끝벗고개(末加) 벗고개 아래쪽 마을로 옛날에 어령청(禦令廳) 소속의 마가실(馬加室)이 있어 연유된 곳. 여기에 초등학교 가현분교가 있었음.

벗고개 가현리에서 양동면 금왕리로 넘는 큰 고개로 벗어나기가 많이 있음. 여기에 도로가 개설되었음.
 삼마골 제비산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엔 화전민이 살았고, 일명 '산막골(山幕-)'로도 불림.
 이외에도 부채바위, 비룡골, 아랫벗고개, 앞들, 옷벗고개, 절터골, 줄바위, 청운교(靑雲橋), 형제봉, 화채봉 등이 있다.

2) 갈운리(葛雲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갈리, 하갈리, 물운리, 아시리 일부를 합쳐 이 중에 하갈리와 물운리 두 지역 명칭을 따서 갈운리로 만들었고, 청운면에 편입시켰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7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갈운1리(3반), 2리(3반), 3리(1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루개 갈운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칩이 우거졌다고 함. 갈운초등학교가 있음.

느릅정들 느릅나무 정자가 있었던 들.

도덕고개(도덕고개, 도덕현) 증안에서 황성군 서원면 유현리 풍수원으로 넘어가는 높고 험한 고개. 옛날 이곳에 도독이 자주 출몰했다고 함.

동동산 아랫가루개 서쪽의 산.

물운(沒雲) 아시 남쪽 마을로 양쪽 산이 높아 구름에 자주 가려진 곳을 뜻함.

물운고개 물운에서 양동면 금왕리 돌모루로 넘는 고개.

버덩말 아랫가루개 동남쪽 버덩에 있는 마을.

명박바위 응달말 동쪽 바위.

새무골 윗가루개 북쪽 마을.

아시(兒柴) 아랫가루개 서쪽 마을. 이곳에 의병장 김백선공 묘소가 있음.

양지땀 아시 양지쪽의 마을.

양짓말 윗가루개 양지쪽의 마을.

오목골 아시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오목골고개 오목골에서 다대리 골말로 넘는 고개.

이효자정문(李孝子旌門) 갈운리의 효자였던 이춘명의 정문임.

제비산 물운 동쪽의 산.

증자골 물운 동쪽의 마을.

증골 윗가루개 남쪽마을로 그릇점이 있었음.

증안골(曾安-) 증골 안쪽의 마을로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다는 뜻의 지명유래가 있음. 일

명 '증안이골'로도 불림.
 질마재 질마처럼 생긴 산.
 풀무골 윗가루개 남쪽의 마을.
 이외에 가마솔골, 노감들, 늘앞버덩, 명박바위, 벗나무들, 상갈(上葛, 윗가루개), 아랫가루개(下葛, 하갈), 안말, 양짓말, 짜장나무배기, 큰골, 큰말 등의 지명이 산재해 있다.

3) 다대리(多大里, 새암말, 신양촌, 다대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황정리, 유곡리의 각 일부를 합쳐 다대리라 하고 청운면에 편입시켰다. 둥굴레차를 가공하고 인삼을 재배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다대1리(2반), 2리(2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거래 시암말 남쪽 길가의 마을.
 골말(골안, 큰골, 谷村) 시암말 서쪽의 마을.
 구능(舊陵) 다대교 동남쪽에 있는 고분.
 능골 골안 북쪽 골짜기 마을.
 동산 시암말 뒷산.
 무개골고개 골말에서 홍천군 남면 화전리 무개골로 넘는 고개.
 무테골 골말 남서쪽 골짜기.
 무테골고개 무테골에서 여물리로 넘는 고개.
 부랭이 골말 남쪽의 마을.
 아랫들 다대리 맨 아래쪽의 들.
 오목동 시암말 남쪽, 오목한 골짜기 마을로 현재 휴게소가 있음.
 옷물탕 옷 오른 데 신호하다는 샘물터.

이외에도 가는골, 강강골(갈광골, 금광골), 다대교(多大橋), 뒷골, 물안골, 부래이들, 앞산, 원골, 윗들, 자오골, 절터골, 지내미지골, 초장골, 평풍(병풍)바위, 호랑바위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4) 도원리(桃源里)

원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성재리, 풍류산, 풍수원을 합쳐 무릉도원과 같이 풍광이 수려하여 도원으로 칭하게 된 곳이다. 지금도 마을의 바위엔 "무릉도원(武陵桃源)"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강릉골 풍수원골 남쪽 마을로 강릉으로 가는 길목임.

떡갈무기고개(덕갈고개, 德葛峴) 승지골에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떡갈무기로 넘는 고개.

마암사(馬岩寺) 승지골 동쪽의 절로 1955년 안대길이 창건함.

발귀너미(發歸峴) 성재동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신대리로 넘는 고개.

삼백골 풍류산 아래 골짜기.

승지골(聖才洞) 도원리에서 으뜸 마을로 예전에 영남 선생 문하에서 많은 문재(文材)가 배출되어 지어진 지명이라 함.

양지촌(陽地村) 도원리의 양지쪽 마을.

풀무산(風流山, 也山) 승지골 서쪽 마을로 풀무산 밑이 됨.

풍수원골 승지골 남쪽의 마을로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풍수원과 인접되어 있음.

망향비 풀무산 아래 마을에서 이곳을 떠난 이들이 향수를 달래려고 세운 비.

5) 비룡리(飛龍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에 따라 노음리, 교동리, 도청리, 울리, 평촌리 일부를 합쳐 비룡산 아래 지역으로 비룡리라 불려지면서 청운면 소속의 마을이 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6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비룡1리(4반), 2리(2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굿뱀이골 황새골 동쪽의 골짜기.

다리골(橋洞) 평촌 서쪽의 마을로 다리가 있어 생긴 지명.

도둑놈의 터골 도둑이 살았다는 골짜기.

도청(道廳, 都倉) 다리골 남서쪽의 마을로 장둔면 당시 각청의 창고가 있던 곳이라고 함.

운수골 수로로 물자를 운수하던 나루터라고도 전함.

도청고개 도청에서 단월면 보룡리 재인동으로 넘는 고개.

되뿌령소 평촌 북동쪽의 늪[沼].

밤골(栗里) 도청 남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많았음.

부채산 돌부처가 있는 산.

비룡골 밤골 동남쪽 골짜기.

수리너머고개 다리골에서 단월면 보룡리 재인동으로 넘는 고개.

어룡골(禦營-) 비룡산 아래 개울가로 어령청 납관이 머물던 곳이라 함.

점말(店-) 평촌 남쪽의 옹기점이 있었던 마을.

청운교(靑雲橋) 평촌 북동쪽의 다리.

평촌(坪村) 비래리에서 으뜸 마을로 넓은 들에 있음.
 황새울 비래리에서 황새가 많이 서식했던 골짜기.
 장터 옛날 이곳에서 백동까지 장이 섰던 곳이라 전함.
 이외에도 되뿌렁 모룻이, 붓당골, 운수골, 칼바위, 큰밤골, 병풍(평풍)바위, 할미소, 호랑바위, 호통골, 장터, 산소골, 물방아냉골 등의 지명이 있다.

6) 삼성리(三聖里)

원래 지평군 상북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유곡리, 신당리, 고론리 일부를 합쳐 세 성인(聖人)을 모신 신당(神堂)이 있으므로 삼성리라 불리게 되면서 청운면에 편입된 곳이다. 삼성리의 유래가 서·박·남 세 성씨만이 살았던 곳이란 설도 있으나 신빙성은 희박하다. 치커리 차를 가공하고 치커리와 인삼을 재배한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삼성1리(2반), 2리(3반) 마을의 구체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건너버덩 유곡 건너편의 들.
 골말 유곡 서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곳집거리 곳집[庫-]이 있는 골짜기.
 공동묘지골 구승골 동쪽 골짜기로 공동묘지가 있음.
 구승골 유곡 동남쪽 마을로 뒷산엔 금광이 있었고 일명 '구성골(九姓-)'이라 불리기도 함.
 느릅실(楡谷) 삼성리의 으뜸 마을로 참나무쟁이인 느릅나무가 많아 연유된 지명.
 덕재고개 신당에서 신론리 하고론으로 넘는 고개.
 두고개 안말에서 정지골로 넘는 두 고개.
 새나무고개(새남터고개, 鳥木峴) 정지골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화전리로 넘는 고개.
 신당(神堂) 유곡 동북쪽의 마을로 당집이 있었음.
 신당고개 신당에서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목정리로 넘는 고개.
 안말 신당 안쪽 마을로 뒤편 갈기산이 있음.
 정자골 신당 서쪽의 마을로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 정자가 있음.
 참나무재이 유곡 남쪽의 마을로 참나무가 많았음.
 이외에 뒤골, 무밭골, 문앞들, 밤골, 삼성교(三聖橋), 양짓말, 작은골, 참새바위, 큰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7) 신론리(新論里)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인데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에 따라 신대리와 고론리, 신당리의 각 일부를 합쳐 이 중에 신대리와 고론리 두 고을의 지명에서 글자를 따서 신론리라 하면서 청운면에 편입시킨 곳이다. 골짜기가 깊은 고장이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2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론1리(2반), 2리(3반) 마을의 세부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루개재 고론에서 갈운리 가루개로 넘는 고개.

고론(古論) 신론리의 으뜸 마을로 마을을 형성할 초창기에 서로 의논한 데서 연유된 지명이라 함.

고론장승제 매년 4월 말일에 도관은 근신하며 천하향토대장군과 지하향토여장군이라 양각한 장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고서 사물놀이와 음복 등으로 놀이마당을 벌임.

향토마을 신론리에 향토마을을 설치하여 각종 놀이와 먹거리·볼거리로 놀이마당을 벌임. 축제를 열어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한다.

덕재 아랫고론에서 삼성리로 넘는 고개.

밤나무고개 아랫고론 북동쪽 마을로 밤나무가 있었음.

삼선당 웃고론 서북쪽의 마을 위 산봉에 있던 것을 아랫고론 다리개로 옮겨서 매년 산신제를 지냄.

새터(新垆) 웃고론 북동쪽의 새로 된 마을.

소리개재 웃고론에서 갈운리 학교말로 넘어가는 고개.

용소(龍沼, 雲龍潭) 고론 서쪽에 있는 소로 여기서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기우제와 풍우제를 지냄.

중보들(中湫-) 고론 남쪽의 중보가 있는 마을.

터골 골짜기로 집터가 있음.

이외에도 가루개골, 긴골, 밤나무골, 상고론(上古論, 웃고론), 아랫고론(下古論), 양짓말, 작은회골, 절골, 큰회골, 회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8) 여물리(餘勿里)

본래 지평군 하북면 지역으로 물이 많고 곡식이 잘되는 곳이어서, 여기에서 지명 유래가 전해온다. 1908년에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북면 말가리 일부를 합쳐 예전부터 전해오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며 청운면에 편입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1개 행정리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옛날엔 장둔면, 북면, 홍천군의 서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요지였으므로 이곳에 곡식이 쌓여 있는 고장임을 뜻해 지명이 연유되었다고도 한다.

논골 절골 동쪽의 골짜기에 논 있는 곳.

백동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덕수리 백동으로 넘는 고개.

작은둔배이 작은 둥병이 있는 들.
 통골고개 여물에서 단월면 명성리 통골로 넘는 고개.
 성낭제 용머리산 위에 있는 서낭당에서 매년 시월 말에 제사를 지냄.
 이외에 백동골, 병골, 부리골, 빈상골, 살구나무골, 옷말, 절골, 통골, 호랑바우골, 회춘골
 등의 지명이 산재하여 있다.

9) 용두리(龍頭里, 용두, 용머리)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 지형이 용머리처럼 생겨 일컫는 곳으로 1908년 양평군으로
 편입되었다가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하여 황정리, 말가리, 아시리의 각 일부를 합
 쳐 종래의 용두리란 지명을 쓰며 청운면에 소속되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3개 행정리 8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면사무소가 위치한 마을
 이다.

용두1리(4반), 2리(3반), 3리(1반) 마을의 세부적인 지명은 다음과 같다.

가능골 용머리 북동쪽 골짜기.

가능골고개 가능골에서 황정들로 넘는 고개.

세기바위 석이버섯이 나는 바위.

안산(案山) 용머리의 앞산.

원머루 용머리 남서쪽 마을로 갈분천과 다대리 물이 합수되는 지역이고 김정환의 송덕비
 가 있음.

은구비(隱九非, 움구비) 황정들 동남쪽 마을로 갈분천 냇물이 구비친다 하여 일컫는 말.

장터 용머리 동쪽의 시장이 서는 곳.

큰보다리 용머리 남쪽의 다리로 보의 머리쪽이 됨.

황정들(黃庭-) 용머리 동쪽의 마을로 가을 곡식이 잘 익는 곳이라 함.

서낭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매년 정월 4일 서낭당에서 제사를 지냄.

이외에도 갯나룻, 군배미, 농바위, 덕새, 도루배기, 무치막골, 서낭당, 선바위, 세기바위골,
 용두교(龍頭橋), 할미바위, 활골 등의 지명이 더 있다.

이상 양평군의 255개 행정리의 지명 일람을 마무리한 셈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
 나 완전무결한 고장의 내력과 연관된 지명 해설이 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할 뿐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더 늦어지지 않았음도 천만다행이며, 오로지 한 나라의 역사 현
 장으로서 선대의 숨결이 불은 멋과 생활흔적이 인물과 자연적 생태계, 지리적 여건의 전설
 유래담에 녹아 있으며, 양평의 향토인만이 느끼게 될 고장의 향수로 영원히 전해갈 일이라
 하겠다.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뀔수록 고유지명은 인멸되어 왔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의 강제적인 지역통폐합에 의해 자연촌락 단위의 마을 고유명칭은 의도적인 간계로 사라졌음을 가장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양평군내의 술한 민속 근거자료가 계속 보완되어지리라 생각하고 우리 양평군민 전체는 향토애로 화합해 갈 것이며, 전통성에 의거한, 발전을 지속하는 복된 땅, 무궁한 은혜 받는 고장으로 수도권 시민과 전 국민을 위해 너와 내가 서로 손잡아 사랑의 요람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동국여지승람』에서나 『택지리』에서 지칭한 용문사 백운봉의 그 위용, 지세가 험착하고 낙토가 되지 못할 공기 한냉하다던 양평군은 오히려 산업사회의 환경오염권을 청결케 만드는 국민건강의 제일 요람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천혜를 앞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꾸미고 가꾸어야 함이 과제이다.

지대가 높고 겨울날씨가 춥다고 하는 우리 양평군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울타리 삼으며 수도권 국민들이 왕래하는 확 트인 팔당의 상류(上流)를 사철마다 경이감으로 감상할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긍부심을 잃지 말아야 하리라고 믿는다.